

ISSN 2508-3139

성무

星武

2023. October
Vol. 52

하늘로 우주로
비상

영공방위 전승의
주역

위대한 날갯짓
창군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단법인 성무안보연구소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공군과 함께하는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 군인연금 수령은행 지정/변경 시 ☎ 02-3146-6498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

Korea Best Bank

국민은행이 공군과 함께합니다

전 부문 1위



국가고객 만족도 NCSI
은행권 최다 16회 달성

브랜드
평판부문

고객수
은행부문

시중은행
국내영업망

인터넷뱅킹
M/S

퇴직연금 DC
/IRP 적립금

스마트뱅킹
M/S

오픈뱅킹
가입자수

원화예수금
M/S

원화대출금
M/S

ESG
경영평가

시중은행
기부 부문

(2022.12월 말 기준)



856개
시중은행
최다 점포



6,946개
전국최다
자동화기기



3,200만
최다
거래고객



2,213만
최다 인터넷뱅킹
가입자 수



1,710만
최다 스마트폰뱅킹
가입자 수

(2022.12월 말 기준)

국방종합훈련체계의 글로벌 리더
한길씨앤씨주식회사

비전과 추진전략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



한길과 함께하는 성무원

- | | | | | | |
|---------|---------|---------|---------|---------|---------|
| 신용인(33) | 이덕대(27) | 나시중(30) | 전용성(33) | 조상용(33) | 김종수(34) |
| 최재훈(34) | 강병철(34) | 강우석(34) | 정하봉(36) | 김주영(37) | 이준혁(37) |
| 김정윤(37) | 서해원(37) | 김창배(37) | 장형희(39) | 윤형모(41) | 강경식(46) |






주요 사업영역

한길씨앤씨(주)는 공군 전투기와 훈련기, 해군 초계기와 잠수함, 육군 헬기 등 주요 국방무기체계에 대한 CBT, VR/AR 솔루션, TMS,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 및 운영하는 종합훈련체계 전문기업입니다.

CBT	VR/AR
<p>TIMS (통합훈련관리체계)</p>	<p>Simulator</p>

향후 주력분야

<p>딥러닝, 음성인식 기술 등을 접목한 개별화된 맞춤형 훈련체계 개발</p>	<p>가상공간 내에서 실제와 같은 상황 구현 및 상호작용 가능 환경 구축</p>	<p>AI, VR 등 미래형 기술이 바탕이 된 실용성 높은 종합 훈련체계 개발</p>
<p>인공지능 </p>	<p>VR/메타버스 </p>	<p>종합훈련체계 </p>

빙그레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빙그레



국가와 사회와 함께하는 빙그레,

빙그레는 2011년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빙그레공익재단을 설립하여 독립 운동,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독립 애국지사 도서 보급사업 등과,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와 독립, 애국지사 선양 단체와 한국학기초자료의 수집, 보존 전문단체 등에 대한 후원을 지속함으로써, 독립 애국정신과 품격있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발견, 계승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빙그레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은 빙그레공익재단 출연사인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오랜 관심과 노력에서 시작됐다. 백범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김구재단을 설립했으며 후손없이 서거한 이봉창의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를 재건하여 회장을 역임하고,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부회장, 독립기념관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에 힘써왔다.

한편, 공군학사장교 73기인 김 회장은 백범김구 선생의 차남인 제6대 공군참모 총장 김신 장군의 사위이며, 아들인 김동만씨는 공군학사장교 126기이다. 김 회장은 제7, 8대 공군학사장교회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공군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공군 역사재단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공군 역사재단 국제학술회를 개최하고, 공군의 정책과 역사에 관한 학술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다. 또한, 김구재단 장학사업을 통하여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에서 군복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간부 및 장병들에게 매년 '백범장학금'을 수여하여 공군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Contents

2023 October Vol. 52

08 교가·교훈·공사심훈

14 권두시 / 최영훈(30기)

34 특집 기고

세계를 향한 하늘길, 우주길을 함께 열어 갈 KAI의 동반자, 대한민국 공군! / 강구영(30기)

인공지능(AI) 시대의 리더십 / 정석환(31기)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을 맞이하며 / 송재규(30기 송일영 동문 자제)

10 인사말 / 정경두(회장)

20 총동창회·연구소 소식

52 특집 기획 「자랑스러운 발자취,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상」

54 〈성무인이 남긴 발자취를 찾아〉 공사 10대 뉴스를 선정하다

69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공사인

77 생도생활 상징용어

84 공군사관학교 모집 및 학사관리 변천사

88 〈세계 속의 일류사관학교로 도약〉 공사의 외국생도 수탁교육 실적과 졸업 후 진출현황

97 〈19인의 명사들이 공사 생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名士名言

138 동문기고

옛 星武臺 정문앞에 서서 / 배기준(12기)

우주를 향한 나의 꿈 / 강전영(72기)

더 멀리, 더 높게 / 조원준(72기)

자랑스러운 전투조종사의 삶 / 허두기(7기)

어느 늙은 전투조종사의 인생 얘기 / 최성열(15기)

잊지 못할 나의 생도생활 사건 / 이상길(26기)

관악산 돌파훈련, 그 혹독했던 시작과 안타까운 마침표 / 송기준(25기)

대방동 별곡 / 김익래(16기)

20기의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며 / 박동형(20기)

2023년 안보학술 세미나를 마치고 / **조보근**(30기)
군사학의 태두, 故 이종학 교수님을 기리며! / **김재범**(34기)
백수무강(百壽無疆)의 꿈 / **김국창**(7기)

나는 왜 칠순을 지난 아내와 2천리 순례길을 걸었나 / **금기연**(21기)
캠핑카로 울릉도에서 한 달 살기 / **장석원**(23기)
히말라야(랑탕코스) 트레킹을 다녀와서 / **이연수**(30기)

교통사고가 준 인생의 교훈 / **김병오**(23기)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 **류춘열**(30기)
슬기로운 은퇴 생활 / **은진기**(26기)
군화(軍靴) / **이두희**(29기)
야간 초계 비행 / **강임구**(24기)
빛바랜, 그러나 그리운 유년시절의 추억 / **이학주**(30기)

이오지마섬이 주는 한일관계의 함의(含意) / **김학준**(34기)
S.A.F.E.T.Y / **임수훈**(34기)
단지(斷指)의 리더십 / **박기범**(67기)
뉴노멀 시대, 뉴타입으로 전환하라! / **이수훈**(44기)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 주짓수 / **서동우**(48기)
웨이트 트레이닝, 바른 자세로 꾸준히 / **정승제**(58기)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 **이찬희**(70기)
마음근력 키우기 / **손민욱**(70기)

234 **우정기고**

순간에서 영원으로 / **이범욱**(공사 발전후원회 명예회장)
남편의 덕, 아내의 자격 / **이명자**(9기 故 강춘근 동문 부인, 순조회)

244 **성무인의 신간도서**

250 **동문 동정**

254 **미주 서부지회 소식**

255 **교육진흥재단 현황**

258 **총동창회·연구소 알림**

267 **편집후기**

교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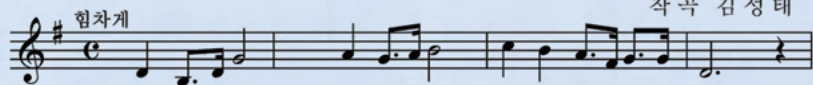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공 사 심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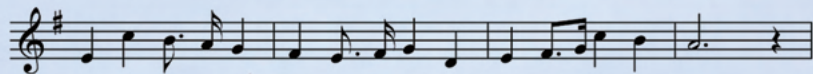
- 하나.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 하나. 청렴결백(清廉潔白)하라
- 하나.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 하나.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 하나.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 하나.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 하나.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 하나.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 하나.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 하나.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공군사관학교 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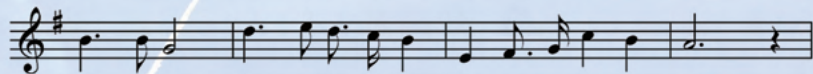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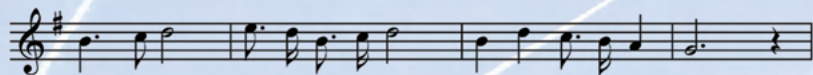
1. 우 리_는 피 끓_는 배 달 의_아_ 들
2. 우 리_는 하 늘_을 배 우_는_젊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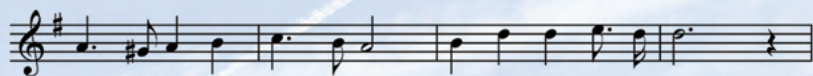
높 고 빛 나 는 한 배 님 정 신 이 어_받 아 서
높 고 참 다 운 군 대 의 정 신 새 로_이 룩 해



누 리에 떨_ 치 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를 지_ 키 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_ 늘 은 우 리 의 일 터 요 싸 움 터



하 늘 에 살 면_서 하 늘 에 목 숨 바 친 다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원 여러분!



제30차연도 총동창회 운영을 시작한 지 엇그제 같은데 세월이 훌쩍 지나 벌써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30기 창로회가 주관하는 총동창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총동창회 운영과 관련하여 「마음의 고향 성무대! 관심과 참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월 중순 정기 이사회를 통해 금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고, 많은 동문들께서 마련해 주신 운영기금과 광고 협찬 기업의 도움을 받아 연초에 계획한 다양한 행사 및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총동창회보인 「성무」誌를 동문들께 읽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무」誌 발행은 1년간 총동창회 운영의 중요한 성과물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기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동문과 기고자분들 그리고 원고모집 및 편집을 위해 봉사해 주신 제30차연도 편집위원들의 수고 덕분이었음에 이 지면을 통해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30차연도 편집위원들은 연초 기획 단계부터 여러 차례 회합을 가지며 숙고(熟考)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 이번 성무지에는 74년 전통에 빛나는 모교의 성장 발자취를 분야별, 이슈별로 집중 조명해 보고, 미래발전을 위한 화두를 제시하는 특집 기사를 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사 10대 뉴스 선정”, “성무대 분야별

주요 변천사”, “기수별 생도생활 상징용어 소개”, “공사 교육발전을 위한 각계 명사(名士)들의 말씀” 등 참신한 읽을거리가 넘치는 성무지 제52호의 탄생을 기쁘게 생각하며, 모쪼록 동문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무지를 일독(一讀)하시면서 공사출신이라는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심은 물론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소망해 봅니다.

공군사관학교 동문 여러분!

지금부터는 창로 30기 동기회에서 제30차연도 총동창회 운영을 맡으면서 이룩한 몇 가지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총동창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원진 조직화를 기했다는 것입니다. 총동창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나뉘어 파악해서 대외협력본부, 학술사업본부, 장학사업본부, 성무지편집본부, 행사사업본부, 역사기록본부, 해외사업본부로 7개 본부를 구성하여 임원진을 편성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총동창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 동문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통수단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밴드 가입 동문 인원이 약 600명 정도 수준에서 현재 2,500여 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한편 동문들께 작은 혜택을 드리하고자 가능하면 「성무」誌와 공사 달력 등을 평생회비 납부 전 동문에게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무지 : 3,000부 → 4,500부) / 공사 달력 : 1,300부 → 5,500부)

셋째, 총동창회 운영을 위한 평생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학주 사무총장의 열성적인 노력과 각 기수 회장단의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는 동문께서 납부해 주시는 평생회비가 소중한 자원입니다. 총동창회

기금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동안 미납된 평생회비 약 3억 원을 모금하였으며, 특별히 전체 동기회 전원 평생회비 납부를 해주신 52기, 64기, 66기, 69기 동문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회비는 장기적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전액 총동창회의 기본 재원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전원 완납하는 멋진 전통이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넷째, 성무장학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사)성무안보연구소를 국가 공익법인(지정 기부금단체)으로 승인 받기 위해 1년 동안 필요한 서류 작성 등 많은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현재 정부 기관(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뜻있는 분들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1년에 제28차연도 총동창회에서는 하늘사랑장학재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문 유자녀들에게 성무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였고, 장학사업과 안보연구 활동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총동창회 산하에 '(사)성무안보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제29차연도 총동창회에서는 제28차연도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설립된 '(사)성무안보연구소'가 법인 설립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잘 계승·발전시켜 오셨습니다. 이번 30차연도 총동창회 운영을 맡은 30기 창로회에서는 제28차연도 총동창회로부터 승계되어 온 성무안보연구소 운영과 성무장학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제 장학 기금 지급 대상 학생이 30명에 이르고 있으며, 성무장학기금 모금 확충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타 운영 성과로 성무안보연구소 홈페이지를 보완하였고, 연구과제를

최대한 발굴하여 과제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특히 금년도 안보 학술 세미나는 하반기 ADEX 개최를 고려하여 7월 초에 조기에 계획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1990년 미국이 주도하여 속전속결로 단기간에 전쟁을 종결한 걸프전을 비교 분석하여 후배들이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어떤 세미나 보다도 의미있게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는 연구소가 설립 초기 단계이므로 기금조성이나 연구과제 수행 등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향후 연구소가 제대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무」誌 발행 업무와 성무 안보연구소의 발전은 어느 일부 소수 동문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동문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법인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금 조성 및 확보, 꾸준한 연구 활동과 과제 수행, 내실 있는 세미나 개최 등 연구소의 모든 활동에 많은 동문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임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면을 빌려 성무안보연구소 업무를 맡아 무보수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 조보근 소장을 비롯한 이사진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동문님들의 건안하심과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제30차연도 총동창회장 정 경 두

〈특집 권두시〉

우리 하늘 지켜낸 창공의 별들



30기 최영훈

반만년 금수강역 푸른하늘을 선견과 희생으로 수호하시고
이제는 저 높은 창공의 별로 반짝거리는 님들의 발자취를
기억하오니

길이길이 이 하늘의 안녕을 열어주소서

16세기 말 이후 급속 전개된 서세동점(西勢東漸) 약육강식의 시대에
사대(事大)와 천무(賤武)로 약할대로 약해진 성리학 기반 전제군주정
농업국가 조선은 숙명처럼 간단(間斷)없는 외침과 환란을 맞아야 했으니

그러나 영웅은 亂世에 나타난다 했던가

滅이나 生이나 풍전등화 같았던 朝日전쟁(1592~1598) 초기
천재발명가 정평구(1566~1624)는 비차(飛車)를 만들어
倭敵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한민족 최초로 비행체를 공중에 띄운 그에 대해
육당 최남선은 한국을 빛낸 100인의 위인이라고 손꼽았다.
정평구의 비차가 병기화되어 실전에 배치되었다면
충무공 이순신의 거북선과 함께 전승을 이끄는 전략무기가 되었을 것이고
동아시아 질서는 바뀌었을 것이다.

망국의 기운은 돌이킬 수 없이 몰아닥쳐 마침내 하늘마저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혹독했던 對日 독립전쟁기(1895~1945)

풍찬노숙(風餐露宿) 목숨을 건 투쟁 속에서도 임시정부 요인이 중심이 된 항공의 선각 엘리트들은 하늘을 통한 조국 광복의 응혼한 꿈을 꾸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1876~1949)는

제대로 된 독립전쟁을 하려면 임정 군대에 공군을 편성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여건조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1878~1938)는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민심을 격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행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1875~1926)은

앞으로 공군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 예견하고

하늘의 싸움꾼을 키우기 위해 이역만리 미국 캘리포니아

소도시 윌로우스(Willows)에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를 설립하였다.

막대한 재정지원은 쌀농사로 백만장자가 된 김종립(1886~1973) 애국지사가

학교운영은 광림대(1884~1971) 애국지사가 각각 맡았다.

비행교관은 미국인 프랭크 브라이언트,

한장호(1893~1994), 이용선(1889~?), 이 초(1894~?), 오림하(?),

장명훈(1894~1979), 이용근(1890~1950)이었고

졸업생 박희성(1896~1937)과 이용근(1890~1950)은

임시정부의 비행장교(참위) 1호가 되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 이들의 노력으로 윌로우스 한인비행학교는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일제의 폭압과 만행이 거칠어질수록 우리 하늘 독립군들은

중국공군의 일원으로 中日전쟁 참전을 통해

항일투쟁의 선봉장으로 솟구쳐 올랐다.

항공독립운동의 선구자이자 중국 최초 한인 조종사로 맹활약한
서왈보 장군(1887~1926),

한국인 최초의 여성조종사이며 공군의 어머니로 평가받고 있는
권기옥 독립투사(1901~1988),

중국인들에게 항일항공열사(전사조종사)로 추앙받고 있는
전상국(1907~1938) 김원영(1919~1945) 비행사,

그리고 한반도 상공을 최초로 비행하여 우리 겨레에 자주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 준 천재비행사 안창남(1901~1930) 등
짧지만 불꽃처럼 살다 간 많은 항공투사들의 희생으로
해방의 여명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약소국의 운명은 너무나 비참하였으니
일제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광복의 기쁨은 잠시였고
한반도에는 이념대결 국토분단 전쟁 발발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1875~1965)은
북한 공산집단의 침공을 예측한 군 최고 통수권자로 시기상조라는
지상군주의자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군 창설을 결심하였고
이승만의 용단(勇斷)은 대한민국 국군이 공군력없이
강력한 적과 싸워야 하는 불행을 막았다.

아울러, 6.25전쟁 발발 직후 미 공군이 주축이 된
UN공군의 빠른 참전을 이끌어 낸 이승만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赤化의 大危機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 과정과 6.25전쟁 참전 활약상은 가히 기적이였다.

독립군, 광복군, 중국공군 출신 최용덕 장군(1898~1969)은 당시 50세의 최고참 老兵으로 공군창설의 대의를 위해 백의중군 모든 것을 바쳤고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온 참군인이면서 공군이 가사, 공군의 결의, 空士十訓 등을 만들어 후배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김정렬 장군(1917~1992)은 뛰어난 항공전략가의 안목으로 역작인 “항공의 경종”을 적기 배포하여 공군 창설 찬성 여론을 결정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초대 공군참모총장이 되어 6.25전쟁에서 조국의 하늘을 지켜내고 국가방위의 핵심으로서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6.25전쟁은 치열했던 지상전투 못지않게 당대 최고 최신의 항공기들이 총동원된 사상 최대의 항공전이 벌어졌다.

한국 공군을 포함한 UN공군은 북한, 소련, 중공 등 적군 항공기 2,100여 대를 파손·파괴하였고 적 병력 18만여 명을 살상하는 압도적인 전과를 거두었다.

6.25전쟁 기간 하늘의 전장을 누빈 한국공군 조종사는 166명이며, F51 전투기 출격조종사 115명 중에서 39명이 100회 이상 출격 임무를 수행하였고 25명의 조종사가 전쟁 기간 적과 싸우다 호국의 별이 되었다.

이근석 대령(1917~1950)은 미군으로부터 F51 전투기를 인수받은 지 하루만에 세계 항공전사에 유례가 없는 초단기 출격을 감행하여 피탄(被彈) 상황에서 비상탈출을 포기하고 적진에 돌진 자폭하였다. 준장으로 추서된 이근석은 최초로 전사한 전투조종사가 되었다.

김정렬 장군의 동생 김영환 장군(1921~1954)은
적 무장공비들의 소굴이었던 해인사에 대한 공중폭격명령을 받았으나
불타버리면 다시는 볼 수 없는 팔만대장경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직접적인 폭격을 중지시켜 소중한 국보(세계기록문화유산)를 지켜내었고
대한민국 공군조종사의 상징인 빨간마후라의 원조로 추앙받고 있다.

김신 장군(1922~2016)은 백범 김구의 차남으로 해방 직후 부친의 뜻대로
미국에서 최초로 F51 전투기 조종 자격을 얻었으며
6.25전쟁 직후부터 최일선 공중전투지휘관으로 맹활약하였고
특히, 그의 지휘 아래 초저공침투공격(기존3,000ft ⇒1,500ft)으로
완벽하게 수행된 승호리철교차단작전은
한국공군의 용맹성과 높은 전투 기량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전승 사례로 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재일교포 학도의용군 출신 박두원 대위(1926~1952)는
연일 출격을 자원할 정도로 용감무쌍한 군인이었으며
89회째 임무 수행 중 적 지상포화에 피탄되어 애석하게 전사하였다.
그의 동료조종사들은 박 대위의 원혼을 달래고자
그의 영정을 들고 소원하던 100회 출격을 달성해 주었다.

1948년 북한에서 월남한 이세영 소령(1927~1951)은
F51 전투기를 몰고 저고도 폭격 임무 수행 중
피탄되었으나 비상탈출을 마다하고
애기와 함께 적 진지로 돌진하여 24세의 푸른 생을 마감하였다.

공사1기 출신 임택순 대위(1930~1953)는
휴전을 녀 달 앞두고 351고지 탈환을 위한 수차례의 공중공격 임무수행 중
피탄되어 꽃다운 목숨을 호국의 제단에 기꺼이 바쳤다.

공사출신 최초의 전사조종사가 된 임 대위의 동상은 모교에 세워져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폭격의 명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고헌수 대위(1929~1953)는
휴전을 며칠 앞두고 약혼 휴가를 미룬 채 출격에 나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고
그는 6.25전쟁 마지막 전사조종사가 되었다.

유치곤 장군(1927~1965)은 영화 빨간마후라의 실제 주인공이자
대한민국 공군 최다출격(203회)에 빛나는 최고의 전투조종사였다.
그는 승호리철교차단작전, 평양대폭격작전,
351고지탈환작전, 송림제철소폭격작전 등
공군의 대표적 전승작전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이제 6.25전쟁이 정전상태로 끝난 지 어언 70년이 지났다.

멀게는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항공영웅들의 값진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가 진행 중이다.

하늘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공군력이 강하지 않으면
땅과 바다는 물론 국가와 국민의 생존조차 위태롭게 된다.

과거에는 땅과 바다를 지배해야 강대국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늘과 우주를 지배해야 진정한 강대국이 된다.

우리의 소중한 일터요 싸움터인 하늘을 국란의 고비마다 피 흘려 지켜주고 물려주신
先代 항공인들의 위훈을 기리고 또한 생생한 성패의 교훈을 깊이 새기면서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강국을 향해 모두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자.

총동창회·연구소 소식

공군본부 예방 (2023. 1. 17.)



총동창회 및 연구소 임원진은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정상화 참모총장 및 참모들과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업무 협조와 성무안보 연구소의 외연확장을 위한 항공 우주연구소와의 협업 제안, 성무장학기금 확충 방안 및 기부 관련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공군사관학교 예방 (2023. 1. 17.)



총동창회 임원진은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및 참모들과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졸업생도의 평생회비 완납 협조와 공사달력 조기 제작 및 동문 배부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방문후에는 공사발전 후원회원 11명과 청주에서 만찬을 가졌다.



공군전우회 및 공군발전협회와 토론회 (2023. 2. 8.)



총동창회 및 연구소 임원진은 공군전우회 및 공군발전협회 김은기 회장과 윤우 연구원장, 임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갖고, 공군전우회와 공사총동창회의 상호발전, 공군발전협회와 성무안보연구소의 협업 방안과 성무장학기금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30차연도 정기 이사회 (2023 2. 16.)

총동창회 및 성무안보연구소는 제30차연도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관심과 참여’를 운영 중점으로 정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회계 연도 변경에 따른 회칙 및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공익법인 신청을 위한 정관을 추가하였다.



71기 졸업생도 총동창회장 특강 및 최용덕상 시상 (2023. 2. 22.)



총동창회는 71기 졸업생도를 대상으로 정경두 회장의 군인과 공직자로서 걸어온 경험담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총동창회장상인 최용덕상을 남현성 생도에게 시상하였다.

또한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71기 생도들의 졸업 및 임관 축하 선물과 후원품으로 기증받은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다.

71기 졸업·임관식 및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전달 (2023. 3. 8.)



총동창회 및 연구소 임원진은 7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여 생도들을 축하하였으며, 행사 전 공사 교장 접견실에서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무관과 튀르키예 생도에게 지진피해 성금을 전달하였다.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2023. 3. 16.)

역대 총동창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제 30차연도 총동창회 및 성무안보연구소가 1년 동안 시행할 사업계획을 보고하였다. 자문위원단은 평생회비 완납 독려 필요, 최용덕상에 대한 의견, 성무안보연구소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들을 내 주셨으며, 총동창회와 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격려 말씀이 있었다.



청운 보육원 후원 방문 (2023. 3. 20.)



성무안보연구소 임원진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도 청운보육원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청운보육원은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고아, 기아, 결손, 빈곤가정의 아동에게 자립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본 연구소에서는 3년째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예비역 이사가기수 임원 간담회 (2023. 3. 30.)

예비역 이사가기수(22기~36기) 임원단을 초청하여 성남체력단련장에서 운동 후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앞으로 진행할 행사에 대한 조언 및 공사 총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거시적 방안 논의, 평생회비 완납을 위한 노력 경주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항공안전단 부대방문 격려 (2023. 4. 3.)

총동창회 회장단은 공군항공안전단을 방문하여 부대장병을 격려하였다.

항공안전단은 공군 예비역 단체들을 지원하고, 예비역과 현역들의 가교 역할 및 예비역들의 민원사항들을 직접 해결해주는 부대로서 회장단은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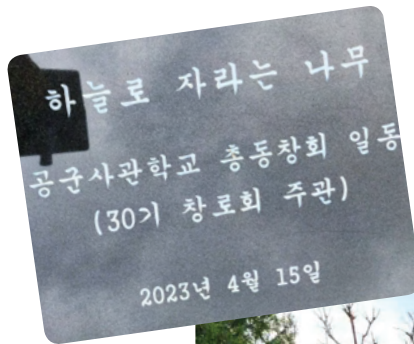


기념식수 및 공사 발전후원회 간담회 (2023. 4. 15.)

총동창회 회장단은 모교를 방문하여 기념 식수를 거행하였다.

생도들 왕래가 잦은 교수부와 도서관 사이에 배롱나무 두 그루를 식수하고 그 사이에 표지석을 세워 '하늘로 자라는 나무'로 명명하였으며, 그 외 백목련, 감나무, 수사해당화 등 총 10주를 기증받아 성무대 주변에 식수하였다.

식수 행사를 마치고 공사 발전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사 및 생도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함을 표하였다.



현역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2023. 4. 24.)



총동창회 회장단은 계룡대에 직접 방문하여 현역 이사기수(37기~50기) 회장단을 초청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총동창회 업무 현황 및 후배 기수들의 총동창회 적극 동참에 대한 독려와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테니스대회 개최 (2023. 5. 9.)



총동창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중단되었던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16기부터 43기까지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였으며, 친선 도모를 위하여 정해진 편조 구성없이 자연스럽게 편조를 나눠 로테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순조회 초청행사 (2023. 6. 1.)



총동창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공군 호텔에서 순조회(순직조종사부인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하였다.

행사 후에는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기념 타올과 후원받은 화장품세트 및 부영그룹에서 찬조한 별도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연말에는 종전과 같이 공군전우회와 공동 주관으로 초청행사를 한 번 더 가질 예정이다.

국립서울현충원 합동참배 (2023. 6. 5.)

총동창회는 공군전우회, 전공상유공자회, 학사장교회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총헌탑에서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전몰장병들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기리며 합동참배를 실시하였다.



공군사관학교 임관기념행사 (2023. 6. 10.)

공군사관학교에서 50주년(21기), 40주년(31기), 30주년(41기), 20주년(51기), 10주년(61기) 임관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총동창회 회장단은 행사에 참석하여 50주년을 맞은 21기 동기회에 축하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순조회원들과 함께 영원한 빛 추모비 헌화 및 명예졸업장 수여식도 함께 거행하였다.



친선 바둑대회 개최 (2023. 6. 20.)



총동창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중단되었던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전과 복식전으로 나누어 열띤 바둑 대국을 펼쳤으며, 한국 기원 프로기사 9단 김수장 지도사범을 초청하여 다면기와 자유기도 진행하였다.



성무장학증서 수여식 (2023. 6. 28.)



공사 총동창회 부설기관인 성무안보연구소에서는 공군호텔에서 성무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금번 수여식은 '23년도 신규 수여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학금은 기존 수여자 18명과 함께 총 28명에 대하여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성무안보연구소는 하늘사랑장학재단 수혜자가 아닌 일반 사망자(질병 및 사고사)의 유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성무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성무안보연구소 제3회 안보학술 세미나 개최 (2023. 7. 7.)

성무안보연구소 주관 제3회 안보학술 세미나를 공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걸프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 및 제언'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세미나는 정경두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기호 국방위원장, 안규백 국방위원, 공군참모총장의 축사, 서울대 김태유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의 사회와 양욱 박사, 김광진

교수, 한용섭 교수, 임종인 박사의 주제 발표 및 이양구 고문의 특별제언 후 유용원 기자, 김일동 국장, 조남훈 박사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부산 밝은세상안과 업무 협약 (2023. 8. 7.)

총동창회는 시력교정 전문병원인 서울·부산 밝은세상안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총동창회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비급여진료 최대 20~49%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현역은 장교 신분증, 예비역은 전역증, 가족은 휴대폰에 저장된 남편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선 당구대회 개최 (2023. 8. 26.)



총동창회는 제1회 당구대회를 현대당구장에서 개최하였다.

19기~47기까지 6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을 도모하며 열띤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선·후배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3구 우 승 : 박신규(27기), 박동성(32기)
준우승 : 최미락(25기), 박배조(32기)
- 4구 우 승 : 민병홍(21기), 박성순(23기)
준우승 : 이형걸(32기), 김지식(35기)
- 하이런상 : 윤병학(26기), 최정근(27기)

(사)성무안보연구소 공익법인 지정 (2023. 10. 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3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297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5.12.31. (3년간)

.....

.....

(사)성무안보연구소

.....

.....

(사)성무안보연구소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연구소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으로써 세금공제가 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후원금 유치 확대에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고, 성무장학사업의 지속 및 수혜대상자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이딩 동호회 행사 (2023. 10. 14.)

총동창회는 추계 라이딩 동호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17기~32기 라이딩 동호회원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호반의 도시 춘천 라이딩을 통하여 선·후배간 친목 도모 및 건강을 증진하였다.



보라매공원 걷기 행사 (2023. 10. 24.)

총동창회는 보라매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7기~41기까지 270여 명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였으며, 보라매공원 둘레길 트레킹을 통하여 옛 모교 성무대의 추억을 회상하고 선·후배간의 친목 도모 및 동문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CONNECTED

The background is a dark blue digital landscape. The floor is a grid of small dots. Several glowing yellow lines crisscross the scene, connecting different elements. In the upper part, there are blue wireframe models of an airplane and a truck. In the lower part, there are blue wireframe models of a jet fighter and another truck. The overall aesthetic is high-tech and futuristic.

www.huneeed.com

87 Venture-ro, Yeonsu-gu, Incheon, Korea 22013

Tel:82-32-457-6000 / Fax:82-32-457-6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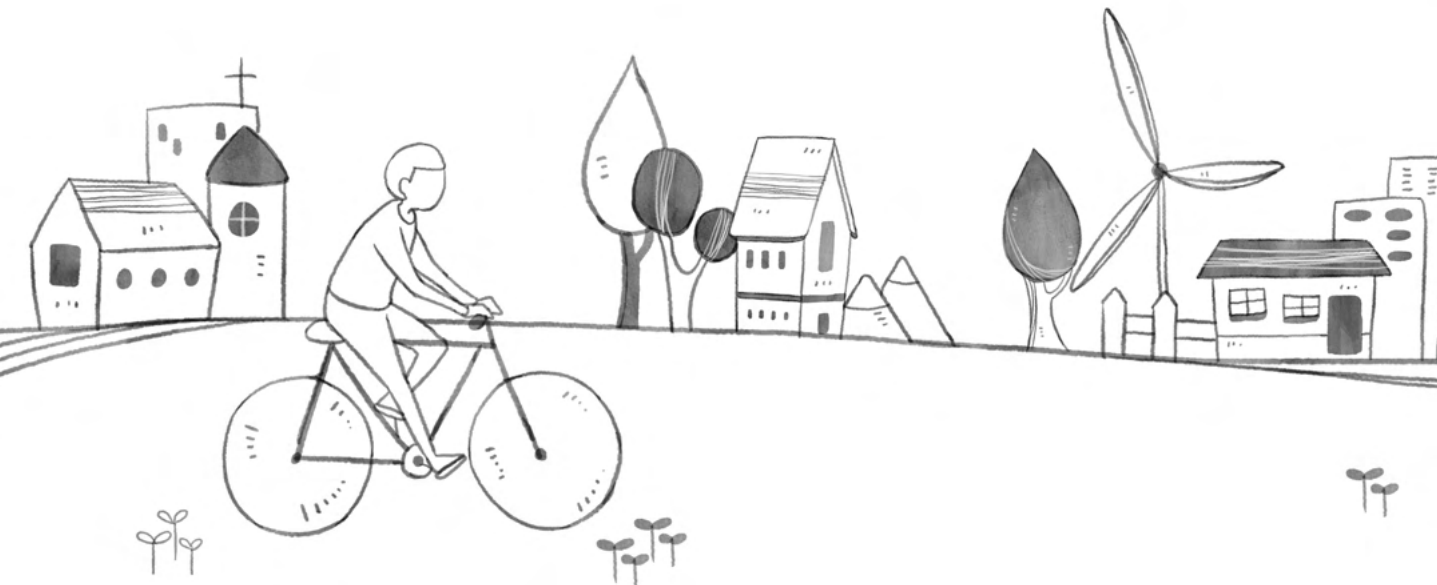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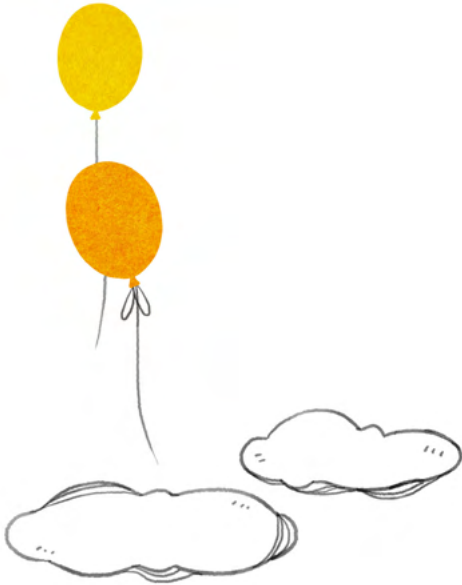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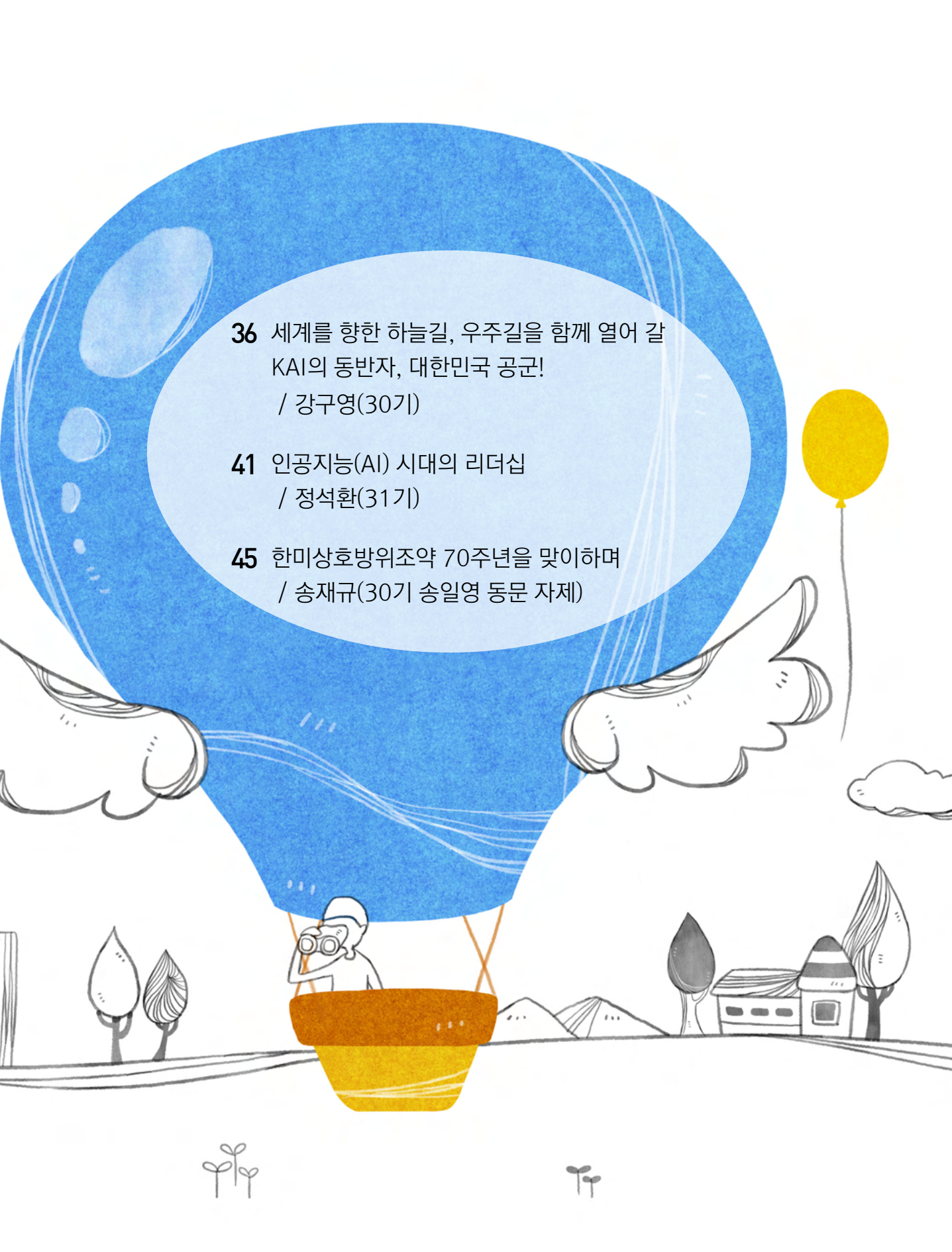
TO DEFEND

Huneeed Technologies



특집 기고





36 세계를 향한 하늘길, 우주길을 함께 열어 갈
KAI의 동반자, 대한민국 공군!
/ 강구영(30기)

41 인공지능(AI) 시대의 리더십
/ 정석환(31기)

45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을 맞이하며
/ 송재규(30기 송일영 동문 자제)



세계를 향한 하늘길, 우주길을 함께 열어갈 KAI의 동반자, 대한민국 공군!



강구영(30기)
 KAI 사장

지금까지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늘 안보와 이동 수단 분야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8~20세기 중반의 1, 2차 산업혁명은 선박, 차량, 철도 산업의 발전과 대중화를 이끌었고 이로 인해 누구나 지·해상에서 거리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다. 또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던 이 시기에 벌어진 전쟁은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총력전, 지구전, 대량살상전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고 인류 역사에 치유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과 상처를 남겼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도합 1억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60~70%의 기간산업이 파괴되었다.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대량 살상의 지구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은 연합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전쟁에서 패한 최초의 사례가 되면서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새로운 전쟁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21세기 후반에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기술에 바탕을 둔 EBO(효과중심작전), RDO(신속결정적작전), NCW(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의 피해 최소화 전략이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항공우주력이 전쟁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항공우주력이 주력이 된 1, 2차 걸프전에서는 수십만이 동원된 대규모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동맹군의 사망자가 150여명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항공우주력만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1, 2차 산업혁명 기간에는 선박, 차량, 철도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제3차 산업혁명 기간에는 항공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우주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목도하는 시기였다. 이에 세계의 경제 선진국들은 차량, 선박 중심의 모빌리티 수단을 블루오션인 항공과 우주산업 분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제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안보적으로, 산업적으로 항공우주분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제3차 산업혁명 이후 항공우주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우리 군 역시 거세게 불어 닥친 국방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항공우주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항공우주를 주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공군은 물론이고 육군, 해군, 해병대마저도 이 부분에 집중했고 “땅과 바다는 누가 지키나”하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만큼 우리 군의 관심은 항공우주분야에 계속 집중되고 있다.

산업측면에서도 제3차 산업혁명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1999년 KAI가 창립되면서 항공우주산업은 통합적,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단기간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최대 수요자인 공군이 있었다. KT-1과 T-50 개발이 검토되던 시기만 해도 국내기술과 산업적 기반이 없는 상태였지만 우리 공군은 자주국방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결정 시 국익 차원의 대의적 결단을 내렸고, 이것이 지금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초석이 되었다.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우주체계 종합업체인 KAI의 비약적 발전은 항공우주산업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를 제3세계 최고의 항공우주산업 국가로 올려 놓았다. 지난 24년 동안 이룩한 KAI의 성공은 세계 어느 국가, 어떤 기업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야말로 기적의 스토리이다. 이 기간 동안 KT-1, KC-100, T-50/FA-50, KUH, LAH, 중대형 위성, 우주발사체, 무인기 등 다양한 분야의 비행체 개발을 성공했으며 5세대 플랫폼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2개 사업도 성공하기 어려운 기간에 10여 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한 사례는 세계 항공우주산업 발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공사례이다.

우리 공군과 함께 성장한 KAI는 이제 세계적 항공우주산업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미 KAI의 항공기 660여 대

가 세계 하늘을 날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전투가능 항공기 생산량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국가가 되었다. 세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T-50/FA-50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뢰성이다. 지난 20년간 우리 공군의 안정적인 운용데이터와 검증된 성능, 뛰어난 훈련·전투 효율성은 해외 여러 나라들의 찬사와 호평을 받고 있다. 공군의 블랙이글스도 해외 마케팅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군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현재 KAI의 성공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신냉전의 도래와 러·우전쟁으로 많은 국가들이 KAI의 기술력과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최근 10여 개국 이상과 구매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UAE 등 1~2개 국가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이집트와 36~100여 대의 대형사업 추진도 기대하고 있다. 2025~2027년 간에는 미 해·공군에서 500여 대 훈련기/경전투기를 구매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초대형사업이다. 미국 사업은 100조 원이 넘는 경제 유발효과도 중요하지만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비행하는 미국 하늘에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비행한다는 상징성 또한 클 것이다. 우리 공군과 함께하는 UAE, 이집트, 미국 사업에서 블랙이글스의 마법이 다시 한 번 통하길 기대한다.



2016년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은 KAI에게 제2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 AI(인공지능), BD(빅데이터), 자율/무인 등 첨단기술에 의한 국방안보분야 혁신의 핵심은 6세대 전장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유인 플랫폼 중심의 이전 전장체계로는 천문학적 전비와 주변의 위협 강화에 따라 더 이상 지속 가능하고 압도적인 능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간을 대신하여 AI가 주도하는 6세대 전장체계는 유·무인기, 초연결체계 등 유무인복합체계로 구성되어 지속가능하고 압도적인 전쟁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야말로 빅뱅과 같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KAI는 대한민국의 미래전장체계 구축을 위해 공군과 함께 혁신을 주제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KF-21 기반의 유인전투기와 무인전투기, 소형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초소형위성과 정지궤도 위성 개발을 통해 복합체계의 운영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6세대 복합전장체계의 성공 여부는 공군과의 전략적 협력이 관건이다. 개발요소를 구체화하고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미래전장개념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리드하는 항공우주 산업분야 혁신의 중심에는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교통)과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있다. 두 산업은 하늘과 우주의 대중화를 선도해서 거대 국

가와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하늘과 우주 사용권을 일반 국민들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세계 500여 개 기업들이 개발 중인 UAM은 선박의 느낌과 차량의 뒹뒹을 대신할 플라잉카 개념으로 머지않아 안정적인 운영체계와 수억 원대의 플랫폼이 개발되면 누구나 ‘마이 플라잉카’를 타고 하늘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하늘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로켓 재사용 발사기술과 초소형 위성 개발이 이끄는 뉴 스페이스산업은 우주 공간 사용마저도 대중화시키고 있다. 일레로 스페이스X(스페이스X는 2002년 일론 머스크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이다)의 발사체 재사용 기술은 발사 비용을 급격히 낮추고 있으며 스타쉽의 경우 kg당 발사비용 목표가 10달러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인도 수천 달러 비용으로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즉 우주모빌리티를 타고 서울과 뉴욕 간을 비즈니스 좌석 가격으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전개될 것이다. 초소형위성의 제작비도 수백 억~수십 억 원대로 낮아지고 있고, 수억~수천만 원대의 초소형 위성 개발이 성공되면 소기업이나 일반인도 초소형위성과 값싼 발사비용으로 우주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위성 대중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UAM과 뉴 스페이스가 창출하는 산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연구기관에 따



르면 2040년의 UAM/우주산업 규모는 2,500조~3.5경 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항공산업, 자동차, 조선산업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대한민국이 5%의 역할만 담당해도 1,000조 원의 거대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놓쳐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시장이다.

올해는 안창남 비행사가 1922년 우리나라 상공을 최초로 비행한 지 100주년이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항공기인 부활호 제작 및 첫 비행 7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KAI에게는 제1차 성장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2차 성장을 시작하는 원년이다. KAI는 제4차 산업혁명이 선도하는 항공우주분야의 도약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작년부터 6세대 전투체계, 차세대 기동헬기, 차세대 수송

기, UAM, 초소형위성 및 발사체 기술개발 등 도전적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AI는 이 사업들을 성공시켜 안보적 측면에서 6세대 전장체계 개발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전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UAM과 뉴 스페이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4대 항공우주산업 강국 반열에 오르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대형사업들은 KAI 혼자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긴 주기를 갖고 있고, High Risk가 수반되는 고투자 사업이다. 대한민국 공군이 KAI의 1차 성장과 함께 했듯이 2차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도 공군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대한민국의 하늘길, 우주길이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 전 세계로 펼쳐질 수 있도록 KAI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인공지능(AI) 시대의 리더십



정석환(31기)
제26대 병무청장

요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사관생도와 군 생활, 전역 후 국방부 정책실장과 병무청장으로서의 고위·정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40여 년 동안에도, 그리고 퇴직한지 1년 6개월 여가 지나가는 지금 이순간도 시간은 내 마음과 달리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아마도 최근에 사회의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렵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전환은 매우 오래 걸린 반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난 3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 19 유행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대면활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이 온라인 세계로 빠르게 옮겨가는 데 영향을 주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현실과 달리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가상공간은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나노기술,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적, 디지털, 생물영역이 교류하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혁명보다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고 말하였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여야 한다. 적응하는 개인과 조직 및 국가는 성장하



고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하게 된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을 만들고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이 요구된다. 리더십에는 정답이 없고 관련 이론도 수백 개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병무청의 최대 정책수요자는 MZ 세대이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했다.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청장 재임시 도입 운영했던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한 챗봇(chatbot) ‘아라’이다.

챗봇 ‘아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병무행정 전 분야에 대한 상담과 민원신청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됐다.

챗봇 도입에 대한 최초 구상은 2012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되었으나 AI 기술의 성숙도가 미흡하여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2019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2020년 정부 기관 최초로 챗봇 서비스를 구축했다. 챗봇 ‘아라’는 문자로 대화하듯이 질문을 하면 챗봇이 이를 이해하고 학습된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지능형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인은 24시간 365일 시간과 공간에 제한없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직 당시 정상응답률은 약 95~97% 수준이었고 정상응답률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이용객은 100여만 명을 넘어섰고, 정상응답률 또한 약 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챗 GPT’보다 발전된 시스템으로 발전을 기대해 본다.

둘째는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운영이다.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 의무가 있다. 병역이행은 인생의 경력단절, 학업차질 등 위기로 인식할 수 있다.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에 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2021년 7월 대전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병역진로설계’란 입영 전 자신의 적성, 전공 등을 고려하여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선호도 검사, 병역이행 설명, 병역진로 상담과 전시관 체험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영 전에는 병무청 주관으로 병역진로 설계를 하고 복무 중에는 각 군 주관으로 개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며, 전역 후에는 고용부·보훈부와 협조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단계로 지원하는 개념이다.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춘천, 수원에 위치한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이며 센터가 없는 지역은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는 리버스멘토링(Reverse Mentoring)제도 시행이다.

조직 내·외부의 소통의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벤저스 팀 운영, 토크 콘서트, 힐링 프로그램, 계층별 교류 및 간담회 등도 하였지만 젊은 세대와의 가장 인상적인 소통 방법은 리버스멘토링이었다. 리버스멘토링이란 최신 트렌드와 젊은 세대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세대 간 격차를 좁히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도전적이다. 특히 디지털 혁신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데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서로 단절된 위험이 커지게 된다.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관리자의 경험과 접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수정·보완하는 기회를 가졌다. 무엇보다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MZ 세대의 입을 열어 젊은 생각을 공유하는 조직,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첫 시작이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리더십 역량 개발, 수평적 조직 분위기 구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살아남는 종(種)은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루어 낼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초지능 사회, 모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초산업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현실화 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사람과 사물이 새로운 체험과 경쟁을 하는 초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용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며,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에게 보다 유용



하고 경쟁력 있는 AI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공우주군으로 비약적인 퀀텀점프(Quantum Jump)가 절실한 우리 공군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모습의 창의성이 요구된다. 미래사회에는 전문성이 더욱 깊어지고 분화되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 될 것이다. 앞으로는 AI가 과학적 사고인 논리와 추론 능력, 수학적 사고력 등은 인간보다 앞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타인에게 공감할 줄 아는 인성 역량은 인간의 고유의 것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가치를 조율하고, 개성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시키는 능력이 필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식보다 중요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 미국교육협회(NEA: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21세기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와 문제해결 능력(Problem Solving)’, ‘창의력(Creativity)’, ‘협업(Collaboration)’ 그리고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제시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다수가 이해하는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군과 같은 특수 조직사회에서는 리더와 리더 그룹의 책임감과 실천의지,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하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2022년 2월 작고한 故 이어령 작가는 자신의 유고집에서 “날개는 날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등지 속에서 알을 품고 있는 날개는 날개가 아니라 ‘품개’이다. 우리말 사전에는 없는 이 새로운 말 ‘품개’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2000년대 중반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을 의미하는 ‘디지로그’라는 개념을 창안했던 그가 미래 세대에게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는 화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공군의 축적된 힘과 지혜는 ‘품개’ 속에서 더욱 진한 빛깔로 무르익었고, 이제 등지 밖을 뚫어나와 강하게 단련해 온 날개로 더 큰 세상 밖을 훨훨 날아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항공우주군으로 도약을 위하여!! ➡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을 맞이하며



CPT Jaegyu Song
(30기 송일영 동문 자제)

본 특집 기고문을 쓴 송재규 대위는 30기 창로회 송일영(F-4 전투기 조종사) 동문의 둘째 아들로써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인 지역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을 맞이하여 송재규 미 육군 대위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니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3년 10월 1일, 대한민국과 미국이 맺은 전략적 동맹은 오랜 세월 동안 매우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다. 근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제 협력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된 한미동맹은 양국 간의 정치, 경제 협력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안보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변천사를 돌이켜보는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의 도전 속에서 지속되는 동맹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6.25전쟁(1950~53년)의 포화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은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안보에 대한 공동 가치를 더 확고하게 공유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공식화 되었으며, 그 후로 수년간 활발하게 이뤄진 양국 간의 무역, 기술, 문화, 그리고 교육 협력의 근간이 되었다. 전쟁에서 함께 치른 희생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깨지지 않을 유대를 쌓게 되었으며, 미국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역동적인 현대 사회로 재탄생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군사적 동맹의 성격을 넘어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거듭났다.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관계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동시에 기술혁신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양국 간의 문화교류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한국 가요, 드라마 및 전통예술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다.

양국 간의 안보협력은 한미동맹의 중추이며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는 지역 안보 및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나타낸다. 아울러 양국은 연합연습, 정보공유, 그리고 방위산업기술 협력을 통해 안보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양국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사이버보안, 기후변화, 공중보건 위기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외교, 개발원조 및 국제협력기구 등을 통해 지속되는 협력은 양국이 국제사회 문제해결에 함께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의 돈독함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의 역사적 뿌리부터 다양한 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협력까지로 발전한 한미동맹은 국가간 협업의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정학적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지금 이 순간, 역내·외의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한미동맹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발전해 온 한미동맹을 기념하며 지금까지 함께 이뤄온 성과를 돌이켜 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관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기간 번창했듯이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더 안전하고, 서로 더 긴밀하게 연결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계 동포(디아스포라)들은 현재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입니다. 우리 모국의 위상이 더 커지며 국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층 더 애착과 헌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복무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삶을 바치신 공군사관학교 30기 출신 선배님들께 경의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현재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군의 선후배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t the 70th Anniversary of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of America

Seventy years ago, on October 1, 1953,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ged a strategic alliance that has stood the test of time, evolving into one of the most successful and enduring international partnerships in modern history. This remarkable alliance has not only fostered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ut has also played a pivotal role in shaping the security landscape of the Asia-Pacific region. As we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is alliance, it is essential to reflect upon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ts evolution over the years, and its continuing relevance in the face of evolving global challenges.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alliance emerg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Korean War (1950-1953), a conflict that tested the resolve of both nations and solidified their commitment to shared values of democracy, freedom, and security. The mutual defense treaty signed in 1953 formalized this alliance, laying the foundation for decades of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trade, technology, culture, and education. The sacrifices made by both nations during the war created an unbreakable bond, with the United States playing a crucial role in helping South Korea rebuild and transform into a vibrant, modern society.

Over the past seven decades,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alliance has evolved beyond its military origins to encompass a multifaceted partnership. The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deepened significantly, with South Korea emerging as a major trading partner and a hub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alliance has also facilitated cultural exchanges, with K-pop, Korean dramas, and traditional arts gaining immense popula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cornerstone of the alliance.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significant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underscoring its commitment to regional stability and deterrence. Joint military exercises, intelligence sharing, and defense technology

collaboration have enhanced the security capabilities of both nations. Notably, the alliance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ongoing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alliance coincides with a period of increasing global complexity. As both nations face transnational threats such as cybersecurity, climate change, and global health crises, their alliance has expanded to address these challenges collectively. Collaborative efforts in diplomacy, development ai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ighlight the alliance’s commitment to contributing positively to global issues.

Seventy years of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alliance have demonstrated the enduring strength of the partnership. From its historical roots in the Korean War to its multifaceted collaboration across various sectors, the alliance has evolved into a mod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the world navigates an ever-changing geopolitical landscape, the alliance’s continued relevance in addressing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is evident. As we celebrate this remarkable milestone, it is imperative to recognize the achievements of the past and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shared



values that have cemented this alliance for the next generation. Just as the alliance has flourished over the last 70 years, may it continue to prosper and contribute to a more secure, prosperous, and interconnected world.

Many Korean diaspora, including myself, are working as members of the U.S. Armed Forces stationed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ur homeland prospers and grows stronger, we serve with a great sense of pride and dedication, carrying deep affection and a devoted spirit for our country. I would like to extend my respectful senti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Class of 1982 who dedicated their lives to the development and security of South Korea.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active-duty memb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our senior and junior comrades, who are currently serving. ✈



로제타텍이 무선 화재감지시스템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군을 만들겠습니다



설치용이	경제성	디지털첨단기술	유지관리용이	화재안전 확보
배선공사 없는 간편 시공 최적위치설치	설치비용절감 유지보수비용 저렴	빅데이터 시예측 디지털트윈 비화재보 최소화	원격 점검 상시 감시가능	지능형 속보 기능과 정확한 발화지점 정보 제공으로 골든타임확보 단락으로 인한 미작동 방지

전 품목 KFI 형식승인
미국 특허등록 무선화재감지시스템
국방부 시설본부 신기술 등록
군 소방시설 주요 설치사례



- 공군 20전투 비행단 통합방재시스템
- 2작전 사령부 종합행정실
- 3공병여단 취약시설
- 5공병여단 돌풍 숙소

DAP Global No.1

(Disaster Digital Twin AI Platform)



Digital Twin
AI Platform

Digital Twin
시설
3D 모델링

AIoT Device
화재인자
데이터 수집

Fire Big data
분석(AI)

FDS Fire
Simulation

AI Fire Risk
Index

디지털트윈 AI 솔루션
For Safety & Life

4차산업혁명 기술로 화재사전예방 실현



특집 기획

자랑스러운 발자취,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상

- 54 <성무인이 남긴 발자취를 찾아> 공사 10대 뉴스를 선정하다
- 69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공사인
- 77 생도생활 상징용어
- 84 공군사관학교 모집 및 학사관리 변천사
- 88 <세계 속의 일류사관학교로 도약> 공사의 외국생도 수탁교육 실적과 졸업 후 진출현황
- 97 <19인의 명사들이 공사 생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名士名言

성무인이 남긴 발자취를 찾아

공사 10대 뉴스를 선정하다



주요 언론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특정 기간 발생한 굵직한 사건 사고들 중에서 중요성과 파급력이 큰 순서대로 10대 뉴스를 자체 선정, 공표하고 있다. 10대 뉴스는 독자 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원에게 색다른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 해당 기관이나 단체를 홍보하는 효과와 함께 역사적인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성무 제52호에서는 공군사관학교 개교 이후 74년 역사 속의 주요 이슈들을 동문들이 재인식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특집 기획으로 공사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보았다. 공사 10대 뉴스 선정의 목적은 공군사관학교 발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여 성무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는 모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다수가 공감 및 신뢰를 할 수 있는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군사관학교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제안 및 실증 자료를 협조받았고, 각 기생별로 주요 이슈들을 추천받는 과정을 가졌다. 수집한 이슈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지속적인 검토 및 토론 과정을 거쳤으며, 제30차연도 공사총동창회의 성무지 편집 위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를 6차례 실시하였다. 선정기준은 공군사관학교 발전과 관련한 영향력의 정도, 타기관이나 단체와의 차별화 정도, 자료의 신뢰성 여부, 관심과 재미를 이끌어내는 정도, 대다수 동문들이 공감하는지 여부로 정하였다. 여기서 독자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바라는 것은 공군사관학교 74년 역사를 통시적(通時的) 관점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처럼 장기간 수차례 발생한 사안은 종합하여 단일 이슈화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지난(至難)한 과정 속에 최종 선정된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공군사관학교 개교

공군사관학교 이전

공군사관학교 교훈, 교가, 입학 제정

성무대 명명 및 성무탑 건립

임택순 대위 동상 건립

4년제 이학사 학위 수여 및
전공학과 확대

공사 10 대 뉴스

3군 사관학교 최초
여자사관생도 입학

외국 사관생도 수탁교육 확대

입학 선발 시력기준 완화

생도생활실 환경 획기적 개선

1. 공군사관학교 개교



항공사관학교 창설명령

광복 후 최초의 항공기지는 1948년 5월 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의 조선 경비대 제1여단 사령부 내에서 발족하였으며, 7월 27일에 '항공기지사령부'로 승격되면서 김포비행장 인근의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9월 1일에는 김포비행장 내로 이전하여 미군으로부터 L-4/L-5 연락기를 인수받았다.

1948년 12월 1일부로 항공기지사령부는 「국군 조직법」 발효에 의거하여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고, 1949년 1월 14일에 '육군항공사관학교' 창설이 결정되었다. 3월 15일에는 항공 경력자인 항공병들 가운데 모집한 제1차 소집학생 45명이 입교하여 1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4월 15일에 소위로 임관하였다. 항공사관학교 교사(校舍)는 5월 31일까지 김포비행장 정문 북동쪽 1km의 방화동 방면으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같은 해 4, 5월에 실시한 1, 2차 선발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된 제1기 사관생도(당시 명칭은 사관후보생) 97명이 6월 10일 입교하였다.

참고로 개교기념일은 1972년까지 제1차 소집학생 입교일인 3월 15일로 시행하였으나, 1973년 이후 정규 제1기 사관생도 입교일인 6월 10일을 개교기념일로 시행하고 있다.

‘육군항공사관학교’ 명칭은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군되면서 ‘공군사관학교’로 개칭하게 되었고, 이로써 공군사관학교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영공수호를 책임질 공군의 간성을 길러내는 정규 사관학교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공군 창군 기념촬영(공사 간부와 사관생도)



공군사관학교 본부 현판

본부앞 제1기 사관생도 조회

2. 공군사관학교 이전

공군사관학교는 1950년 6.25전쟁 발발로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첫 배움터인 김포캠퍼스를 떠나 수원·대전·대구·진해로 연이어 남하하였다. 10월 20일 서울이 수복되면서 서울 성남중학교 임시교사로 이동하였으나, 중공군 개입으로 인하여 12월 22일 당시 대구 칠성초등학교 임시교사로 이동한 후 제2기생 1차 시험 합격자도 포함하여 이동하였으며, 12월 31일에 제2기생 150여 명의 입교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안정적인 생도 교육을



위해 1951년 2월 1일 제주 대정초등학교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2월 초에는 피난민 등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하여 제2기 사관생도는 총 171명으로 증가되었다. 제1기생 정비 OJT와 참모업무교육은 2월 17일~4월 21일까지 대구 해서초등학교에 설치한 대구 분교에서 실시하였으며, 제1기생 조종훈련은 4월 10일~7월 1일까지 사천 분교장에서 실시하였다.



서울 성남중학교
(1950.10월)

대구 칠성초등학교
(1950.12월)

제주도 대정초등학교
(1951.12월)

다시금 UN군이 한강방어선에 도달하고 전쟁 장기화 양상을 보이자, 지속적인 사관생도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진해 장천동 지역으로 1951년 5월 1일 이동을 완료하였으며, 제1기생 83명은 7월 10일에 소위로 임관하였다.

진해캠퍼스는 3군 사관학교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호 교류가 용이하여 교육과정 발전에도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이 시기에 공군사관학교 조직의 기본적인 틀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1954년 10월 20일에 제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열렸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영구적인 공군사관학교 교정(校庭)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군본부 신청사 인근 대방동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였다. 서울 캠퍼스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바탕으로 현재의 보라매공원 지역에 1955년 6월 23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58년 12월 12일 이



진해캠퍼스 정문

진해캠퍼스 전경



전을 완료하였고, 12월 19일에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1976년 3월 2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주요 행정기관 지방 이전 정책 계획의 일환으로 공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 검토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10.26사건 등의 혼란 속에서 캠퍼스 이전 추진은 정체 국면을 맞게 되었다가, 1981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이전 지시로 청주공항과 가깝고 인근에 훈련용 활주로를 확보하기 용이한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지역에 1982년 4월부터 학교 시설물 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 12월 21일에 이전을 완료하였다. 청주(청원)캠퍼스는 시설물 구성에 있어서 서울캠퍼스의 기본 틀을 상당 부분 유지하였지만 이후 학교발전 및 캠퍼스 현대화 계획에 따라 라켓볼장, 볼링장, 승마장, 종합경기장, 여자사관생도 복합회관, 쌍수공원, 수중생활 훈련장, 종합각개전투 훈련장, 천문대 등의 새로운 시설물들이 추가로 건축되었다.



1970년대 말 서울캠퍼스 전경



1980년대 초 서울캠퍼스 전경



청주(청원)캠퍼스 전경



청주(청원)캠퍼스 연병장

3. 공군사관학교 교훈 · 교가 · 공사십훈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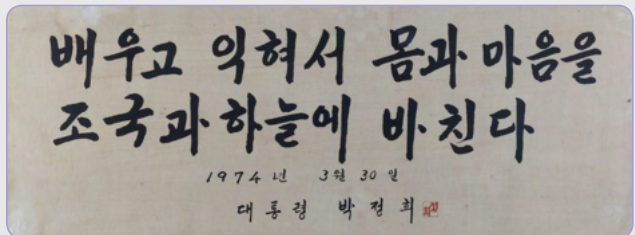
이승만 대통령 휘호 하사

개교 당시에는 교훈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951년에 설정한 교육 목적인 「實質剛健, 忠勇勤儉」과 공사십훈을 교훈으로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은 1954년 3.1절을 맞이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내려준 '무용(武勇)'이 그 시초로 알려졌는데,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당시 '무용(武勇)'이라는 문구는 '무용기'의 기원이 되었으며, 1955년의 제4기생 졸업 당시 창간된 교지의 제목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사관생도들의 모든 생활과 사과의 중심에서 지표 역할을 하는 본교 전통의 모체이며, 훈육의 기반이었다.

이후 1966년 2월에는 공식적인 교훈 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평가관실 주도로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교육목적을 충분히 포괄하는 개념인 '지(智)·덕(德)·용(勇)'을 3월 25일에 선정하였다. 3월 29일에는 교훈의 제정 경위를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였으며, 4월 11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를 하사 받았다. 10월 4일에는 교훈해설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외부 인사 감수를 받아서 11월 16일에 교훈으로 확정하였다.

1968년 12월 20일에 거행된 생도 회관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글 휘호인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를 하사하였다.



1970년 2월 10일에는 정부의 한글 전용화 정책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휘호로 교훈을 변경하고 공식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한글 교훈은 현재까지 40년 이상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학교 본부 현관, 안중근 홀 전면 등 주요 건물과 생도 생활 지역 곳곳에 명시되어 있다.

공사교가는 교육의 정신과 이념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도록 1951년 봄에 제정되었는데, 당

시는 6.25전쟁 중이라서 군가가 비교적 많이 보급되지 않은 시기이었기 때문에 교가 제정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교가의 가사는 제3대 교장 최용덕 장군이 직접 만들었으며, 작곡은 당대 최고 작곡가로서 공군본부 정훈음악대장 김성태 씨가 맡았다.



공사십훈은 1951년에 사관학교가 진해로 이동한 직후에 당시 교장 최용덕 장군의 지시로 부교장 김득룡 중령이 전문을 구성하고, 교수부 한학자 이흥기 문관교수가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공사십훈은 사관생도의 행동강령과 실천덕목을 조화롭게 설정한 것으로 공군사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적과 이념이 잘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6년 3월 30일에는 사관생도들이 공사십훈을 생활좌표로 설정하여 실천하라는 취지에서 공사십훈탑을 건립하였다.

4. 성무대 명명 및 성무탑 건립

1966년 4월 1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제4기 사관 임관 10주년을 기념하여 공군사관학교를 '성무대(星武臺)'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별 성(星)은 하늘의 지도자를 상징하고 군셀 무(武)는 무예를 단련한다는 뜻이다. 결국 성무대는 공군사관학교의 교육목표인 지·덕·용을 겸비한 우수한 하늘의 지휘관을 길러내는 곳이라는 의미이니 공군사관학교의 별칭으로 딱 어울린다고 하겠다.

성무탑은 성무대 명명을 기념하여 1966년 12월 20일에 제15~18기 생도들의 졸업사업으로 건립되었으며 생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추진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성무탑은 당시 한국 최고의 추상(抽象) 철 조각가인 송영수 화백이 제작한 것으로 대붕(大鵬)의 용지를 품은 공군사관학교의 대표 상징물이자 사관생도 선후배간의 끈끈한 유대를 기리는 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졸업 후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자 하는 사관생도들의 높은 뜻을 잘 상징하고 있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등근 구를 떠받치고 있는 3가닥의 나래는 공군의 특성, 그리고 젊음과 사명이 융합된 사관생도의 위상을 형상화한 것이며, 하얀 몸체는 세계로 향하는 공군사관생도들의 이상과 염원 및 단결을 뜻하고 있고, 찌를 듯이 솟아난 14개의 향(침봉)은 전국 14개 도에서 모인 젊은 공사생도들이 하늘에 대한 동경과 이상을 강렬하게 펼쳐 나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하사 성무대 휘호

서울캠퍼스 성무탑

청주(청원)캠퍼스 추가 건립 성무탑

성무탑은 1966년 12월 20일에 공군군사재로 등록되었으며, 사관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현재의 청주(청원)캠퍼스에는 1.2배 크기(33m)의 성무탑을 1986년 3월 30일에 추가로 건립하였다.

5. 임택순 대위 동상 건립

임택순 대위는 공사 1기생이며 제10전투비행단 F-51D 전투기 조종사로서, 1953년 3월 6일에 6·25전쟁 중인 동부전선 고성지구 전투(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에서 적 대공포탄에 피격되었으나,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애기와 함께 대공포 진지에 돌진하여 장렬히 전사하였다. 1960년 3월 19일, 6.25전쟁 참전 공사출신 첫 번째 전사 조종사인 고 임택순 대위의 숭고한 군인정신을 기리고자 연병장 서편에 동상을 건립 제막하였다.

임택순 대위 동상은 제8기생 기금으로 건립되었으며, 서울 대방동 공군사관학교에 세워진 최초의 기념물이기도하다. 건립 이후 1985년까지 사관생도들은 주 1회 학과 출장 행진 시에 동상을 향해 '좌로 봐'로 경의를 표하였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에 살고 하늘에 죽는 진정한 조인(鳥人)의 길을 후배들에게 말없이 웅변하고 있다.



1960년 서울캠퍼스에서
거행된 동상제막식

1985년 청주(청원)캠퍼스
공군박물관 옆에 재 건립

2006년 청주(청원)캠퍼스
추모공원으로 이동 설치

임택순 대위 동상은 공군사관학교가 현재의 청주(청원)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1986년 3월 8일에 제1~33기 졸업생의 성금으로 제작한 청동주물 동상을 현 공군 박물관 좌측에 재건립하였다. 2006년 12월 5일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추모 공원을 확장하였으며, 2010년 6월 9일에 국가 현충 시설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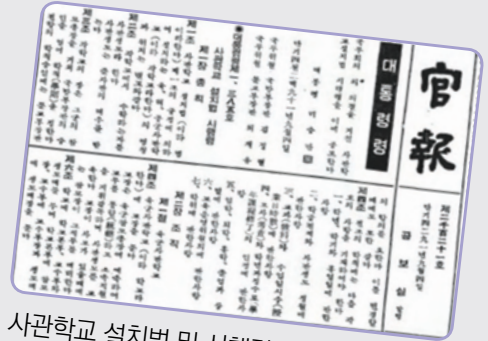
6. 4년제 이학사 학위 수여 및 전공학과 확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초, 당시 공군수뇌부는 대한민국공군 『3개년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공군사관학교를 사관생도 양성기관으로 한정하면서 200명의 선발 인원과 4년제의 교육 기간을 명시하였다.

1952년 여름에 제4기생부터 10개월을 1개 학년으로 하는 4년제의 교육 기간을 적용하였으며, 12개월을 1년으로 하는 4년제 교육과정은 제6기생부터 적용하였다. 4년 학제는 3년의

학교 교육과 1년의 특기 교육으로 구성하여, 입교 후 3년 동안은 6개 학기로 나누어 인문과학, 자연과학, 항공공학, 군사학 및 군사훈련 등을 이수하였고, 1년 동안은 특기교육으로 비행, 정비, 통신, 기상 교육 등을 이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관학교 교육과정을 군사학 및 일반학으로 구분하고, 이학사 학위를 수여 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374호)은 1955년 10월 1일에 공포되었으며, 필수 교과과목, 학기, 연간 210일의 최소 교육 일수를 명시한 시행령은 1958년 9월 4일에 제정되었다.



사관학교 설치법 및 시행령 제정을 전한 관보

최초의 이학사(국방관리학) 학위는 1956년 4월 10일 제4기 생 졸업 및 임관식 행사에서 수여하였다. 또한 휴전 이후에 다수의 교수진이 전역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육의 연속성 및 인재 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57년부터 민간대학 학사 편입제도를 시행하였다. 1963년에는 “선택형 교과과정”을 도입하여, 3개 공학 분야(기계, 전자, 항공)를 개설하였고, 학위는 1972년 제13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여하게 되었다.

1983년 제35기부터는 이학사 전공(전산과학)과 공학사 전공(기계, 전자, 항공,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외에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외국어학, 경영학, 국제 관계학)도 운영하여 문학사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학위교육은 교양 과정과 전공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교양과정은 공통 과정과 문·이·공과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동일계열 이수과목과 타 계열 이수과목으로 분류하였다.

제69기 사관생도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일반학 전공 과정은 문과계열(국제관계학, 국방경영학, 항공우주정책학), 이과계열(컴퓨터과학), 공과계열(우주 공학,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자통신공학, 시스템공학)으로 2학년 2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생도들은 졸업 시에 兩학사를 수여받는데, 일반학 전공에 따라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를 수여받으며 동시에 군사학 전공에 따라 군사학 학위도 수여 받는다.

7. 3군 사관학교 최초 여자사관생도 입학



최초 여자사관생도 제49기 입교식

제49기 졸업식

여군조종사 탄생

1990년, 공군사관학교 자체적으로 작성한 『학교 30년 장기발전계획』에서 여자사관생도의 선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1995년에는 모집 정원의 10% 이내로 여자사관생도를 선발하겠다는 추진안을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국방부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유보를 결정하였지만, 재차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자 최종 승인하였으며 마침내 1997년 2월 22일, 3군 사관학교 중에서 최초로 공사 제49기 여자사관생도 19명이 입교하였다.

여자사관생도의 교육은 교양과목으로 ‘여성학’을 신설하고, 체육학의 일부 종목은 여생도반만 별도로 운영하였는데, 구기의 경우에는 럭비 대신 소프트볼로, 기계체조의 경우에는 철봉과 평행봉 대신 스트레칭과 에어로빅으로 대신하였다. 군사훈련의 경우에는 군장 무게 감축, 훈련코스 조정, 훈련강도 조정 등을 적용하였으나, 훈련 종목은 남자사관생도와 동일하게 운영하였다.

공사 제49기 여자사관생도는 최종적으로 18명이 2001년 3월 20일에 졸업 및 임관을 하였으며, 이후 매년 10~23명의 여자사관생도가 입교하여 10~19명이 졸업 및 임관하고 있다. 여군 조종사는 2002년 9월 26일에 최초로 전투기 조종사 3명, 수송기 조종사 2명을 배출하였고, 현재까지 100여 명의 여군 조종사가 양성되었으며, 2022년에는 3명의 대령 진급자가 선발되었다.

8. 외국 사관생도 수탁교육 확대

외국 사관생도 수탁교육은 생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장차 21세기 국방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국가 간 효과적인 군사외교 및 유대강화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수탁교육 대상국 국기

수탁교육 중인 외국 사관생도

수탁생 졸업

최초의 외국 사관생도 수탁은 1991년에 태국 측이 요청하여, 1992년 국방부 승인을 거쳐, 1994년에 1명의 사관생도가 입교하였다. 수탁 생도는 본교에서 4년 정규과정 및 2년 편입 과정으로 한국 생도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현재는 수탁교육 대상국을 태국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튀르키예, 몽골, 베트남, 알제리, 페루, 파라과이,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미국(단기)으로 확대하였다. 2022년까지 정규(1~4학년)과정 58명과 1년 단기(3학년)과정 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는 24명의 재학생이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9. 입학 선발 시력기준 완화

1980년대 말의 민주화 흐름 속에서 사관학교 선호도 감소로 인하여 지원율이 하락한 데다 대부분의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은 시력 저하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이들 학생들은 공사의 까다로운 시력검사에서 다수가 불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신체검사 탈락자 중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



안경을 착용한 선발시험 응시자

에게 ‘정책자원’이라는 전형으로 정원의 5% 이내를 할애하여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제46기부터는 정원의 20%로 확대하였다.



안경 착용상태로
공중임무중인 조종사

입학 선발 시력기준에 있어서도 제2기~48기는 나안 1.0의 시력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제49기부터는 교정이 불필요한 최소 시력인 나안시력 0.8로 완화하였고, 제58기 선발부터는 생도선발 시력 기준을 0.5로 낮추었다. 또한, 제66기 선발부터는 안정성이 입증된 시력 교정술인 라식(LASIK) 수술도 허용하였다.

2014학년도에는 1차 시험을 통과한 나안 시력 0.5 미만의 저시력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 신체검사에서 근시교정술 및 라식수술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조종 분야인 일반전

형으로 합격시켰다. 이러한 시력 기준 완화에 따라 우수자원 선발이 증가하였으며, 제66기 경우에는 기수의 70~80% 인원이 안경을 착용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자원 선발 제도는 그 취지가 무색해졌고, 임관 후 활용도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제68기 때는 10%로 축소하였고, 제69기부터는 완전히 사라졌다.

현행 모집 요강에 명시된 시력 기준에 의하면 나안시력 0.4이하인 경우도 조종 분야 지원이 가능하되 굴절교정술 조건부 합격 기준을 만족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조건부로 합격한 자는 공군사관학교 입학 후 비행훈련 입과 전에 굴절교정술을 본인 비용으로 시행해야 한다.

10. 생도생활실 환경 획기적 개선

2009년 공군사관학교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밖에서 보면 그게 무슨 대수냐 하고 실소(失笑)할 수도 있겠지만 선배 성무인들 입장에서 보면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일이었다. 거의 수도자와 같은 절제와 긴장의 상징이던 생도생활관의 각 생활실마다 냉장고가 비치되고, 간단하지만 외부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대한민국의 경제력,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생활 수준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당시 학교 지휘부 입장에서는 70여 년 공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 선정위원들도 냉장고 비치와 외부 음식물 취식 허용 정책이 갖는 긍정적 생도문화의 새로운 형성에 주목하면서 만장일치로 10대 뉴스로 선정하였다.

이제 사관생도들은 생활실 내에서도 냉장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간단한 음식물 취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부 취식물은 BX 구매품, 배달 음식물까지도 포함하며, 배달 음식물의 경우에는 지정된 시간에 신청한 생도 본인이 정문에서 직접 수령하고 있다.

위생관리를 위하여 부패할 수 있는 음식물은 당일 취식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지정 장소에 분리배출하고 매일 아침점호 후에 생도식당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배달 음식물에 대한 신청 관리는 당직총사령생도가 신청현황을 종합하며, 당직사관생도가 정문에서 감독하고 있다. 14년 전 높아진 국격과 생활 수준에 발맞추어 사관생도들의 복지 증진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 학교 당국의 조치가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생도생활관 전경



생도생활실 내부



생도생활실 냉장고

10대 뉴스 선정 후기

10대 뉴스 선정 방법은 ① 담당 작성자의 주관적 선정, ② 선정위원회의 토의, 분석, 투표를 통한 선정, ③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 투표(모바일, 인터넷 등) 등이 있다. 이번 성무 제52호의 공사 10대 뉴스 선정 방법은 흥미 유도, 자긍심 고취, 학교 발전 역사 재인식에 초점을 두고, 다수의 언론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정위원회 운영 절차를 준용하였다. 선정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 본부가 추천한 35개 이슈, 각 기수 별로 추천된 85개 이슈, 이외 개별 추천된 15개 이슈를 수집하였으며 6차례의 선정위원회 및 온라인 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시로 사전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① 사관학교 발전역사에 미친 영향력, ② 역사 자료로서의 신뢰성, ③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차별성, ④ 동문 누구나 공감 가능한 객관성, ⑤ 관심과 재미를 유발하는 흥미성을 설정하였다.

제1, 2차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 과정에 대한 토의, 제3차에서는 중요도 및 객관성을 우선하여 47개 이슈로 1차 분류, 제4차에서는 25개 이슈로 2차 재분류하였다. 제5차 선정위원회에서는 위의 선정 기준별 배점을 적용한 투표를 하였으며, 제6차에서는 투표 집계된 이슈에 대한 재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공사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이번 성무 제52호에 선정된 10대 뉴스는 74년의 긴 역사 기간을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 추천된 많은 이슈 중에서 아쉽게도 선정 기준에 의하여 탈락될 수밖에 없었던 이슈들이 있었다. 일부 선정위원들이 열띤 토의를 거듭하였으나 현재는 폐지, 소멸 되었거나 뉴스로서의 독창성 미흡, 연례적 행사, 교육훈련과 같이 他 사관학교와 공통되는 내용,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악성 사건, 사고 등은 부득이 제외하였다. 마지막까지 경합하다가 아깝게 비선 된 이슈로는 A 관악산 돌파훈련, B 메추리 강화훈련, C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D 역사 상징물 및 기념비(총11개), E 해외항법 관속훈련 등이 있었다.

이번 성무 제52호에서는 공군사관학교 74년 역사를 대상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하였지만, 앞으로 다양한 시기와 관점, 분야별 10대 뉴스를 성무지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 공사 70년사(2019.11.3. 공군사관학교)
- 공군사관학교 계획처 제공 자료
- 공군/공군사관학교/공사총동창회/공군박물관 Internet Site
- Naver 지식백과, 나무위키, Wikipedia 등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공사인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건국 후 북한 공산집단의 적화 위협에 따른 전쟁 가능성이 짙어가던 1949년 1월 전신(前身)인 항공사관학교로 개교한 이래 제 1기생 97명이 같은 해 6월 10일 입교하고 다음에 공군사관학교로 정식 개칭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정규사관 양성기관으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1970년 제정) 아래 호국간성의 요람으로서 지금까지 1만여 명에 달하는 정예 보라매를 배출하여 조국 영공수호와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하였고 어느덧 7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쌓아 올리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일류 군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2년 말부터 정전 시까지 1기생 33명이 전투 조종사로 참전하였고, 이들은 F-51D 무스탕을 몰고 용감히 싸워 351고지전투 항공 지원 작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전에서



〈故 임택순 대위 동상〉



〈351고지전투 항공지원 작전〉



〈故 김현일 대위〉



〈故 고광수 대위〉



〈 걸프전 참전 출정식 〉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공사출신 최초 전사자인 故 임택순 대위(1930~ 1953.3)와 마지막 전사자인 故 고광수 대위(1929~ 1953.7), 그리고 故 김현일 대위(1928~1953.6) 등 3명은 호국의 별이 되었다.

1953년 7월, 6.25전쟁이 정전상태로 끝나면서 참여한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우리 성무인들은 전투비행단과 방공관제부대, 방공포병부대 등 최일선 작전부대에서 공중은 물론, 지·해상으로 은밀히 침투하는 무장간첩들을 소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베트남전, 걸프전 등 각종 해외작전에도 참가하여 우리 공군의 우수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최근에는 장거리 중 대형 수송기를 이용한 해외파병, 재난 재해 구호 및 물자 수송, 해외 교민 철수작전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대한민국과 공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성무인들의 자랑스러운 족적은 우리 공군사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이념과 목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등 5대 무공훈장을 수훈한 성무인들이 2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1명	7명	49명	72명	72명

〈 공사 동문 무공훈장 수훈자 〉

또한, 1960년부터 시작된 조종사 최고의 영예인 「Top-Gun」 선발에서 5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음은 물론, 군문을 떠난 다수의 동문들은 장·차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공기업 CEO, 학계, 경제계,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요직에 진출하여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사 총동창회에서는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국가와 군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자랑스러운 공사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보안성 등의 사유로 모교를 빛낸 무공훈장 수훈자들을 비롯하여 탑건 수상자 등 수많은 동문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밝힐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총동창회에서 선정한 역대 『자랑스러운 공사인』을 소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김인기 대위, 최초의 탑건〉

2005년도



4기 홍재학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부이사장

-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공헌
- 인공위성 아리랑 제1호 개발 공헌

2008년도



20기 이재명

전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최초 국산개발 훈련지원기 KT-1/O-1 개발 공헌
- 최초 군용기 감항 인증 체계 구축

2010년도



2기 이곤

현 한국서학회 명예회장

- 한글 서예작가(한국 서학회 이사장 20년 역임)로서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 전파에 선구적 역할

2010년도



19기 김구섭

현 안보경영연구소 이사

- 한국국방연구원(20년)으로서 국방정책 연구로 국가안보에 기여
- 제10대 국방연구원장으로서 3군의 균형적 발전과 합동성 강화 연구에 기여

2011년도



10기 강위훈

전 국과연 항공사업 본부장

- ADD에서 KT-1 계획 및 선행개발 연구 기여
-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서 동북아 교류협력 증진 및 발전

2012년도



7기 광영달

전 14대 국회의원

- 제14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안보 및 공군발전에 기여

2012년도



17기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 순직 조종사 추모비 건립 공헌
- 국방개혁대책위원으로서 국방개혁추진 성과

2012년도



17기 이문호

전 공군전우회 사무총장

- 순직 조종사 추모비 건립 공헌
- 국방개혁대책위원으로서 국방개혁추진 성과

2013년도



38기 故 오충현

공군 대령, 제18전비단 105전투비행대대장

- 순직 후 우국충정이 담긴 생전일기가 공개되며, 열사봉공과 희생정신의 참 군인으로서 귀감이 됨

2014년도



18기 전영훈

현 골든이글공학연구소 소장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서 T-50, A-50 개발 공헌

2016년도



25기 류홍규

전 사랑의 밥차 대표

- 장애우, 노약자를 위한 국내외 봉사과 헌신적인 삶을 실천 (봉사기간 8,025시간)

2016년도



47기 김진웅

공군 중령, 공본 기참부 KF-X사업팀

- 일본 방위대학교 최초 석.박사 과정에서 연속 2회 최고 연구자상 수상

2019년도



30기 심인태

현 미주 공사동문회 서부지회장

- 미주 공사동문회 서부지회장(06년~현재)으로서 동문들의 단합과 동문회 발전에 기여
- 교포사회에서 안보 단체행사 주관으로 안보의식 고취

2020년도



1기 이희근

전 공군참모총장

- 한국전쟁 당시 89회 출격
- 제15대 참모총장 재직 시 1차 율곡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공군 전력증강에 이바지

2020년도



27기 최동환

현 (주)선진건설 회장

- 공사 발전기금 1억 7천만원 후원, 모교 발전에 기여

2020년도



56기 김기천

공군 소령, 공군 항공의료원 항공의무과장

-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시 대구기지 파견 역학조사 임무 수행
- 대구기지 감염병 확산 차단 기여

2021년도



5기 이재우

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상임 석좌교수

- 한국전산원 초대 부원장, 한국 정보보호진흥원 초대 원장 역임
- 세계 정보보호 전문가 TOP10 선임
-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주춧돌 역할

2021년도



14기 박종선

현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겸임교수

- 대학교 산업경영 공학분야 후진 양성
- 공군 KTX-2 개발에 공헌

2022년도



30기 이용곤

전 한라일보 사장

- 군 출신 최초 신문언론사(한라일보) 대표이사직 수행
- 공사 발전기금(2억),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금(1억) 유치 공로

2022년도



32기 정광선

전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 단장

- 공군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기여
- 공군 KF-21 개발에 공헌

2022년도



54기 안준현

공군 소령, 52전대 작전계획과 표준화평가담당

- 탁월한 기량의 시험비행조종사로서 KF-21 시제기 최초 비행임무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





이 글은 성무인 상호 간에 추억을 반추하고 친목 도모 및 공동체 의식 증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생도 생활을 통해 많이 사용하고 마음속에 각인되었던 대표적인 용어들을 각 기생별로 선정한 후 기수별 10년 단위로 그룹화하고, 분야별로 분류/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

우리들 영혼의 기지... 성무대 !!!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차고 때로는 감동과 아픈 추억이 공존하는 곳 !!!









이곳 성무대를 거쳐간 성무인들에게 차츰 잊혀져가고 있는 생도생활 상징용어도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를 간략히 보면, 생도생활 근간을 이루는 명예, 공사십훈, 점호, 메추리, 자율, 복종 등의 용어는 동일하게 꾸준히 사용되는 반면, 「내무생활/지역·건물/식 문화 분야」는 사회의 빠른 변화와 세대 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고, 학교 이전(서울 대방동 → 청주)에 따른 상징용어의 변화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행사/교육·훈련」 분야에서는 국방정책, 교육환경이 바뀔에 따라 강한 전투적 이미지의 용어가 다소 순화된 용어로 변화됨은 물론, 국내 중심에서 해외로 확대되는 글로벌 행사/훈련 용어가 상당수 선정되고 있는 가운데, 「얼차려(군기) 분야」에서는 선배 기수에서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50기 이후 후배 기수로 갈수록 이 분야 상징용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비중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기 이전 

<p>내무생활</p>	<p>점호(일조/일석/귀영점호), 메추리 기본 군사훈련, 5분 목욕, 직각식사/직각보행, 총기/군화 수입, 연등, 불침번, 완전군장, 명예, 복종, 지도근무선배, 감점카드, 다와시 청소, 보행연습</p>	
<p>체육/훈련</p>	<p>기계체조, 송정 해양훈련, 천안 장거리항법, 용문산 행군, 무용기 쟁탈전, 관악산 돌파, 각개전투, 타이거트레이닝</p>	 
<p>행사</p>	<p>삼사체전, 보라매 향연, 연말 쌍쌍파티</p>	
<p>식문화</p>	<p>삼립빵, 신앙촌 카스테라</p>	
<p>교수부</p>	<p>중간/기말고사, 과락, 졸 생도(수업시간에 조는 생도)</p>	
<p>얼차려(군기)</p>	 	<p>군기사령/군기사관, 오리걸음, 선착순, 토끼똥, 포복, 카키반스 입고 옥상집합, 눈감고 배에 힘줘 (주먹 뺨, 약질 선배)</p>
<p>건물/지역</p>	<p>진해 기지, 임택순 동상, 성무대 언덕</p> 	
<p>기타</p>	<p>신발 찾는 메추리, 청모 자매결연(유명부인과 생도간 자모결연)</p>	

20기 ~ 29기


<p>내무생활</p>	<p>공사 심훈, 메추리강화훈련, 복종/모범/자율/지도, 내무검사, 금족, 감점카드, 명예, 관광내무반, 연등, 관등성명, 워킹, 점호</p> 
<p>체육/훈련</p>	<p>관악산 돌파, 무용기 쟁탈전, 100km 야영 행군훈련, 무용구보, 하계 해양훈련, 1공수 유격공수 훈련</p> 
<p>행사</p>	<p>국군의 날 시가행진, 삼사체전, 성무제, 망토 착복식, 장행회, 생도의식(열병/분열)</p> 
<p>식문화</p>	<p>떡 파티, 삼립빵, 식빵, 농심라면, 각1계3 회식, 독일빵집, 옛네(외출 시 단골 카페/종로)</p>
<p>교수부</p>	<p>학과장 행진, 과락, 민영복 교수님</p> 
<p>얼차려(군기)</p>	<p>군기서관, 선착순, 시네마스코프, 벌칙보행(예복입고 점호장 워킹), 알철모, 원산폭격, 절차탁마</p> 
<p>건물/지역</p>	<p>조국에 충성을, 성무대 언덕, 제2연병장, 새마을 연병장, 4병동, 임택순 동상, 전대 점호장, 신념의 조인</p>
<p>기타</p>	<p>주기, 비상금, 솔방울 따기, 잔디 떼오기 (외출 시 007 Bag으로 잔디 운반), 잡초사역, 옥만호 미팅, 말이 필요없다, 본생도 실망했다</p>  <p>< 주기도장 ></p>

30기 ~ 39기


<p>내무생활</p>		<p>내무검사, 공사심훈, 점호, 관물주기, 불침번, 연등, 감점카드, 기상 5분전, 명예, 관광내무반, 열중/열외, 금족, 수양록, 메추리/메추락지, 관등성명, 미귀영, 패기/신념/정열/극복 00기 야</p>
<p>체육/훈련</p>	<p>무장/무용구보, 무용기 쟁탈전, 관악산 행군, 오봉산 유격훈련, 공수훈련, 주문진 해양훈련, 수영 돌반(D반)</p>	
<p>행사</p>		<p>삼사체전, 성무제, 국군의 날 시가행진, 망토 착복식, 열병/분열, 장행회</p> 
<p>식문화</p>	<p>각1계3/각1계5 회식, 회식대형, 명보제과, 독일빵집, 메추리 빵, 곰보빵, 안양 딸기밭(첫 외출 시 가던 곳), 옛네(외출 시 단골 카페/종로)</p>	
<p>교수부</p>	<p>교반집합/교반행진, 재시험, 과락, 잠생도/잠모총장, 썸머리, 썸머 스쿨</p>	
<p>일차려(군기)</p>	<p>오리걸음, 토끼 똘, 카키반스 입고 옥상집합, 벌칙보행, 금족, L-19, 원산폭격, 깍지끼고 엎드려 뽀쳐, 한강철교, 시네마스콥</p>	
<p>건물/지역</p>	<p>조국에 충성을(심야 단체기합 받던 곳), 새마을 연병장, 시베리아 병동, 성무대 언덕, 성무탑, 임택순 동상</p>	
<p>기타</p>	<p>휘양새, 개나리 강제 개화(졸업식 직전 비닐씹우기, 라이트 설치), 팔순이, 잔디 떼오기, 본생도... 귀관, 봉공소 아주머니, 생도식당 이쁜이 아줌마</p>	

40기 ~ 49기

<p>내무생활</p>	<p>휴대전화, 기상 5분전, 공사십훈, 수양록, 자율, 직각보행/직각식사, 속옷 주기, 복종, 메추리 천하, 명예, 금족, 점호, 불침번, 벌점카드, 각잡기, 독수리, 패기/신념/정열/극복 00기 야</p>	
<p>체육/훈련</p>	 	<p>공수훈련, 메추리 강화훈련, 무용구보, 해양훈련, 무용기 쟁탈전, 성무봉 돌파, 수영 강화훈련, 수영돌반(D반)</p>
<p>행사</p>	<p>삼사체전, 성무제, 국군의 날 시가행진, 가남리 퍼레이드 훈련, 메추리 비행단 견학, 망토 착복식</p>	
<p>식문화</p>		<p>맘모스빵, 쌀 햄버거, 새참 라면, 커피 자판기, 청주 백로식당/송학식당, 털보네 만두우동</p>
<p>교수부</p>	<p>학과출장, 과락, 재시험, 계절학기, 학사경고, 상담교수님, 도서관, 베르누이</p>	
<p>얼차려(군기)</p>	<p>공포의 가족장갑, 원산폭격, 벌칙보행, 선착순, 카키반스 입고 옥상집합</p>	
<p>건물/지역</p>	<p>전대점호장, 단결탑, 성무봉, 본/별/동/서관, 쪽길, 명예광장, 성무탑, 하늘/성무/호수공원, 공수훈련장, 충북체육관(귀영버스 타는 곳)</p>	
<p>기타</p>	<p>미스터 공사, 여생도 입교, 배불뚝이 이발사, 불의 전차(8중대장차), 외출 전세버스, 7.17사태, 중대 어머니(종교센터 중대별 권사님), 파리넬리(퍼레이드 시 군가부대 애칭)</p>	

50기 ~ 59기 

<p>생도생활</p>	<p>공사십훈, 명예, 사복외출(랜드로바 허용), 금족, 메추리 천하, 생도규정 개정(음주 단서조항 삭제), 금요일 외출 전면시행, 대표생도 해단, 마지막 메강(메추리 강화 훈련 폐지), 마지막 불침번, 자율</p>	
<p>체육/훈련</p>	<p>성무철인(철인3종 경기), 산악구보, 이글트레이닝, 유격훈련, 공수훈련, 기인동체, 물공수(공수훈련 3주 중 2주간 비 내림)</p>	
<p>행사</p>		<p>성무제, 삼사 친선체육대회(삼사체전 폐지), 국군의 날 시가행진, 중대별 해외여행, 국내항법(제주/울릉/독도), 해외항법, 망토착복식</p>
<p>식문화</p>	<p>메추리빵, 떡갈비, 하늘관 주머니빵(하늘관에서 파는 고로케 빵), 보신탕(하계군사훈련 전), 우유배달, 띠아모(교수부 1층 카페), 음메꿀꿀(정문 앞 식당), 아메리카나(청주터미널 패스트푸드점), 자갈치 꼼장어, 서문 해장국</p>	
<p>교수부</p>		<p>EOZ(English Only Zone), 토익, 학교(학사경고), 노브레인(체육교관)</p>
<p>건물/지역</p>	<p>독수리 탑, 하늘관, 2구장, 하늘공원, 에이스센터, 명예광장(빨간색 부분 출입금지), 인조잔디구장, 우주관, 깔딱 고개, 비전센터, 가구사역</p>	
<p>기타</p>	<p>CC(카펫 커플), 1학년 휴대폰 사용, 오창작전(삼사체전 전패(全패) 후 전원 오창부터 학교까지 행군 복귀계획), 신종플루, 태안기름유출 봉사활동, 로봇베틀, 싸이, 인순이, 윤도현 밴드, 브아걸, 원더걸스, 빅뱅, 소녀시대</p>	

60기 이후 

<p>생도생활</p>		<p>생도자치활동, 공사십훈, 자율, 명예, 메추리 천하, 내무반 냉장고 설치, 코로나 금족, 잃어버린 2년(코로나), 방문 앞 점호(코로나로 허용), 금요일 외출, 메추리 프리존(별관2층, 가입교 시 소등 후 담화 허용), 비대면 졸업(졸업식 시 부모님 불참)</p>
<p>체육/훈련</p>	<p>해외 항법훈련, 무용기 대회, 관속비행, 성무철인(철인3종 경기), 스페이스 첼린지, 하계 군사훈련, 행군, 페러글라이딩, 대전해양훈련, 공수구보, PARE(학교내 KT-100 시뮬레이터)</p>	
<p>행사</p>	<p>생도의식(열병/분열), 해외봉사활동, 삼사 친선체육대회, 성무제, 방송제, 삼군 통합훈련, 국토순례, 삼사 통합교육, 해외 한민족 역사탐방, 망토 착복식</p>	
<p>식문화</p>	<p>송어회, 파리바게뜨, 띠아모 커피, 왕천파닭(단골 배달식당), 박준양 스시(단골 배달식당), 가경동 자갈치, 육쌘 냉면, 가경김천(귀영 시 김밥 포장하던 식당)</p>	
<p>교수부</p>		<p>학교(학사경고), 학과출장, 토익, 동계 영어집중교육, 독서토론, 중간고사 폐지(71기부터)</p>
<p>건물/지역</p>	<p>성무봉, 안중근홀, 하늘공원, 명예광장, 가제트병원(생도들이 아플 때 이용하던 병원)</p>	
<p>기타</p>	<p>신종플루, PCR, 성무돔(목요일 무용구보 직전 비 그침), 엄반누(모든 동기가 찬성할 때 혼자 반대한 한명의 동기 별명), 제대맞(제대열오 맞추기 은어), PKR수술(시력교정수술), 성무냥(학교 길거리 고양이)</p>	



공군사관학교 모집 및 학사관리 변천사

1949년 1월 14일 공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육군항공사관학교가 설치되어 같은 해 6월 10일 총 97명의 제1기 사관생도(당시 명칭은 사관후보생)가 입교하였다.

1기 사관생도의 교과과정은 2년제로 운영되었는데, 기초학문이 포함된 일반 교양학, 항공 분야 실무와 관련된 기술학, 그리고 군사 이론과 실무를 혼합한 군사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군사훈련도 병행 운영하였다.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군되면서 공군사관학교로 개칭되고 동시에 각종 장교 후보생들이 잇달아 입교하면서 제2기 모집은 일단 미루어졌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12월 31일에 145명이, 이후에 26명이 추가로 입교하였다. 전시 상황에서는 최단 시간 내에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장교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으므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당시 공군 수뇌부는 전쟁 중에도 공군력 건설을 위한 자구책을 구상하여 1952년 4월 1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미국에 매년 100대씩 제트전투기를 포함한 총 300대의 전투기 원조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군은 그렇게 도입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조종사를 총 9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양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연평균 200명의 사관생도(3년 내지 4년 과정)를 졸업시키도록 규정하고 제3기~제5기 사관생도로 133명~199명을 선발하였다.

3기 사관생도들은 군사학과 이공학 계열의 과목을 주로 이수하도록 하는 3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4기 사관생도부터는 3년의 학교 교육과 1년의 특기 교육으로 구성된 4년제 학제를 운영하였다. 또한 조종 인력 대량 확보를 위해서 사관생도뿐 아니라 소집학생과 하사관(현 부사관), 항공병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종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제6기~제8기는 선발인원을 105명~117명으로 축소하였고, 1955년 10월 '사관학교 설치법'이 공포되어 1956년 진행된 4기 사관생도의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최초로 소위 임명장과 동시에 이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1957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복무연한을 채운 장교가 대거 전역하고 생도선발 정원도 100명 이하로 제한을 받아 제9기~제18기는 70명~93명을 선발하였다. 6.25전쟁을 통해 제트전투기의 중요성을 절감한 공군은 전력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제트기 운용을 위해서는 첨단 항공기 운용 교육을 이수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항공공학 등 이·공학에 대한 이해력이 요구되었다. 기존의 단기 교육 과정으로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쟁 중에 조종사 대량 양성을 위해 운영했던 소집학생제도는 1960년에, 조종간부후보생 과정은 1961년에 각각 폐지하고, 공군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비행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963년부터 사관생도 교육에 전공개념을 적용한 '선택형 전공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의 전공학과를 선택하게 하고 전공에 따라 세부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사관학교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되자 사관학교의 입시제도도 점차 일반대학교와 유사한 모집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베트남전 참전과 1·21사태, 푸에블로함 피랍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자주국방 정책을 천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18기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2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매년 10명~20명씩 증가하여 제24기에 이르러서는 190명에 달하였다. 그 후로 제28기까지는 입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는 그동안 공군 사관학교를 통해서만 조종사를 배출하던 정책을 폐기하고 조종사 양성 과정을 다양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71년에 민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종사 후보생을 모집하는 한편 1974년 2월 27일에는 공군 ROTC 제1기가 임관을 했고, 1975년 12월 1일에는 교육사령부 예하에 2년제 단기과정을 운영하는 공군 제2사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학사만을 수여하도록 하는 사관학교 설치법이 1973년 이학사·문학사 또는 공학사를 수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되자 24기 사관생도부터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공은 공학사를 수여하고, 국방관리학 전공을 신설하여 이학사를 수여하였다.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패망, 공산화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자 전투 조종사를 대규모로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1970년대 말에는 1,300여 명이던 조종사 소요가 1981년에는 1,500여 명으로, 1986년에는 1,600명에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공군사관학교 입학 정원도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제29기~제34기는 200명을 기준으로 선발하였다. 1984년 정부 방침에 따라 공군 제2사관학교가 폐교되었고, 이에 따라 1983년에 입교한 제35기부터 공군사관학교의 선발 정원을 3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청주 캠퍼스 이전을 준비하면서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하였으며 1983년 이·공학 계열의 전공 이외에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을 운영하여 문학사를 수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제35기부터 적용하였다. 19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민주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사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지

원을 역시 동반 하락하였고 특히 공군사관학교는 까다로운 시력검사에서 불합격하는 우수 학생이 많아지면서 합격자의 질적 저하로 이어졌으며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위기의식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 해결 방안으로 제44기부터 입학 정원을 250명으로 감축함과 동시에 졸업생의 과반이 비조종병과를 부여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체검사 탈락자 중 성적 우수 지원자에게 ‘정책자원’이라는 전형을 통해 정원의 5% 이내로 선발하는 방안을 적용하였으며 제46기부터는 정원의 2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1996년 3군 사관학교 최초로 제49기 여자 사관생도 19명이 입교하였다.

종합적으로 사관생도 선발은 문·이과, 조종·정책, 남성·여성 총 8개 분야의 복잡한 전형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제2기부터 적용되었던 공군사관학교 입학의 가장 높은 장벽인 나안 1.0의 시력기준은 제49기부터 교정이 불필요한 최소시력인 나안 0.8로 완화하였고, 비행입과 시력 기준과 연계하여 생도 선발 시력 기준을 0.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침이 확정되었고 제58기 선발부터 반영되었다. 이후 시력 교정술인 라식(LASIK)수술의 안정성이 입증되면서 제66기 선발부터는 라식수술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자원 선발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결국 정책선발 제도는 제68기 때 10%로 줄어들었다가 제69기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시력 기준 변화와 동시에 제 49기~제53기에 여생도 20명을 포함해 230명이 유지되던 선발 정원이 제54기~제55기에는 210명, 제56기~제69기에는 160명~19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제1기~제71기 동안 약 1만 2천여 명이 입학하여 1만 9백여 명이 졸업하여 입학 대비 졸업 비율은 약 89%로 나타났다.



세계 속의 **일류사관학교**로 도약

공사의 외국생도 수탁교육 실적과 졸업 후 진출현황

올해로 개교 74주년을 맞은 공군사관학교는 경제력, 군사력 공히 세계 10위권 이내인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세계 속의 공군사관학교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공사의 외국 수탁생 규모에도 잘 나타나 있다.

현재 공군사관학교 청주 캠퍼스에는 태국, 일본, 튀르키예, 몽골, 필리핀, 베트남, 알제리, 페루, 파라과이,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미국 등 12개국 24명의 외국군 사관생도들이 공사의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 자국의 유능한 공군장교가 되기 위한 자질 연마에 매진하고 있다.



〈표〉 국가별 외국생도 수탁교육 실적 현황(출처 : 공군사관학교, '23년 6월 기준)

(단위 : 명)

국가	최초 시행	교육 기간	교육 주기	재학/졸업
태국 	1994년(46기)	4년	매년	4/26
일본 	2002년(52기)	1년(3학년과정)	매년	1/20
튀르키예 	2011년(63기)	4년	3년	1/2
몽골 	2011년(63기)	4년	매년	4/8
필리핀 	2011년(63기)	4년	3년→매년('15년)	4/6
베트남 	2012년(64기)	4년	매년	4/8
알제리 	2013년(65기)	4년	3년	0/2
페루 	2017년(69기)	4년	3년	2/1
파라과이 	2018년(70기)	4년	3년	1/1
이라크 	2020년(72기)	4년	3년	1/0
아제르바이잔 	2020년(72기)	4년	3년	2/0
미국(단기) 	2021년(70,71기)	1개 학기	매년	0/4
계				24/78

세계 일류사관학교를 지향하는 공군사관학교의 외국군 사관생도 수탁교육의 목표는 명확하다. 생도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세계화 추세에 맞는 국제적 감각을 직접 체험케 함과 동시에 특별히 외국군 졸업생들이 장교임관 후 양국 간 군사외교 및 유대 강화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외국군 수탁생도 현황을 공사 통계자료('23년 6월 기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군 수탁교육은 지난 1991년 6월 한국공군참모총장이 태국 방문 시 태국 공군사령관 요청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1992년 1월 국방부로부터 매년 1명 4년 정규과정의 수탁교육을 승인받았으며, 2년 후인 1994년 46기로 입교한

나타 차이 태국생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재학생 4명이 학년별로 수학 중에 있다. 시기와 수치로만 봐도 태국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96년 10월 일본 방위대 학장의 공군사관학교 방문 시 생도 상호교류 확대를 희망하여 1998년 9월 한·일 국방장관회의시 매년 1명씩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2002년 52기부터 수탁생이 들어온 이래 2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현재 재학생 1명이 수학 중에 있다. 튀르키예는 2009년 11월 한·터키 공군 對 공군 회의 시 생도교환 교육 시행 합의를 통해 2011년부터 4년 정규과정 1명을 3년 주기로 수탁하여 63기, 71기 졸업생 2명을 배출하였고 현재 재학생은 1명이다. 몽골은 2010년 3월에 검토되어 2011년부터 4년 정규과정 매년 1명을 수탁하여 63기부터 71기까지 졸업생 8명이 배출되었고 재학생 4명이 수학 중이다. 필리핀도 2011년 4년 정규과정 1명을 3년 주기로 수탁하다 2015년부터 매년 1명으로 조정하였고 지금까지 배출된 졸업생은 6명, 재학생은 4명이다. 이밖에 베트남은 2012년부터 4년 정규과정 1명을, 알제리는 2013년부터 4년 정규과정 1명을 3년 주기로, 페루는 2017년 이후 4년 정규과정을 3년 주기로, 파라과이는 2018년 이후 4년 정규과정 1명을 3년 주기로,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이후 4년 정규과정 1명을 3년 주기로 각각 수탁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8월 미 공사 측에서 양국 사관생도 교환교육을 희망함에 따라 2021년 한·미 공사생도 교환교육 MOU를 체결하였고 2021년부터 매년 미 공사생도 2명이 단기간(한 학기) 동안 한국 공사로 파견되어 수학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사 외국군 수탁교육의 성과와 미담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배출된 졸업생 인원은 2022년 기준으로 정규(1~4학년)과정 58명과 1년 단기(3학년)과정 20명을 포함 총 78명이다. 대표적인 미담 사례를 보면 태국의 타왓차이 생도(61기)는 지덕체 모든 면에서 발군의 능력으로 역대 수탁생도 중 최고의 학업성적을 차지한 생도로 기록돼 있고 또한 그는 최초로 외국인 대대장 생도로 임명되어 국내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삼군사관학교에서 외국인 수탁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타왓차이 생도는 태국 공사에서 1년을 마치고 입학한 수재로 능숙한 한국어에 두 차례 우등상을 받았고 졸업성적 전체 9등으로 콜롬비아 공군참모총장상



61기 대대장 생도 태국 타왓차이 텅생께오



제67기 최초의 필리핀 여자 수탁생도 졸업 및 임관
(2019.3.8.)

을 수상하였는데, 그는 졸업식 인터뷰에서 장차 한국 주재 태국무관이 되어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초의 필리핀 여자 수탁생도(페냐로자 칠리안 크리스틴)가 67기로 졸업 및 임관하는 경사가 있었고, 또 몽골에서 온 엔크자르크 생도(63기)는 러시아 공군사관학교 수탁시험에 먼저 합격하고도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는 한국 공사를 주저 없이 선택하였다고 밝혀 한국 공군사관학교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더하여 우리 생도들의 따뜻하고 지적이며 성실한 모습도 외국 사관생도들이 한국 공사에 큰 매력을 느끼는 요소일 것이다.

아울러, 외국군 수탁생도들의 졸업 후 진출현 황을 보면 나라별 진급과 보직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대령에서 비행훈련 중인 소위까지 다양하다. 기수별로 나눠보면 1994년에 최초 외국군 수탁생으로 입학했던 46기 태국의 나타차이 졸업생은 중령으로 전역 후 현재 태국 항공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고, 47기 콤크리트는 대령으로 태국 공사 항공우주공학과 교관으로, 48기 타넷 역시 대령으로 비행학교 정비창장으로 근무 중이다. **또 대대장 생도까지 했던 우수 졸업생 61기 타왓차이는 현역 소령으로 S-92A(VIP**

전용기)를 조종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대위인 60기 부터 소위인 70기까지는 비행단 소속으로 대부분 조종사 또는 조종교육생으로 근무 중이다. 일본 수탁졸업생은 52기부터 56까지는 중령으로 항공지원집단 특별항공수송대와 제2항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62기부터 65까지는 전역했다. 한국 공사에 입교하여 장차 몽골의 탑건이 되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던 63기 몽골의 엔크자르크는 졸업 후 한국 국방어학원에서 근무하다 몽골 총참모부에서 근무 중이며, 69기 몽골의 바트수크는 전역 후 한국에 거주하며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베트남 졸업생은 전원 현역장교로 야전 및 정책 등 다양한 부대에서 근무 중이며 일부는 한국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66기 필리핀 케논 중위는 전투조종사로, 67기 여생도 크리스틴은 공중기동사령부 제205전술헬기비행단 소속 조종사로, 70기 필리핀 크리스찬 소위는 초급 과정 비행교육 후 국방사관학교장 전속부관으로 근무 중이다. 이와같이 공사가 키운 외국군 인재들은 뛰어난 능력으로 자국에서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고 계급자로 진출하게 되면 K-방산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군사외교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외국군 수탁생도를 후원하고 도움을 주는 공군 예비역 및 민간 멘토들의 활동상을 소개한다. 공사에서 수학하는 외국군 예비생도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일반 한국생도들과 똑같이 4주간의 혹독한 기초 군사훈련을 마쳐야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말이 서툴 뿐 아니라 문화까지 생소하기에 우리 생도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며, 특히 외국 생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감과 향수병이다. 아무도 면회 오지 않고 모두 외출하여 텅 빈 생도회관에서 혼자 있을 외국생도들에게는 부모나 친형제처럼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 즉 멘토(후원자)들의 도움과 돌봄이 꼭 필요하다. 외국생도들을 후원하는 멘토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맡아 평상시에는 안부와 격려 전화를 하고 주말 및 휴가기간에는 가정초대, 가족여행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한국문화/생활 적응지원 등의 역할을 성심껏 하고 있다. 아래의 김정근 예비역 대령과 박종관 후견인의 멘토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외국군 수탁교육의 숨은 공로자인 멘토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뜻있는 성무원 선후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1. 김정근 후견인(예비역 공군 대령, 공사 30기)

나는 2015년 11월 사관학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2016년도에 입학하는 외국인 수탁생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줄 후원자들을 모집하니 적합한 지인을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였다. 통화 후 돌이켜보니 서울 대방동 공군사관학교 생도시절 주말이면 빠짐없이 면회를 하던 동기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일주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먼 길을 마다 앓으시고 면회 오신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고 용기백배한 기억이 새로웠다. 제주 출신인 나도 생도시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니 이역만리 이국땅에 와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후배 생도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삼겹살을 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주저 없이 후원자를 자원하였다.



아들들과 남산에 오르다
(케논, 제임스, '16. 9.)



케논의 졸업식(왼쪽 두 번째가 필자, '18. 3.)

나의 첫 후원 대상자는 필리핀 생도였다. 66기 생으로 들어온 케논 생도는 마치 모범생 아들 같은 느낌이었다. 케논 생도는 부리부리한 눈망울, 쾌활한 성품을 갖고 있었고,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여 첫 만남부터 친근해졌다. 케논은 공군인으로서 엘리트의식이 강했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남달랐다. 식사 약속을 하면 홀로 생도대에 남아있는 외국인 동기들을 데리고 나오는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졸업할 때까지 케논은 늘 한결같았고 생각이 깊었으며 모든 일에 열심인 사관생도였다. 지금은 자국에서 방공사령부 제5 전투비행단 FA-50 전투조종사로 근무하는 케논 중위의 무운과 승승장구를 기원한다.

케논에 이어 두 번째 후원 대상자는 크리스찬 생도('22년 졸업 후 필리핀 공군 비행교육 중)였다. 2018년 70기로 입학한 크리스찬 생도는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계획성 있게 생도 생활을 했으며, 외국 동기들과 교류도 활발했던 젊은이로 기억하고 있다. 리더쉽도 강하고 미스터 공사에 출연한다고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 평소 좋아하는 음식도 끊어버리는 결단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항상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크리스찬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아무튼 운 좋고 행복한 나는 신의 선물처럼 케논과 크리스찬의 멘토가 되었고 이들을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아마 케논과 크리스찬도 우리 부부를 아빠와 엄마로 여기면서 한국에서의 멋진 추억을 자양분 삼아 모국인 필리핀에서도 유능한 공군 장교로 활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 공사에서 수탁교육을 받는 외국인 생도들은 우리 輩의 시각으로 볼 때, 미래의 중요한 인적자산이다.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후원해 줘야 한다. 나는 그들이 외출외박을 나오거나, 명절 때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의를 베풀었을 뿐이다. 거창하거나 힘든 일도 아니었다. 그냥 중간시험, 유격이나 공수훈련 시기가 되었을 때 카톡으로 '잘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정도였다. 지난해 졸업반이던 생도를 위한 환송만찬 시, 나의 필리핀 아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선배님과 같이 했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 그들은 또 다른 나의 멘토였다.



설날 만찬
(둘째아들 필리핀 크리스찬, 몽골 잠양, 알제리 압델, 필리핀 크리스, 파라과이 페데리코 '22. 2)



추석 만찬
(셋째아들 필리핀 마누엘 우측 네번째, '22. 9)

2. 박종관 후견인(예비역 공군 중위, 학사장교 75기)

1980년 공군 학사장교 75기로 임관하여 중위로 전역 후 청주에 개인 사업체로 출·퇴근할 때 공군사관학교 정문에서 현역들의 푸른 제복을 볼 때 마다 현역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 나곤했다. 공군에 대한 고마움과 못다 한 아쉬움을 갖고 있던 차 2002년 외국인 수탁생도들의 멘토 모집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여 외국군 수탁생들과 첫 인연을 맺게 됐다.

그때부터 태국, 일본 등에서 온 외국생도들을 차례로 추천받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멘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 53기 태국생도 다이텡 켓신 생도를 시작으로 57기 자트리, 61기 타왓차이, 65기 사폰나다이 등 4명의 태국 출신 위탁 생도들과는 별도의 단톡방을 만들어 가족 소식, 한국, 태국 소식 등을 나누며, 아버지와 양아들로서의 소중한 인연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65기 사폰나다이 생도의 후견인을 끝으로 지금은 필리핀에서 온 4학년 생도 마르틴을 멘토링하고 있다.

양아들들의 현재 동향은 만아들 53기 다이텡 켓신 중령은 내년에 대령 진급을 한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고, 태국 국방부에서는 한국어를 제일 잘한다고 하여, 한국에서 방문하는 군 관련 귀빈들의 통역을 단골로 맡고 있으며, 행사 장면들을 영상으로 보내오곤 한다. 둘째 아들 57기 자트리 소령은 2023년 봄에 전역하여 불가에 귀의했으며, 셋째 아들 61기 타왓차이 소령은 한국 공사 시절 외국인 최초로 대대장 생도를 맡는 등 학업 성적이 우수한 생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생도시



61기 졸업식에 53기, 57기 초대

절 때 명절이 되면, 나의 고향인 대구에 항상 같이 내려가 부친 차례상에서도, 성묘를 갈 때도 돛 자리를 들고 가서 한국인처럼 꾸벅꾸벅 큰절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또한, 타왓차이 결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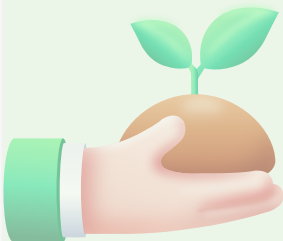
때는 태국까지 가서 축하를 하는 등 지금까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은 태국 공군 헬기 조종사로 국왕 전용기를 조종하고 있다. 막내 아들 65기 사폰다나이 대위는 수송 참모부에 근무중에 있다.


돌이켜 보면 53기 다이텡 졸업식 때부터 매번 양아들들의 졸업식 때는 태국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왕복 항공기 티켓을 보내드려 가족 간에도 교분을 쌓았고, 61기 타왓차이 졸업식 때는 태국 대사관에 공문을 요청하여 특별히 53기, 57기 양아들을 홈커밍으로 공사를 방문할 수 있게 하였으며, 53기, 57기, 61기 가족 형제들을 모두 집으로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태국공사교장 보좌관으로 동행한 57기, 65기

약 20여 년간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 나라 최고의 청년들이 언어와 문화도 낯선 한국 공군사관학교에서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 맞게 열심히 생도생활에 정진하는 모습과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잘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나의 조그마한 정성이 외국군생도들이 한국에서의 외로움과 향수병에서 벗어나 가족의 정을 느끼고 무사히 졸업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 앞으로 양아들들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교분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19인의 명사들이
공사 생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名士名言

명사
명언

승리를 부르는 국방의 미드필더가 되세요!

우리의 하늘과 우주공간을 책임지게 될 몇쟁이 공
군사관생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축구선수 구자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군 KF16 정비사셨던 아버지를 따
라 전투기들이 우렁찬 폭음을 내면서 뜨고 내리는 부
대 내 관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늘을 누
비는 조종사의 꿈을 꾸곤 적이 있습니다. 운명처럼 축구
선수의 한길을 걷게 되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소년 시
절 빨간마후라에 대한 동경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
아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터 성인 연령까지 대한민
국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이자 주장으로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컵 등 굵직한 국제
대회를 많이 치러 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쁘고 보람찼던 경기는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가위 바위 보”도 지면 안된다는 숙적 일본 국가대표팀을 2:0으로 통쾌하게 누르고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대표팀 주장을 맡아 팀 분위기를
잘 이끌면서 우리 대표팀이 4강까지 무패 행진을 거두는데 핵심 역할을 하였다는 칭찬
을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받았고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후반전에 짜릿한 썸기
골까지 넣어서 기쁨과 감동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공군에서 저를 장병들이 가
장 좋아하는 선수로 뽑아주시고 공군 홍보대사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덕분에 동북
아 최강이라는 F15K 전투기 탑승 체험도 해보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구자철
(전 국가대표축구팀 주장,
전 공군홍보대사)

이후 이곳저곳 생생한 공군의 작전 현장 견학을 통해 저 같은 축구 선수들과 공군 장병분들의 역할이 참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설 새 없는 압박과 수적 우위의 공간창출을 추구하는 현대 축구에서 최일선 공격수부터 중앙의 미드필더, 최후방 수비수, 골키퍼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은 없지만 팀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볼 때 공격형 미드필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량이 출중한 공격형 미드필더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펄펄 날아다니면 공격과 수비 모두 살아나 그 팀이 쉽게 승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반대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상대방 선수들에 의해 뽕뽕 포위되어 버리면 그 경기는 보나 마나 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축구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은 경기 내내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투지, 정확한 상황 판단, 민첩한 위기 대처 능력과 탁월한 공수 조율 능력, 최전방 공격수에게 찢어넣는 원샷 원킬 패스, 틈만 보이면 2선에서 때리는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 그리고 팀 동료들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리더십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국방의 핵심 전력인 공군 장병, 그중에서도 조종사분들의 경우를 보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첨단과학의 집합체인 고성능 전투기를 몰며 3차원의 공간을 종횡무진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면서 적들의 공격을 봉쇄하고 적진 깊숙이 순식간에 침투하여 미사일 한방으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해 내는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명실공히 우리 군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여 년이 넘는 저의 축구 인생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장차 대한민국공군의 앞날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실 사관생도 여러분에게 이번 기회에 꼭 들려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공군장교로 임관하여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시던 스스로 국방의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100%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필승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공사생도님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순간순간을 아껴 학업과 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임관하신 후에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고 유사시에는 강력한 한 방으로 승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우뚝 서시기를 기원하면서 저 역시 대한민국 공군의 찐팬으로서 생도 여러분을 비롯한 공군장병 여러분들의 건승과 힘찬 비상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다가오는 저의 축구 인생 2막도 잘 준비해서 보내주시는 기대에 부응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생각과 높은 이상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공군사관학교 교가에 “하늘은 우리의 일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을 일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중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는 몇 명이나 될까요? 20대 초반, 하늘 높이 올라 지상을 내려다보는 것은 공군사관생도만의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높은 곳에서 넓게 세상을 바라보면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호연지기(浩然之氣)라고 말했습니다.

나만의 세계를 벗어나 하늘과 땅 사이의 넓은 세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 신입생에게 “Think big and aim high!”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눈앞의 이익과 좁은 자아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넓게 멀리 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높은 꿈을 꾸는 젊은이가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과 의지는 자기 자신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까지 더 나아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일터로 살아가는 젊은 공군사관생도 여러분! 큰 생각과 높은 이상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왜소한 젊은이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높은 꿈과 의지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큰 생각과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로 변해갈 것입니다.

항공 1세대 노병의 당부!

나는 올해 96세의 노병입니다. 세월의 무게로 육신은 주름으로 덮였지만 정신만은 아직도 혈기 넘치는 하늘의 용사임을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 경남 의령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세 살배기 때 숙부의 손에 이끌려 일본에 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낫선 이국땅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17살이 되던 1944년 공짜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가미카제(자살특공대) 대원으로 뽑혔으나 다행히 일제의 패망으로 20세가 되던 해에 해방된 조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항공 1세대로서 공군창설 원년 멤버가 되었고 조종사로 임관한 지 1년 만에 6.25전쟁을 맞았습니다. 곧바로 F-51 전투조종사가 되어 대한민국이 공산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선을 넘나들며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1952년 1월 우리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조종사라는 영예를 얻었고, 1977년에는 제11대 공군참모총장이 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군전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8세가 되던 2015년 6월에는 전역 후 44년 만에 국산 FA-50 전투기를 타고 동부전선의 6.25 격전지 상공을 비행하는 감격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저만큼 오랜 세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망국의 일제강점기부터 8.15광복과 6.25전쟁, 정전과 동시에 숨 가쁘게 전개된 남북 군사대치 및 경쟁 시대,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열



김두만
(6.25전쟁 참전,
최초 100회출격조종사,
제11대 공군참모총장)



에 진입한 현재의 대한민국을 빠짐없이 지켜본 사람으로 억누를 수 없는 감회와 감격을 느끼곤 합니다.

이제 거의 한 세기에 이르는 나의 삶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군의 원로이자 산증인으로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대하는 공사생도들과 전현역 졸업생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공군은 여러분들이 기꺼이 목숨 바쳐 충성할 가치가 있는 매우 소중한 국가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공군은 해방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전투기 한 대 없는 무늬만 공군에서 시작하여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10대 선진국과 선진정예 강군으로 각각 성장한 기적의 나라, 기적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방의 간성으로서 선대 호국영령들

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 속에 쌓아 올린 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와 우리 공군을 영속적으로 보전(保全)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념무상(無念無想)의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단련하고 훈련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73년 전 적지 전투출격시 항공기의 성능을 믿고, 배운 대로, 작전계획대로 침착, 과감하게 임무를 수행하자는 신조를 견지하였고, 특히 조종석에 앉는 순간부터는 마치 수도자처럼 모든 잡념을 버리고 평정심과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마음으로 비행을 하고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런 무념무상의 정신력을 가진 덕분인지 수많은 생사의 기로에 몰렸어도 애기와 함께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고 때문에 무념무상은 저의 평생신앙이 되었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발발 시 반드시 승리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군인에게, 특히 전투조종사에게 무념무상의 정신력을 갖는다는 것은 임무완수와 무사귀환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고의 소양임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상수(上壽)를 앞둔 이 노병의 진심이 담긴 당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모두 성공적인 군인, 국방안보 지도자의 길을 깨끗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창공에서 땅 위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라!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내 머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시작된다. “가장 마지막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핵심인 경우가 많다.

“우리 공군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인가? 공군 출신인 나는 ‘조종사’라고 답할 것이다.

10년 차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F-15K의 경우 최대 238억 원, KF-16의 경우 153억 원이 든다고 한다. 천억 원이 넘는 전투기와 더불어 그것을 조종하는 조종사의 가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만약 전투기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역시 ‘조종사’다.

나는 1997년 공군에 입대해 광주 제1비행단에서 사진병으로 근무했다. 공군에서 근무하면서 비행기가 출격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곤 했다. 썩엑~ 썩엑~ 전투기가 땅을 박차고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모습은 장관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완성되기 위해, 이러한 출격들이 전국 비행장에서 수시로 일어난다. 그때 나는 이 한 번의 출격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고생하는지를 눈으로 지켜보고 몸으로 체험했다. 조종사는 물론 정비사, 관제사, 그리고 기지를 방어하는 인력까지 이루 해야될 수 없는 이들의 노력이 더해진다.

지상에서 근무하는 인원들도 자신들의 역할로 인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완성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수고들이 하나가 될 때 공군은 강해진다.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창업자)

푸른 꿈을 안고 성무대(星武臺)에서 공군의 호국간성(護國干城)이 되려는 공군사관생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한 번의 비행(飛行)을 위한 땅 위 그들의 노력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기업도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노력들이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때 기업의 가치는 완성된다. 우리 공군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지상에서 근무하는 그들의 노고가 없다면 출격은 완성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공군의 멋진 장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성된다고 믿는다. 우리들의 비행(飛行)이 나 하나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있는 장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武運)이 있기를 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 D.C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는 해마다 320만 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끄는 두 가지 문구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미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KOREA, 1950~1953>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입니다.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알지도 들 어보지도 못한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의 이름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전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자유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안보 태세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공군장교로 임관하게 될 공군사관생도 여러분들의 책임과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장차 우리의 영광을 확실 하게 지켜주시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빨간마후라 파이팅!

당신의 인생에서 MC가 되십시오!

흔히 내 삶의 주인공이 되자고 외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인공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MC가 되고 싶습니다. 인생은 영화라고, 드라마라고, 연극이라고 말해도 제게는 인생이 한 편의 프로그램입니다.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인생의 기승전결이 프로그램으로 녹아 납니다.

인생에는 그날의 출연자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내 삶을 보여주는 카메라 감독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돕는 기술 스태프도 있고, 내 삶을 바라보는 방청객도 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작가와 이야기 손님도 있습니다. 부모가, 친구가, 스승이, 동료, 출연자도, 스태프도, 방청객도 됩니다. 그런 인생에서 MC가 되고 싶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
(KBS 아침마당 진행)



출연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지혜를 얻어내고, 이야기 손님의 조언을 받아 삶을 윤기 있게 만들고,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삶을 꾸려가고 방청객들의 박수로 힘을 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을 출연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청객처럼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행자가 되어 삶을 이끌어 나아가십시오. 물론 당신의 삶에는 원하는 출연자만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밋고 싫어도 방청객 앞에서는 잘 섬



겨야 합니다. 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방청객과 스탭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
 하시면 됩니다.

혹시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MC에게는 스튜디오 위 조정
 실에 PD가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을 달고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에게 의지합니다. 인생에도 PD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멘토가
 있고, 인생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MC가 되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공군을 이끌고 나갈 당신의 인생이 더욱 빛날 것입
 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을 지키는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공군사관생도에게!

공사생도 여러분, ‘키이우의 유령’을 아시는지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모두들 우크라이나가 일거에 점령당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달리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관·민이 일치단결하여 기적적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이 기적의 시작은 우크라이나의 한 파일럿이 낙후한 미 그29기로 개전 30시간 만에 최신 수호이 35를 포함한 러시아 공군기 6기를 그리고 일주일 만에 무려 21기를 격추했다는 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국민들에게 마음 깊이 심어준 꿈과 용기는 전군을 또 전 국민을 일치단결시키는 기적을 연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사생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 국가와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비록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적을 만들겠다는 용기와 의지만 있어도 실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생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공사를 선택한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정과 보람 때문이었겠지만, 다른 한편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큰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택은 미래를 향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미래가 보장되는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성숙하고 드론이 자동차를 대신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의 선배들에게는 파일럿의 경력이 단지 아름다운 젊은 날의 추억으로 남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 신세계를 살아갈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파일럿 경력과 항공운항 능력이 퇴역 이후 중년기의 새로운 이모작 삶을 풍요롭게 보내고 장년기의 여생을 누구보다 즐겁고 신나게 보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공사생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당백의 탑건이 되도록 더욱 투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곧 조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미래는 곧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류지주(洪流砥柱)의 기백처럼

사관생도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화양연화(花樣年華)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작가 민태원이 예찬한 것처럼,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열락(悅樂)의 새가 울고 있을 것입니다.” 「청춘예찬」.

가슴 뛰는 젊음으로 사관생도의 길 위에서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야 할 나날이 반드시 꽃다운 시간들로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밖으로 눈길을 돌리기만 해도 인류의 고통과 슬픔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삶을 파괴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총성 없는 강대국의 패권전쟁과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의 비극은 언제든 한반도를 지옥의 목시룩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파국과 비극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최고의 시험대일 것입니다. 춘추전국시대의 난세가 아니었다면 공자와 맹자 같은 성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임진왜란의 파란이 없었다면 이순신 같은 불세출의 영웅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철 같은 투지, 통찰력이 번득이는 전략, 비범한 사유와 심오한 철학 등은 모두 인간의 근원적 비극과 타협하기 어려운 정치적 갈등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홍류지주(洪流砥柱)’란 휘호를 남기셨습니다. 지주는 중국 황허의 삼문협(三門峽)에 있는 돌기둥으로, 거칠고 세찬 물결 속에서도 우뚝 솟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백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황허강 한복판에 우뚝 선 지주의 기백,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용감하게 이를 물리치는 풍모”를 단련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조언입니다. 황허의 격랑 같은 역경 앞에서 여러분도 태산 같은 기개와 지주 같은 기백으로 천금 같은 배움의 시간을 지키면서 멋진 내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김호연
(공군역사재단이사장,
(주)빙그레회장)

본분사(本分事)

선(禪) 수행에서 즐겨 쓰는 말 가운데 본분사(本分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면목(本來面目)과도 같은 말인데 모든 사람에게 원래 갖추어진 원만하고 진실한 품모를 이룹니다. 불교에서는 불성(佛性), 즉 부처님의 성품이 모든 사람의 바탕에 갖추어진 진실한 품모라고 설명합니다.

본래의 모습이란 뜻 외에 사람마다 가진 본디의 역할이나 해야 할 일도 본분사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란 말도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중국의 송(宋)나라 시대에 구국(救國)의 명장이라 칭송받는 대장군 악비(岳飛)가 장수로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문신이 돈을 좋아하지 않고 무신이 죽음을 아끼지 않으면 천하는 태평해진다(文臣不愛錢, 武臣不惜死, 天下太平矣).' 여기에서 말한 신불석사(武臣不惜死)가 바로 안중근 의사가 말한 위국헌신 군인본분과 상통하는 말인데 군인이라면 구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둘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목숨을 바치는 맹세를 합니다.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에도 나가지 않는 스님들이 무슨 목숨을 걸 일이 있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불교에서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부처님께 죽음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죽음을 희생하는 것보다 가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가치가 언젠가 죽기 때문에 귀한 것처럼, 죽음의 가치도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매일 절제된 생활을 하며 마음을 살피고



능원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다스리는 일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런 일상이 모여서 만든 경지는 어떠한 번뇌도 흔들 수 없는 산과도 같은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 해야 할 일을 하루하루 충실히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에 나아가는 돌도 없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러 본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본분사인 위국헌신은 목숨을 바쳐 이루어야 하는 고귀한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고귀한 목숨은 하루하루를 본분사를 다해 사는 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대업을 성취하는 일과 오늘 작은 일과를 충실히 하는 것 모두 본분사로서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들 군인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루하루를 잘 쌓아서 흔들림 없이 우리 영공을 사수하는 든든한 꽃으로 피어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변화에 당당하게 맞서라!

우리는 지금 위기와 변화가 가져오는 대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COVID에 이은 다양한 전염병의 질병 위기, 팬데믹 대응으로 발생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몰고 온 경제 위기 그리고 사회적 불안과 이념적 갈등이 가져오는 전쟁 위기 등 많은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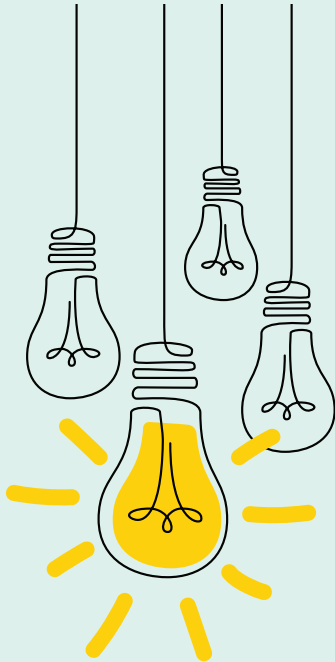
한편, 기술 패권 시대에 모든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우주 개발 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핵심기술로 우주 산업이 국가 기간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력은 과거 군사력을 넘어 우주력과 기술력으로 가늠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국력을 향상시키고 국격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며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극히 수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알코올램프 위에서 데워지고 있는 비이커 속의 개구리가 된다. 그러므로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변화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와 자신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하며 나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순간적일 뿐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많이 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다만 올해의 나와 내년의 내가 같아서는 안된다. 올해 내가 매일 30분씩 독서를 했다면 내년에는 1시간씩 독서를 하는 것. 올해는 하루에 30분씩 나의 건강을 위하여 달리기를 했다면 내년에는 40분씩 달리기를 하는

것. 그런 작은 변화가 나를 변하게 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변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여 습관으로 바뀔 때 세상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

세상이 변할 때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 사관생도들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의 집단이다. 나는 미래 사회 리더들의 집단인 공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이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얻게 되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대격변의 시대에 당당하게 맞서는 젊은 영웅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HIC ET NUNC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철학 첫 강의 때에 교수님이 칠판에 써주신 문장입니다.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여기, 지금’이란 뜻입니다.

대학 시절 의무복무로 병사생활을 하였고, 1991년도에 군종장교로 두 번째 입대하였습니다. 국방부 군종과장으로 10년 전에 대령 전역하고, 군종교구 총대리 직책으로 5년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여 명의 군종신부님들과 함께 병사들의 영적 도우미로 주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보람을 가지고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상범 티토 주교
(천주교 군종교구장)

저의 인생 좌우명이 된, ‘여기, 지금’이라는 모토가 늘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까지 어우르면서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tal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들 TV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텔런트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야에 재능있는 사람, 혹은 타고난 재주, 재능을 뜻합니다. 인간은 각기 다른 talent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 재능은 고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나의 talent를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불행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의 말씀(마태25장)이 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깁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각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금 2~30kg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돌아

온 주인은 종들과 셈을 합니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동안 두 달란트를 더 벌어서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도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산 증식에 성공한 것이지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땅에 묻어 놓았다가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게으른 종이라 호통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돈을 잘 활용한 종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생도 여러분!

저도 군 생활 중에 육군사관학교에 근무하면서 3년간 생도들과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도들은 지적, 품성적, 체력적으로 최고의 젊은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달란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받은 것에 감사하며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세요.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고유의 특성을 개발하여 인생의 성취를 이루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멋진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기 위해 내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하여 '여기, 지금'에 충실한 나날을 이루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을 건너뛴 내일은 없습니다.



자승최강(自勝最強)

저는 바다가 가까운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해, 터를 잡은 곳이 바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원도봉산 망월사 골짜기입니다. 도시와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산 속에서 3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며, 유년기부터 소년기, 청년기 이후까지 약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엄홍길
(산악인)

산 정상 부근엔 미군 레이더기지가 있어 주둔하는 군인들이 자주 오르내렸고 다니던 초등학교 주변엔 우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군인들을 보고 접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미 육군참모총장 지명자인 랜디 조지는 학창 시절 이웃에 살던 6.25 참전 용사에게 감명을 받아 군인의 길로 들어서야겠다고 밝혔듯, 저도 역시 어릴 적 꿈은 성인이 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산이라는 존재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집 근처에 있는 암벽에서 등반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산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원도봉산이라는 산을 벗어나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산들을 섭렵하면서 전문적인 등반의 세계를 체험을 통해 배우고 터득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해 두려움도 거침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군대 갈 나이가 되어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육·해·공군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 끝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육지가 아닌 바다를 지키는 해군을 지원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잠시 배를 탄 후에 다시 ‘해군 특수전전단 UDT’를 지원해 혹독한 훈련과 군 생활을 하면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갖춘 저는 제대를 한 후, 제가 산을 오르며 꿈꿔

왔던 히말라야에 있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을 1985년 동계 시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겁도 없이 '오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지만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산을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본 순간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산을 오르는 것은 놀이 삼아 자아도취에 빠져 제 자신이 최고인 양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갇힌 생각과 사고로 산을 올라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1년 후, 1986년 동계 시즌에 에베레스트를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제 자신 역시 세계 최고봉을 오르기 위해선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알기에 실패의 원인 분석 및 철저한 준비,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훈련만이 정상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산이 받아주어야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 깨달았기에 엄청난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도전한 에베레스트 등반 중 추락 사고로 동료 한 명을 잃고 크레바스 속으로 떨어져 시신도 찾지 못하는 실패를 하고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동료를 잃은 슬픔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산을 떠나고 싶었고 히말라야를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을 다잡고 1988년 가을 에베레스트를 세 번째 도전해 성공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저는 본격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8,000미터 도전을 시작해 2007년 5월 31일, 필생의 꿈이었던 '세계 최초 8,000미터 16좌 등정'을 해내고 살아남았습니다.

16좌를 성공하기 위해 8,000미터를 38번 도전하였고, 무려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을 함께 오르던 10명의 동료 대원들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료들의 값지고 고귀한 희생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성원, 기원, 그리고 산이, 히말라야가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헤아릴 수 없는 생과 사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동료를 잃었을 때 흘린 피눈물과 슬픔,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 좌절과 실패는 오히려 목표와 꿈을 이루고

야 말겠다는 불굴의 도전 정신과 신념을 불태우는 촉매제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8,000미터 산을 오를 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대한 산에서 일어나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들, 바람, 추위, 눈사태, 낙석, 낙빙, 크레바스, 고산증, 죽음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 자신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자신을 이겨내고 극복해 냈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살아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승최강, 결국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

어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들고 강한 훈련만이 강한 군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펴고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관생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애국애족(愛國愛族)’의 마음가짐과 ‘생즉사 사즉생(生即死 死即生)’의 정신으로 훗날 강한 공군력으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미래 공군장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저는 장차 공군장교가 되어 대한민국과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수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38년간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저의 경험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제게 주었습니다. 1985년 플로리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할 당시 저의 계획은 의무복무 후 민간조종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해하고 군을 위해 헌신한다는 만족감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 인생은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투조종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인도-태평양 전구를 책임지는 사령관 자리에 있습니다. 인태지역은 오늘날 가장 복잡한 안보 위협이 있는 지역이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면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장교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산권 국가들은 우리가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으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범위와 난이도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상대국의 도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인태지역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으며, 권위주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의 전복을 시도하는 등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이 시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인접한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와 도발이 지난



Kenneth S. Wilsbach
(美 태평양공군사령관,
전 美 7공군사령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국민의 생명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을 미국의 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지휘해 본 저는 양국 간 협력관계의 중요성과 이것이 지역의 변영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직면했던 도전들은 한미 양국의 협력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우리 공군장교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공군 장교로 복무한다는 것의 의미는 점차 진화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과거 선배들의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보는 전 지구상에 즉각적으로 전파되고, 회색지대 전술은 경쟁과 전쟁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고 있으며, 사이버와 대기권 밖에서는 새로운 전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오늘날의 전장은 공군 장교에게 있어 가장 도전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배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신속히 적응하며, 더 깊게 생각함과 동시에 위협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리더십 원칙은 시대에 관계없이 통용될 수 있으며, 과거에도 그랬듯 현재에도 잘 적용될 것입니다. 공군 장교로 복무하는 동안 저는 어떤 것이 효과적인 리더를 만드는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들을 정립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 접근 가능성, 신뢰, 그리고 강인함입니다.

겸손은 여러분의 멘토, 동료뿐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휘하 장병에게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근 가능성은 당신의 부하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피드백을 위한 통로가 열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뢰란 자신의 임무를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인함이란 저항에 직면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을 우선순위화하여 발전시

키면 앞으로 닥칠 어떠한 시련에도 여러분의 부하들을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 원칙들이 저를 만들었으며, 현재 위치에 올려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조국을 지키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싸울 수 있었습니다.

리더로서 저의 임무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반하는 위협들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그 임무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문화와 소중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응당 보호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이라는 소중한 책무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은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강력하지만 함께한다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미 양국의 상호 책무는 인태 지역에 산재한 도전들을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역내에 있는 우리의 동맹과 우방국들의 공군 장교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군인으로서 그리고 장교로서 성장하는 동안 겸손, 접근 가능성, 신뢰 그리고 강인함을 기억해 주길 희망합니다. 미래에 여러분의 리더십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갑시다!



Strengthening Our Future Air Officers

By: Gen. Ken Wilsbach, Commander, Pacific Air Forces

I want to share with you, the Korean Air Force officers of tomorrow, about the important role you will play in shaping the Republic of Korea's future and that of the Indo-Pacific. My own experience of serving my country for 38 years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me, far beyond what I had anticipated.

When I joined the U.S. Air Force in 1985 after graduating from the University of Florida, I planned to serve my time and then fly for a commercial airline. But as I grew to understand the mission and found fulfillment in contributing to the armed services, my path took a different direction. I went from being a combat pilot to becoming a theater-wide commander, dealing with the most complex security challenges of the modern world. That is the world you will soon enter, one that demands the best we have to offer.

The challenges we face today continue to grow in scope and difficulty as revisionist powers work against the values we stand for, like freedom,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Europe, Russia has launched an invasion displaying unprovoked aggression not seen on that continent since World War Two. In the Indo-Pacific, China continues to escalate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the East China Sea, and the Taiwan Strait while attempting to use their authoritarian systems to subvert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that has led to the most peaceful and prosperous time in history.

Closer to your home, North Korea's rate of missile launches and provocations

have only increased the past few years, posing a threat to the stability of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 lives of your families, friends, and fellow countrymen are at risk due to North Korea's irresponsible behavior. The U.S. and Republic of Korea have worked together for decades to deter North Korea, its nuclear program, and the development of it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We have fought and bled together, and we will continue to stand united against these threats.

Looking ahead, the U.S. consider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do-Pacific as crucial areas in our strategic security. Having led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I personal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partnership between our two nations and the role it plays in regional prosperity. The challenges we've faced have only strengthened our commitment to working together. Air force officers play a large role in overcoming those obstacles, and your work will be critical in the years to come.

The nature of being an air force officer has evolved over time, and the expectations placed upon you are different from what they were for previous generations. Information now travels instantaneously across the globe, gray zone operations blur the lines between competition and war, and new battlefields are emerging in cyberspace and beyond the atmosphere. In many ways, today is the most challenging environment that has ever existed for air force officers. You have to move faster, adapt quicker, and think deeper than your predecessors, and the stakes are only getting higher.

That said, certain leadership principles are timeless and serve just as well in the modern world as they have throughout history. Throughout my years of

as an air force officer, I have developed a set of guiding beliefs as to what makes an effective leader: you must be humble, approachable, credible, and strong. Humble, so you can learn from mentors, peers, those you disagree with, and those under your command. Approachable, so you can communicate with your airmen and have open avenues for feedback. Credible, so you can understand your mission and execute it to the highest level of competence. And strong, so that you can maintain an unwavering resolve when facing resistance. Prioritize developing these traits so you can lead your airmen through any challenge you might face.

These guiding principles have shaped me and led me to my current responsibilities - defending my home and fighting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s a leader, it is my duty to stand against threats to democracy and freedom. Now, you share in that duty. South Korea has a vibrant culture and a cherished democracy, both worth protecting. I am honored to share the strong commitment we both have toward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Our ironclad alliance contributes to the foundation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While we are individually strong, together we are unmatched. The unwavering commitment of the U.S. and Republic of Korea to each other is crucial as we face future challenges in the Indo-Pacific. By working together as air force officers in our respective services with all of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theater, we can ensure a brighter future. Remember to be humble, approachable, credible, and strong as you develop as airmen and officers. I am excited to witness your leadership in the years to come.

Katshee-Kapshee-Da!

리더의 조건, 3력을 길러라!

세상을 둘러보면 실력이 차고 넘치는데도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공부도 잘하고 자격증을 여러 개 딴 사람이 취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스펙이 좋고 시험성적도 좋은데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운이 따르지 않아서라고 여긴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평생을 통해 수많은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살아왔다. 매일 두 시간씩 진행하는 일일 생방송을 10년 이상 맡아서 수많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였다. 명강사 소리를 들으며 수십 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고 대학 총장을 할 때는 유명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모셔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였다. 수료한 분만 천 명이 넘는다.

모든 국가공무원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몇 년간 하면서는 우리나라 공무원 대다수를 만나보았다. 각 과정마다 직접 강의도 하고 학생들과 워크숍도 하고 현장 답사도 많이 하였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성공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력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3력이다.

3력이란 무엇인가?

실력, 답력, 매력. 실력은 자기 직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다. 실력이 있어야 자기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리더가 되려면 일단 자기 업무에 관한 실력부터 확실히 다져야 한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부하나 동료 따르지 않는다. 상사들도 신뢰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24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하지 않는다. 실력이 부족하면 리더십뿐만 아니라 경쟁력 자체를 잃게 된다.

담력은 굳건한 마음을 말한다. 결정적 기회나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여 기회를 살리고 위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다. 평소에는 이 담력이 숨어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담력이 있어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라를 구한 국가지도자나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은 모두 이 담력이 뛰어난 인물들이다. 담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갈고닦아서 기를 수 있다. 먼저 마음의 힘인 양심을 길러야 한다. 마음이 바를 때 정정당당한 태도와 담력이 나온다. 예로부터 자기 수양이란 이 마음공부를 의미한 것이다.

매력이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다. 한자 매(魅)는 도깨비라는 뜻이다. 도깨비처럼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어원에서 나왔다. 영어 Attraction도 사람의 마음을 ‘이끈다’는 어원에서 나왔다. 매력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보이는 매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거인’, ‘날개 없는 천사’ 등은 보이지 않는 매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붙는 찬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매력의 근본은 감성력이다. 사물이나 사람의 감성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매력이 길러진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사회일수록 매력의 힘은 더 중요하다.

사관생도는 장교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나라의 인재다. 임관하고 나면 상관을 보좌하고 부하를 통솔해야 한다. 또한 군에는 현역군인도 있고 군무원도 있다. 남녀가 함께 근무한다. 민관군 협업을 해야 할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달라진 군에 근무하면서 실력과 계급만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실력, 담력, 매력 3력을 길러야 한다. 3력을 갖춘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잠재력과 팀웍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3력을 갖춰 자유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며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The buck stops here”

여러분들은 해리 트루먼(前 미국 대통령)과 조지 마셜(前 미국 국무부장관)의 마셜 플랜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황폐해진 유럽을 재건하고 냉전시대에 우방국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그 이름을 ‘트루먼 플랜’이라고 하지 않고 실무 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하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 명패에 쓰여 있는 문구인 ‘The buck stops here(책임은 내가 진다)’처럼 공은 아래로 돌리되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리더십을 알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윤종규
(KB금융그룹회장)

이처럼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공은 아래로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더의 역할은 ‘가드너(Gardener)’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른다고 회피하면 오히려 정원사가 아닌 가시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시덤불이 아닌 정원사가 되어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털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또한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즉, 리더가 되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주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성장한 후배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사관생도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Abraham Lincoln & Peter Drucker)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학교,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에 들뜨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고 두근두근 기다려
집니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Singularity) 시대를 앞둔
시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광형
(KAIST 총장)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른 사람이 만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면 내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는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나의 미래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꿈을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설정한 목표가 미래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미래 예측입
니다.

나의 목표가 없으면 나는 다른 사람의 목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큰 꿈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후에야 이루어진다!

2022년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개발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해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시험발사 성공, 2022년 7월 19일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시험비행 성공, 2022년 8월 5일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 및 12월 27일 달 임무 궤도 안착까지 수년에 걸쳐 일어날 성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후속 성과는 2023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중도에는 많은 비판과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공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팀웍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선 담대한 목표를 이루는 꿈을 꾸면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주도적 역할을 한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주 분야 1호 엔지니어로 시작하여 우리나라 저궤도, 정지궤도, 달 탐사 사업 등 우주개발에 관여하며 유사한 상황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려운 순간의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이 분야를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과 열정,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늘과 우주의 중요성은 과학기술을 넘어 사회 인프라,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됩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공군사관생도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늘과 우주를 향한 큰 뜻을 품은 분들입니다.

한분 한분 모두가 열정과 노력을 다하여 자기의 큰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배울 것도 많은데 행복까지 배워야 하나? 배우고 노력한다고 행복할까?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왜 있겠어?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복은 마음이 아니라 뇌의 호르몬에 의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호르몬은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몇몇 해 전에 전국적으로 엔도르핀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웃으면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활성화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까지도 우리 기억 속에 자리를 잡아 맹목적으로 엔도르핀 찬양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도르핀은 중독성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엔도르핀은 뇌 과학적으로 자제 능력이 없으므로 계속 더 큰 자극, 지속적인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점점 더 좋고 강한 것을 찾게 되는 엔도르핀과 달리, 세로토닌은 중독되지 않고 잔잔한 행복감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와 감정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조절 호르몬’으로도 불립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긴장 넘치는 현대 사회에 진정으로 행복을 대표할 수 있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인 활동을 할 때 분비가 됩니다. 걷고, 심호흡하고, 그리고 명상을 할 때 가장 확실하게 분비가 됩니다. 명상을 다른 말로 하면 세로토닌을 가장 확실하게 분비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시형
(사단법인
세로토닌문화 원장)

본능적인 것, 찢고, 듣고, 걷고, 심호흡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자연의 향과 기운을 느끼면 우리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집니다.

공군사관생도 여러분! 제가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었던 장병들을 상담하면서 행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욱 복잡한 문제가 잔뜩 생겨난 지금의 장병들, 그리고 생도들은 각자가 나름 마음속에 더 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정신을 잘 되새기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sky is not the limit, it’s just the beginning”

미래에 우리 하늘을 지킬 공군사관생도 여러분!

땅과 바다는 엄연히 경계가 있고, 바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활약할 공간인 하늘은 무한한 우주로 끝없이 펼쳐져 한계가 없습니다. 사관생도 여러분의 역량 또한 한계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무엇이든 꿈꾸고, 무엇이든 성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공군의 활동무대는 하늘을 넘어 우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향후 30년간 공군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담아 ‘에어포스 퀀텀 5.0’을 발표했습니다. 퀀텀 5.0의 핵심 내용이 바로 항공 우주력 강화입니다. 한계가 없는 우주에서의 지휘통제체계와 전력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매일경제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Beyond Gravity’ 프로젝트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늘 넘어 우주에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있다는 것으로 공군의 퀀텀 5.0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력을 키우고 우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금의 공군사관생도 여러분들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캠퍼스가 대방동에 있던 80년대 초반 저는 교수부에 근무하면서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경영학과 정치학 등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공군의 미래는 우주에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무대는 하늘 넘어 우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생도 여러분들에게 ‘The sky is not the limit, it’s just the beginning.’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격언을 되새기면서 당장의 군사훈련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주 군사 역량을 기르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군사관생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미래형 인재상입니다.

하늘 넘어 우주의 주인공이 되어줄 것을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서울 ADEX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 10. 17(화) ~ 22(일)
서울공항

www.seouladex.com



PROVEN PERFORMANCE

Trent 700 - Powering the RoKAF KC-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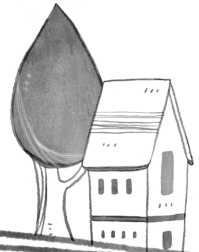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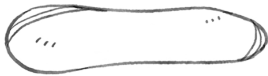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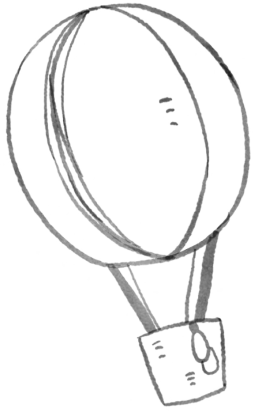
롤스로이스는 세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산업기술 기업으로,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350여대 항공기에 엔진을
공급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롤스로이스는 자주국방의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ww.rolls-royce.com/korea



동문 기고

- 140 옛 星武臺 정문앞에 서서 / 배기준(12기)
- 143 우주를 향한 나의 꿈 / 강전영(72기)
- 145 더 멀리, 더 높게 / 조원준(72기)
- 147 자랑스러운 전투조종사의 삶 / 허두기(7기)
- 150 어느 늙은 전투조종사의 인생 얘기 / 최성열(15기)
- 153 잊지 못할 나의 생도생활 사건 / 이상길(26기)
- 155 관악산 돌파훈련, 그 흑독했던 시작과 안타까운 마침표 / 송기준(25기)
- 159 대방동 별곡 / 김익래(16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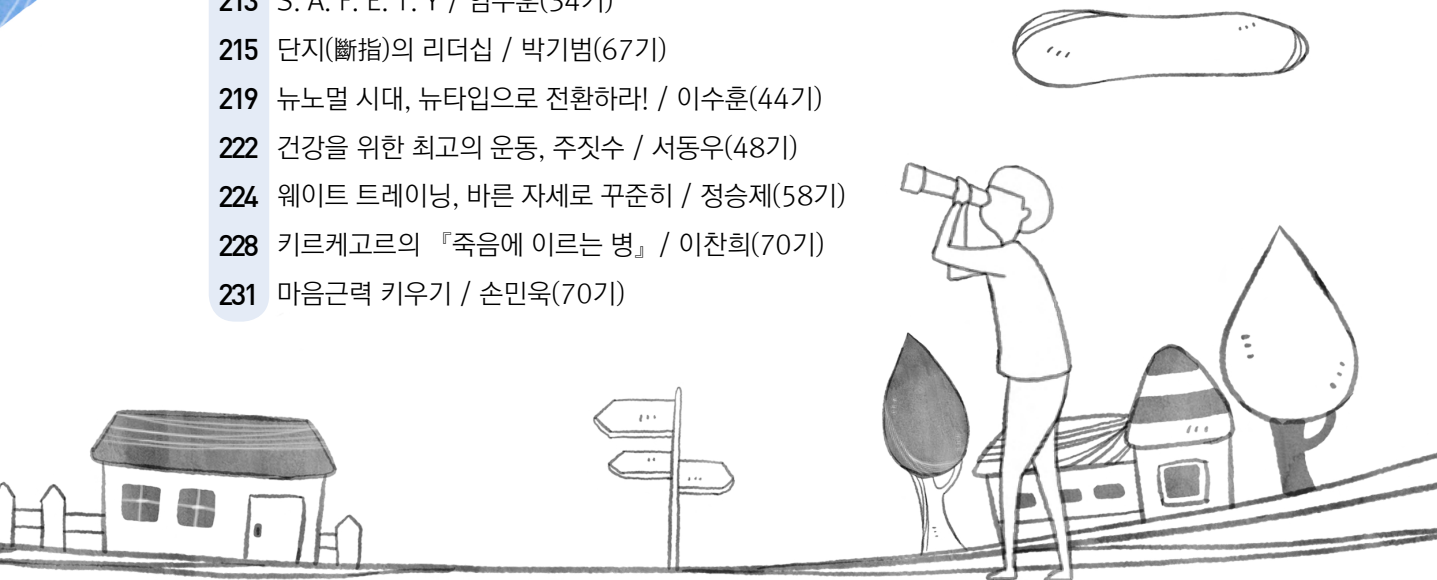
- 162 20기의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며 / 박동형(20기)
- 165 2023년 안보학술 세미나를 마치고 / 조보근(30기)
- 170 군사학의 태두,故 이종학 교수님을 기리며! / 김재범(34기)
- 173 백수무강(百壽無疆)의 꿈 / 김국창(7기)

- 176 나는 왜 철순을 지난 아내와 2천리 순례길을 걸었나 / 금기연(21기)
- 181 캠핑카로 울릉도에서 한 달 살기 / 장석원(23기)
- 188 히말라야(랑탕코스) 트레킹을 다녀와서 / 이연수(30기)



- 192 교통사고가 준 인생의 교훈 / 김병오(23기)
- 196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 류춘열(30기)
- 200 슬기로운 은퇴 생활 / 은진기(26기)
- 204 군화(軍靴) / 이두희(29기)
- 205 야간 초계 비행 / 강임구(24기)
- 206 빛바랜, 그러나 그리운 유년시절의 추억 / 이학주(30기)

- 209 이오지마섬이 주는 한일관계의 함의(含意) / 김학준(34기)
- 213 S. A. F. E. T. Y / 임수훈(34기)
- 215 단지(斷指)의 리더십 / 박기범(67기)
- 219 뉴노멀 시대, 뉴타입으로 전환하라! / 이수훈(44기)
- 222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 주짓수 / 서동우(48기)
- 224 웨이트 트레이닝, 바른 자세로 꾸준히 / 정승제(58기)
- 228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 이찬희(70기)
- 231 마음근력 키우기 / 손민욱(70기)





옛 星武臺 정문앞에 서서

- 天高馬肥 秋風落葉따라
대방동 성무대 정문을 가다 -



배기준(12기)

*대방동 공군사관학교에서 청춘을 시작하고 이제 팔순(八旬)을 넘긴 고개에 서서...



공사 제12기 가입교 날(1960 이른 봄, 대방동 옛 성무대 정문 앞)

어느 날 문득 나의 기억은 영사
기 필름처럼 60여 년 전으로 돌아가
기 시작한다. 葉落歸根(葉落歸根,
잎은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다)이라
했던가. 떨어진 잎 하나 뿌리를 찾
는 심정으로 기어이 집을 나섰다.

셋강역에서 채 십분도 안 걸려
보라매공원역에 내렸다. 당시만 해
도 이 동네는 흙먼지가 폴폴 날리던

서울 변두리 허허벌판이었다. 역 구내를 빠져 나와 여기가 어딘가 살펴보니 사관
생도라면 누구나 밟아야 했던 도로 그 중간이었다. 이 직선 아스팔트 진입도로는
여의대방로 농심 삼거리에서 학교 정문까지 줄잡아 250여 미터, 경사 5도 오르막
으로 가로수들은 열병이라도 하듯 삼열 종대로 줄 서 있었다.

수도자(修道者)의 길은 정결 엄숙해야 하듯이 이 도로도 늘 단정하고 무거운
정적만 가득했다. 속세(俗世)의 온갖 잡념을 다 버리고 오직 생도의 길로 들어가

* (註)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 일대는 옛 성무대 공군사관학교 캠퍼스가 있던 곳이다. 1958년 12월부터 1985년 12월
까지 27년간(7~37기생) 성무인의 보금자리였다. 필자는 잠시 학교입구 진입로에서 정문까지 걸어가면서 단상(斷想)
에 빠졌다.

는 단절(斷絶)의 긴 다리였다.

도도한 강물같은 쉬임없는 세월.

그 중심에 있었던 생도생활 4년.

가로 세로로 촘촘히 엮어진 애증(愛憎)의 기억들이 시공(時空)의 그물망에 걸려 하나씩 떠 오르기 시작했다.

첫번째로

공사합격통지서에 적힌 가입교 집합 장소가 사연을 품은 채 눈에 들어 왔다. 60년도, 잔설(殘雪)위로 꽃샘바람이 불던 어느 봄날, 정문 바로 오른쪽 인도(人道)에서 동기생들을 처음 만났다. 풋내 풍기는 검은 교복 차림으로 경향 각지에서 모인 낯선 얼굴들은 사관학교에 대한 호기심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긴장이 감돌았다. 생사(生死)의 전우로, 친구중에 친구로 길고 긴 인연이 맺어질 줄이야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두번째로 야간 M1집총 구보훈련이다.

오직 앞 생도의 흔들거리는 철모만 응시하면서 번호를 붙이기도 하고 빠르게 군가를 부르며 뛰고 또 뛰었다. 안양천을 돌아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신작로에서 학교 쪽으로 들어서면 마(魔)의 마지막 구간이 밤 어둠속에 버티고 있었다. 단내나는 뜨거운 입김, 가물거리던 축점, 발아래 둔탁한 군화 밟는 소리와 날카로운 호각소리가 뒤 쉼이며 뒤따라 오던 앰블런스 전조등 불빛 사이로 빠르게 흩어졌다. 비몽사몽간(非夢似夢間) 기절 직전까지 몰아 넣던 가혹한 경사 5도는 무정(無情)하기만 했다.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졸업전 여의도 비행장에서 L-19 관속비행을 하였다. 난생 처음 잡아 보는 조종간(操縱桿)이다. 종이같이 가벼운 꼬마 비행기의 심술은 보통이 아니었다. 잿빛



연기가 터지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여지없이 잠시 기억상실자가 된다. 고삐 한번 제대로 움켜잡지 못하고 내내 조롱만 당하다가 착륙을 한다. 저녁 무렵 비행훈련을 마치고 트럭 위에 서서 학교로 달려 이 길목에 올라서면 절망하여 잔뜩 풀이 죽어 있는 훈련 생도들에게 길가 나무들은 일제히 소리쳤다.

“괜찮아, 할 수 있다고, 기 죽지 마!”

격려성 호통소리가 귓전에 메아리쳤다.

졸업한 지 59년, 어찌 잊으리. 못다 한 정이 아쉬워 귀갓길 뒤를 돌아 보았다. 250미터 오르막 아스팔트 이 도로 위에 흘린 땀과 애환(哀歡)의 발자국들은 높은 가르침의 흔적으로 다가왔다.

‘먼저 인간이 되고 다음에 군인으로 가라!’

갑자기 고마운 마음이 울컥 덮쳐 왔다. 고동치던 가슴은 정문 언덕 위에서 있는 불멸의 성무탑을 향해 어느새 거수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내 인생, 영원한 스승 성무대!

멀리 가을하늘에는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고 노란 은행잎 하나 떨어져 뿌리로 가고 있었다. ✈



우주를 향한 나의 꿈



강전영(72기)

2020년 2월 17일, 부모님께 입학 신고를 했던 날부터 4학년 전대장생도로 살고 있는 오늘까지, 생도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1,200일을 향해 가고 있다. 민간 인과는 당연히 다른 생활을 할 것이라고 각오했지만, 생도대 역사상 전례 없던 2년여 간의 출타 제한과 함께한 생도 생활은 절대 쉽지 않았다.

코로나는 생도대에 많은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불러왔고, 생도대 문화 또한 급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생도들을 버티게 해주었던 원동력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대로 장차 대한민국의 영광을 수호하는 공군 장교가 되리라는 그들의 꿈이었다.

가장 편하고 좋을 줄만 알았던 4학년이 되어보니 미래에 대해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지난 3년과는 달리 내 꿈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생도가 되기 전 나의 꿈은 남들은 하지 못

하는 특별하고 명예로운 일, 남들은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낭만적인 일을 하는 것이었고, 하늘이라는 사무실에서 전투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나를 꿈꿨다. 그를 위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생도 생활을 하며 또 다른 꿈을 꾸었다. 1학년이 되어서는 3년 뒤 전대장생도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었고, 전대장생도가 된 지금은 임관 후의 새로운 꿈이 생겼다.

**하늘로! 우주로!
영원히! 사랑해!**

생도 생활 내내 외쳤던 우리의 파이팅 구호다. 습관처럼 외쳤던 구호지만, 나에게도 우주로의 진출이라는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 자극제였다. 우주 전장은 육·해·공을 넘어 모든 전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현재 나의 꿈은 임관 후 대한민국 공군의 일원으로서 우주작전을 주



도하고 우리 국군이 우주 강군이 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기본적인 우주공학을 바탕으로 초소형 위성, 우주기상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작년 우주작전대대가 창설되었고, 이후 우주작전전대 및 단급 부대인 우주작전단 창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425 사업, KPS 사업을 위한 초소형 위성, 우주기상 분야에 집중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군 우주 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가치 있는 정보 획득”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주 자산만으로는 정보의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기에 천문학, 물리학 등의 기초 학문 분야와 더불어 특히 레이저나 양자 물리, 광통신 등 우주 분야에 기초적인 자문이 가능한 군 내 전문가의 필

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군 선배님들께서 지금처럼 우주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우리 공군이, 대한민국이 우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이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엔 항상 무모하지만 원대한 꿈을 품고 있다. 나는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 얼마 전 3차 나로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듯이, 이 흐름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가 쏘아 올릴 유인 우주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로서 하늘을 넘어 우주로 더 높이 비상할 그 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





조원준(72기)

“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건배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건배 ”
- Maroon5, 'Memories'

이 노래처럼 우리 공군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가 있을까. 우리 공군은 공군이라는 늘 위험한 환경 속에서 영공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기나 가까운 선후배를 잃는 아픔을 종종 겪게 된다. 너무나 마음 아픈 순간들임에도 우리는 흔들림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걸어온 길에서 잃어버린 이들을 영원히 추억하며,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조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청춘을 성무대에서 사관생도로 보낼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사관학교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었고, 일반대학에서는 쉽게 하지 못했을 경험을 통

해 보람을 느끼기도 했으며, 때로는 사랑했던 이들을 떠나보내며 아픔을 겪기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나는 생도생활 중 학교의 지원을 받아 감사하게도 공적 해외 견학 등의 여러 외부 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2022년 9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 YKL(차세대 지식리더)로서 글로벌 석학들을 곁에서 수행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미국 공군사관학교 International Week에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생도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생도대 바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그들과 대화하며 나와



다른 환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고, 격의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법을 배웠다. 앞으로도 공군 선배님들께서 다양한 국가, 군과의 교류를 통해서 후배 생도들이 생도대 바깥으로 뻗어 나갈 기회의 창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L-4 경항공기 10대에서 시작하여 6.25전쟁 초기 직접 손으로 폭탄을 투하하며 싸웠던 우리 공군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 머지않아 'KF-21 보라매'라는 우리가 만든 첨단 전투기로 우리 영공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막

강한 공군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공군 선배님의 희생이 있었던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5세기 바다를 개척했던 대항해 시대처럼 21세기를 넘어 22세기는 우주 개척의 시대가 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공군의 정예 장교이자 조종사가 되어서 우주공군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 지중해의 변방국에서 대항해 시대의 패권국으로 자리 잡았던 포르투갈처럼 나는 우리나라도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모험과 개척을 하는 우주강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



자랑스러운 전투조종사의 삶



허두기(7기)

나는 태몽에 비행사였다고 한다. 당시 안창남 비행사가 한국 최초의 비행사로서 모국방문 순회 비행을 하는 시기였기에 못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어린 시절 무심코 들던 태몽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6.25 한국 전쟁이었다. 그 당시 나의 부친은 빨갱이에 붙들려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가족은 뿔뿔이 헤어져 이산 가족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바라 볼 때마다 조종사가 되어야겠다는 충동이 북받쳐 올라 왔다. 공중에는 철책도 없고 마음대로 날아가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조종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동시에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연호인 단기 4288년, 서기 1955년 소위 짱 5년 짱 8년에 공군 사관학교 제7기로 입교하여 4년간의 사관학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조종 훈련 과정인 미 공군 Primary Jet Training Course(초등훈련과정)와 더불어 Basic Course(중등비행과정)와 Advance Course(고등비행과정)에 선발되어 미 공군 조종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2년간의 비행 훈련 과정을 이수한 연후 조종 홍장을 바라 볼 때마다 학과장(Class Room)에서 구름 위에서 땀과 피와 노력의 결정체로 이루어 낸 값진 결과임을 자부하고 싶었다.

귀국 후 조종 교관으로서 후진 양성에 전념한 결과 연이어 4대에 이르는 공군참모총장을 훗날 배출하게 되었다. 2011년도 건군 제 63회 국군의 날을 맞이해, 호국 용사로 선정된 것은 나와 함께 하늘을 누볐던 전우들의 덕택이라 여겨진다. 50여년 전 무공수훈을 다시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어 그저 만감이 교차할 뿐이다.



1971년 6월 1일 새벽 03:50, 나는 F-5B로 야간비상대기 중 서해 소흑산도 근해에서 간첩선을 추격해 격침한 바 있다. 그 당시 AC-46 조명기는 적의 대공포화에 격추돼 승무원 전원이 전사했고, 후속 AT-33은 피격되어 비상 착륙한 치욕의 상황이었다. 당시 작전 해역은 서쪽은 칠흑같이 캄캄했고, 동쪽은 수평선 너머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였다. 그때 때마침 육안으로 어렴풋이 물줄기를 발견했다. 수상하다고 여겨 표적정보(Target Information)를 받은 후 확인차 식별("ID" pass)을 시도하는 순간, 물줄기가 지그재그를 그리며 중국 본토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이 아닌가?

선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물줄기 상방향에 타깃을 겨냥했다. 2.75인치 로켓 19발이 내장된 "LAU-3"를 발사하려는 순간, 대공포화가 번개처럼 작렬했다. 탄막을 이리저리 헤치며 네 번에 걸쳐 물줄기를 공격하고 나니, 물줄기는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침몰하는 선체를 볼 수 있었다.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제 임무를 끝마치고 기지로 복귀해야 한다. 고도를 유지하면서 연료를 체크하니 하필이면 귀환 연료가 부족한 게 아닌가, 즉각 최적 순항고도(Best Cruise Altitude) 33,000피트로 상승하면서 레이더 관제소에 상황을 알리며 지상관제정밀접근(GCI-GCA)으로 기지 귀환을 시도했다. 최적순항고도를 유지하면서도 연료계기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연료가 점점 줄어들 때마다 마치 피가 마르는 듯했다. 온 몸은 어느새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왔다.

이 순간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가는 생각이 있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몇 번이나 다짐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신께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니,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기지를 향하여 마지막 연료가 고갈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활공하여 가급적 육지에 보다 더 가까이 비행하기로 결심했다. 비상 연료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비행하는 심정이란, 정말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실수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이랄까.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심리 상태이리라 생각됐다. 지상관제정밀접근(GCI-GCA Straight Approach)으로 비행하면서, 극한의 상태에서 비행하기란 내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구름을 뚫고 활주로 끝에 안착하니 때마침 연료가 딱 고갈됐다. 돌이켜 생각

하니,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이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잔여 연료로 도저히 귀환할 수 없는 비행거리를 날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성층권의 제트기류(Jet Stream)가 110노트(knot)의 배풍으로 불어 준 까닭에 순풍을 단 듯 순항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외부 장착물을 순간순간마다 적기에 투하한 것 등이 유효했다고 한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과 적절한 임기응변 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한 사람의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6.25 중 MIG-15로 귀순한 노금석 대위가 받은 보상금이 10만 불이었는데, 당시 한 사람의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이 무려 8만 불이었음을 감안하면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한 사람의 단독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용이 기종에 따라 무려 50억에서 135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막강한 공군력으로 밤낮으로 폭격하는 속에서 영국을 구한 것은 얼마 안 되는 영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였으며,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국회 연설에서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수의 조종사에게 그렇게 큰 빛을 진 적은 없다.”(Never in the human conflict was so much owed by so many to so few)라며 조종사들을 극찬한 바 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펄벅 여사의 “늦었지만 안한 것보다 낫다”(It's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말처럼, 50여 년이 지난 지금 호국 용사로서 노고를 위로하고 업적을 칭찬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감사할 뿐이다.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 몫이다.”라고 했다.

기회는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미래의 운명은 개척하는 사람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대기하며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고 ‘고진감래’의 희열을 직접 체험해 보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 하루를 소중히 여겨 지금 이 순간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어나는 꽃처럼 여생을 살고자 한다. 또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회에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조용히 다짐해 본다. ➡



어느 늙은 전투조종사의 인생 얘기



최성열(15기)

화창한 봄날이다. 바람 한 점 없이 가라앉은 뜰에는 지난밤에 불던 바람에 흩날린 벚꽃잎들이 눈처럼 하얗게 내려앉았다. 세상이 멈춘 듯 그림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아침이다. 봄별만이 뜰에 화사하게 내려앉는다. 나도 고요함 속에 묻힌 세상에 정물이 된 듯 마루에 앉아 뜰을 내다보고 있다.

고요가 지배한 세상.

이 때 잔잔한 호수에 물방울 하나 떨어지듯 아주 작은 흔들림 하나가 마당저 끝 보리수 아래에 설핏 감지된다. 거리가 제법 되기에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 세계에 어떤 침입자가 들어온 게 분명하다. 시선을 목표 지점에 모으고 초점을 맞춘다. 들 고양이 한 마리가 보리수나무 그늘 속에서 살그머니 움직이는 게 보인다. 순간 옛날 전투 본능이 꿈틀 살아난다. 잠시 흔들렸던 그림이 다시 고요 속에 묻힌다. 들 고양이가 한 동안 꿈쩍도 않고 엎드려만 있다.

그러더니 살짝 엎드린 자세에서 왼쪽 앞발을 소리 없이 앞으로 뻗는다. 이번에는 오른쪽 앞발이 가만히 나간다. 처진 엉치를 당기며 슬그머니 몸이 앞으로 나간다. 모든 게 정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해도 너는 죽은 목숨이다.”

옛날 공중전투기동을 하며 적기를 포착했을 때 혼자 하던 말이 불쑥 튀어 나온다. 공중전에서는 먼저 보는 눈이 승자다. 세상사 그렇지 않은 일이 어디 있으랴마는 특히 공중전에서는 목표를 먼저 포착한 자가 자기 방식대로 상황을 요리하고 공격해서 승리와 함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거다. 우리는 그 때 숨을 데 없는 하늘에서 적기의 후미로 들어가거나 눈부신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곤 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가능한 먼 원거리에서 적기를 포착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했다. 이 즈막에야 레이더가 발달돼 강릉에서 원

산 비행장에서 뜨고 내리는 적기도 포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종 단계에서는 조종사가 육안으로 포착해서 최후 기동으로 모든 것을 결판내야 한다. 우리는 그 당시에 30~50km 밖의 적기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대략 서울에서 수원, 평택 정도의 거리다.

물론 원거리와 근거리 목표물에 재빠르게 시선의 초점을 맞추는 훈련도 했지 마는 멈춰 선 듯한 광활한 공간에서 살짝 스치듯 지나가는 작은 미동도 놓치지 않는 것이 큰 단서가 되기도 했다.

선배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에이스 조종사들은 기차를 타고 가며 선로 옆 전신줄에 앉아 있는 새 떼의 숫자를 헤아렸다고 했다. 이 또한 나의 적기 포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훈련 방법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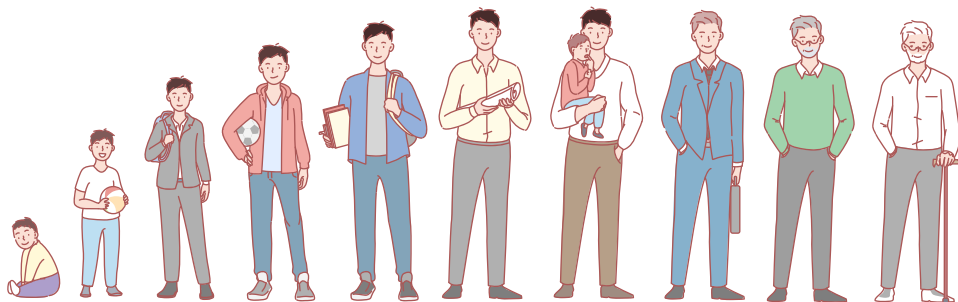
또 호기심이 발동해 어떤 때에는 통상 기동하던 6~9km 상공을 벗어나 작심하고 끝없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렇게 15~18km 상공 정도 올라가면 푸른 하늘은 사라지고 시커멓고 컴컴한 하늘만이 무섭게 다가오곤 했다. 그리고 희박

한 공기 밀도로 항공기는 내 뜻대로 조종이 되지 않고 훌라훌라 제 멋대로 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처럼 우리는 무한 공간을 회롱하며 젊음을 보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지구도 그 자체가 신비요, 경이다. 또 지구의 크기도 기울기도 자전과 공전의 속도도 누가 그리 정확하게 계산해서 만들었는지 생각할수록 불가사의다. 남들은 나이 들어가며 매사에 점차 관심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나는 경이롭고 신비한 것들이 자꾸 더 많이 눈에 띈다. 우주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다. 아니 외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인생 그 자체도 경이로움 중에 하나다.

인생이란? 하는 주제를 놓고 동료들과 토론하던 기억이 있다. 나는 그때 누구에게든 들었던 얘기에 나름대로 살을 붙여 이렇게 주장했다.

인생이란 A, B, C, D 라고 했다.

여기서 B는 출생(birth)이고 D는 죽음(death)이다.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태어나서 그리고 죽는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죽음





을 향해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C를 하며 산다고 했다. 즉 그것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비교하고 판단하며 행동을 선택(choice)하며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선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을 변화(change), 발전시키고 기회(chance)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살려 도전(challenge)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다.

그런데 인생은 20대에는 아주 느리게(adagio)로 가다가 30대에는 보통 빠르게(Andante)로 4~50대에는 점차 빠르게(Andantino) 간다고 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아주 빠르게(allegro)로 가다가 그 이후에는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도록 간다고 했다. 그래서 인생은 ABCD라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다. 한창 비행하던 그 시절에는 그 C 중에서 먼저 보고 먼저 때리

는, 즉 기회를 포착하면 놓치지 않고 도전해서 성취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삼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젊음, 그 호기심, 그 도전 의식은 다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었다. 그저 이제는 날고 날아서 내려앉은 이 한적한 시골 마당이 내생의 전부가 되었다. 그리고 한가로이 옛일을 되새김질 하는 노병으로 남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소망하는 것은 오로지 평안함(calm) 뿐이다.

뜰에 조용히 내려앉은 평화를 음미하며 숨 가뻐던 전투조종사의 삶을 음미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인생의 발견이 아니고 무엇이랴 싶은 생각을 하며 위로로 삼는다. 이제 와서 혹 인생이란 질문에 대한 또 다른 토론이 있다면 그 답 마지막에 평안함(calm)이란 말을 더 추가하고 싶다. ✈

잊지 못할 나의 생도생활 사건



이상길(26기)

「HUMAN ERROR」 이 말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근무 중 저지르거나 겪게 되는 수많은 실수와 인적 오류를 뜻하는 용어인데, 거의 50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회상하다 보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나의 생도 생활 ‘human error’ 사고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6년 어느 가을날이었다. 당시 사관학교는 군기 확립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신체적·물리적 압박을 허용하던 시절이었다. 그날도 생도대 군기확립 주간을 맞아 훈육관님 한 분이 아예 생도대에서 상주하였고, 나는 3학년 작전보좌관 생도로 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다. 작전보좌관생도는 점호 및 소등, 기상 벨을 관장하는(머리 쓸 일 없이 시간 맞춰 벨만 울리면 되는) 아주 단순한 일을 맡는 직책이었다.

그런데 1학년 때 시계 고장으로 30분 늦게 귀영하여 일주일 간 반성 무장구보를 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던 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잠을 설쳐가며 비몽사몽 아침 점호시간만을 기다렸다.

희미한 복도 불빛으로 시계를 쳐다보니 드디어 5시 40분 정도가 된 것 같아 간단하게 세수 후 정복을 차려입고 방송실에 앉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각 6시에 기상벨과 함께 방송멘트까지 날렸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모두 힘차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시다.”

드디어 내 할 일을 잘 마쳤다는 셀프 대견함까지 느끼면서 복도로 딱 나왔는데, 당시 당직 총사령 생도였던 25기 모 선배님께서 웃도 제대로 못 입고 의전용 칼을 손에 들고 복도로 허겁지겁 나오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왜 미리 준비를 안 하셨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때 복도 옆으로 지나가는 일반 생도들의 투덜거림이 순간적으로 내 귓속에 파고들었다. “아이 xx, 오늘은 왜 5시부터 깨우고 난리야.”, “점호시간이 바뀌었나?”...

‘어랍쇼, 이게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지? 그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설마 하고 시계를 다시 보는 순간, 분명히 6시를 지나고 있어야 할 시계가 어이없게도 이제 5시를 지나고 있지 않은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만 다시 눈을 부릅뜨고 보아도 분명 5시였다.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방송실로 뛰어 들어가 “전 생도 한 시간 더 재 취침” 애원하다시피 수정 방송을 하고 나오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절감하면서, 그야말로 ‘멘붕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후배 생도들에 대한 미안함은 우선 제쳐두고, 서슬 퍼렇던 25기 4학년 선배들의 단잠을 망쳐놨으니...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이 종친 기분이고, 왜 시계가 6시로 보였는지 아무리 머리를 뜯으며 자문해 봐도 이해가 안됐다.

6시 점호시간이 될 때까지 낮이 나간채 방송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이를 악물며 한가지 결심을 하였다. 앞으로 내게 닥쳐올 어떤 고난과 시련도 모두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 성경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모두 감내하며 반드시 이겨내고 말겠다는 다짐을 수십 번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건의 결말부터 말하면, 600여 명 전체 생도들 기상시간을 한 시간이나 당겨 놔오니 선배들에게 끌려가 ‘덕석 말이’(명석말이의 방언)를 당해도 할 말 없다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만나는 선배마다 혼내기는커녕 “다른 선배들에게 많이 혼났지?”, “힘내!”, “너무 기죽지마” 등등 온통 위로와 격려만 받고 그 순간을 무탈하게 넘기게 되었다. 사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워낙 대형사고이다 보니 다른 열성과 선배들이 불려다가 나를 엄청 혼냈을 거라고 지레짐작해 안쓰럽게 생각한듯 했다. 이제 나이 70을 바라보면서 그때 일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혈기왕성했던 생도생활 중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한 것 같아 혼자 얼굴 붉히며 옛날 일을 회상해봅니다. 어리숙한 저 때문에 생도시절 단잠을 빼앗겼던 당시 25, 26, 27, 28기 생도님들께 다시 한번 더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

“인간은 통계학적으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2만 개의 행위를 하며 그중 2번의 실수를 하게 된다. 이때 그 실수의 20%는 감지되지 않으며, 이 중에서 25%, 즉 실수의 5%가 심각한 실수로 분류된다”
- 정석 산업 안전 연구소 -



송기준(25기)

관악산 돌파훈련, 그 혹독했던 시작과 안타까운 마침표

관악산 돌파훈련은 진해에서 대방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한 후에 실시하였다고 전해오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공군사관학교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1958년 12월 12일에 진해에서 서울 대방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해보면 8기분들이 1학년 말 때이다. 그렇다면 다음 해인 1959년에 입학한 9기분들이 1학년 때 시작하였다면 이후 각 기수가 처음 참가하는 횟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관악산 돌파훈련은 1974년 25기가 2학년이 되었을 때 훈련참가생도 1명이 사망하는 돌발 사태로 중단되고 그 이후로 마침내 영구 전설이 되어 버린다.

관악산 돌파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는 걸어서 행군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시간 단축 경쟁이 되어 뛰기 시작하였다 한다. 그것도 생도대에서부터. 그러다 실신하는 생도가 많이 발생하여 생도대에서부터 출발하던 것을 관악산 입구까지 차량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구보를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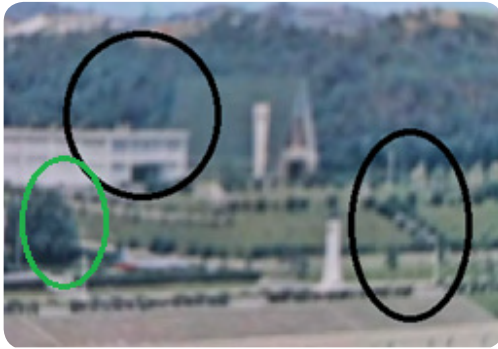
관악산 돌파훈련은 꼭 4월에 실시한다. 그래서 “죽음의 계절”, “죽음의 4월”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하였으나 시 구절에서의 잔인함과 관악산 구보에서 느끼는 잔인함은 전혀 의미가 상통하지 않는다.

관악산 돌파훈련은 3월 말 생도 졸업식과 임관식이 끝나면 각 편대에서 서서히 시동을 걸며 관악산 돌파훈련에 대비한 연습을 한다. 매일 일과가 끝이 나면 약식무장으로 편대별로 모여 구보 연습을 하며, 실전 돌파 일주일 전부터는 완전무장 구보를 한다.

처음 몇 번은 정문과 후문 그리고 연병장 외곽을 한 시간 정도 달린다. 그러다 한 주가 지나면 모든 편대가 일제히 경사가 급한 지역과 계단 오르기를 연습한다. 학교 내에 경사진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가장 즐기는 코스가 산꼭대기에 있는 장교회관으로 올라



가는 계단과 생도회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평지를 구보하다 이곳을 올라갈 때는 참으로 힘이 든다. 이러한 경사지만 골라 연속적으로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많다. 낙오자가 속출한다. 그만큼 훈련이 혹독하다.



마(魔)의 계단

좌: 충효 호국비천탑 우측, 식당 좌측에 있는 생도회관 올라가는 계단
우: 장교식당과 보일러실 사이에 공대 올라가는 계단

결전 하루 전날 참가하는 전 생도에 대한 군장 검사를 하고 배낭을 싣는다. 생도는 배낭에 넣을 품목을 규정된 대로 침대에 늘어놓는다. 편대를 바꾸어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모포를 제외하고 배낭을 싸도록 한다. 그런 다음 하얀 천에 매직으로 쓴 편대별 번호를 나눠주어 배낭 뒤에 바늘에 실을 꿰매어 부착한다. 1번에서 100번까지 번호가 부여된다. 화이버 앞에도 종이에 번호를 써서 풀로 붙인다.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바뀐 편대 임원들이 번호 부착 상태와 규정된 군장품이 배낭에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날 밤 취침에 들어간 생도들 중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악몽을 꾸는 생도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화이버의 앞과 뒤에 번호를 부착하였다.

드디어 결전의 날, 관악산 입구에 도착한 모든 생도를 편대별로 출발시키면서 생도편대장이 초시계로 Time Check을 실시한다. 편대별로 신호총에 의하여 시차를 달리하여 출발한다.

“따양!” 생도편대장이 한발의 신호총을 발사한다.

“야!” 구령과 함께 모든 생도가 초긴장하여 뛰기 시작한다. 메추리의 심장이 쫓깃쫓깃해지고 심장 박동소리가 들릴 정도로 “벅벅벅벅 버벅벅” 3/4 박자로 뛰던 심장이 16분의 1박자로 세차게 두근거리며 뛰기 시작한다. 초기 경사도가 적고 길이 약간 넓은 곳은 두 사람이 나란히 뛰다시피 올라간다. 한 생도가 구령을 붙인다. 나머지 생도도 흐름에 따라 “으샤! 으이샤!” 힘을 보탠다. 어느 정도 뛰어가니 갑자기 속도가 떨어진다. 경사가 심하고 한 명밖에 가지 못할 좁은 길에 들어선다. 지금부터는 구보가 아니고 신속한 등반이 시작된다.

총이 버거워진다. 한 손에 총을 쥐고 한 손으로는 나무와 바위를 잡고 올라간다. 이제는 박자가 맞지도 않는다. 제각각 “영차 영차!” 소리치면서 자기최면을 걸고 그냥 앞만 보고 올라간다. 앞이 얼마나 경사지고 주위에 뭐가 있는지 볼 필요도, 기억할 수도 없다.



바위투성이 코스



급경사 등정



낙오 생도와 함께

자신이 밟을 내딛는 곳의 형태만 보고 안전하게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가다보면 어느 정도 완만한 경사지도 나올법한데 이놈의 산은 왜 이러는지 갈수록 경사가 더해진다. 악산(岳山)이라서 그런지 악이 받쳐 오른다. 힘에 부치기 시작한다. 대열에서 쳐지는 생도가 발생한다. 편대별로 모든 생도가 정상 고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Check 하여 제일 적게 걸리는 편대가 우승한다.

선두가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낙오자가 생기면 그 생도가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이 돌파 시간이다. 다만 발이 뻘뻘하거나 혹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부상자 발생 수에 따라 감점이 된다. 대열에서 이탈되는 생도가 생기면 다른 몇 명의 생도가 총과 군장을 들어준다. 도와주는 생도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아니 더 힘이 든다. 남의 군장까지 챙겨서 들어야 하고 부축하여 정상에 오르니 얼마나 더 힘이 들까! 관악산의 마지막 8부 능선부터는 기어 올라가야 한다. 경사가 60~70도나 된다.

드디어 낙오된 생도까지 다 올라오니 그 시간을 잰다. 편대장과 훈육관이 모두 모여서 잰 시간과 낙오자가 최종으로 들어온 시간 등을 따져서 점수를 매긴다. 1등, 2등, 3등,



마지막 정상에 오르는 생도들 : 편대장과 훈육관이 지켜보고 있다.

4등 편대가 가려진다. 환희와 실망, 승리와 패배, 그 표정, 그 모습, 자신들의 가슴에 맺힌 심정을 잊을 수 없다.

이제부터 칼같은 신상필벌에 들어간다. 우선 승리한 편대는 차를 타고 편하게 귀영하게 된다. 1등을 못한 편대는 걸어서 귀영하는데 특히 맨 꼴찌 편대는 구보로 귀영해야 하는 치욕을 당해야 했다. 차를 타고 돌아

온 편대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듯하다. 타 편대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시간에 얼른 목욕한다. 일등한 편대는 지금부터 3박 4일 외출, 외박, 특박이다. 꼴등 편대는 불쌍사나운 얼차려 잔치가 벌어진다. 승리한 편대 생도는 자신들의 감정을 감춰야 한다. 생도회관이나 내무실에서 기분을 내는 행동이나, 통기타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일 년 후, 전년에 꼴등한 편대는 올해(1974년)는 기필코 명예를 회복하고 그동안 ‘와신상담’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미리 강훈련을 해야겠다고 계획한다. 멤버도 바뀌었다. 새로운 26기가 들어오고 22기는 졸업하였다. 타 편대보다 10분이라도 더 연습해야 하고 강도도 높여 기어코 올해는 1등을 할 것이다. 이 편대는 3학년 생도를 중심으로 뿔뿔 뭉쳐 정말 강훈련을 실시한다.

아!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26기 김아무개 생도가 연습 구보를 시작한 일주일 후쯤 사망을 하게 된다. 사망원인은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서 심장마비가 온 것이다. 구보 훈련 중에 “어지럽다”하고 쓰러졌는데 바로 의무대대로 후송하였지만,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였다.

기본 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다 이겨낸 생도가 관악산 구보 훈련 중에 숨졌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사건 이후로 관악산 돌파훈련은 없어졌다. 대신 다른 훈련으로 대체된다. 몇 년 후 생도들은 관악산 돌파훈련 대신 무장 구보만 했다는 후문도 있다.

훈련을 훈련 자체로 끝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편대별 경쟁 구도에 집어넣기에 엄청난 훈련을 하였음에도 그 결말은 sad ending으로 막을 내려야 했다. 한편으로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투조종사의 투혼을 극한으로 올리기 위한 극기 훈련이라 그런가보다 라고 의미도 부여해 본다. ➡



김익래(16기)

몇 해 전 아내가 서울 보라매 병원에 며칠간 입원한 적이 있었다. 병동(病棟) 6층 복도 오른쪽 끝에는 환자들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루는 그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을 뽑아 들고 창가에 다가섰다가 “와아!” 시야에 들어 온 전경에 놀라움의 탄성이 절로 흘러 나왔다. 옛 성무대의 전경이 어느 한 곳도 가려지는 곳 없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가. 마치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보는 느낌이었다. 저곳이 생도전대, 저곳은 교수부 그리고 체육관, 의무대, 생도식당, 도서관, 수영장, 호수, 사격장... 가물가물 잊혀져 가던 50여 년 전의 잔상(殘像)들이 또렷한 실상(實像)이 되어 펼쳐졌다. 이리저리 훑어보다 와아! 또 한 번의 놀라움! 바로 눈앞 가까이에 들어온 초록색 지붕의 피라미드형 건물! 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건가! 그 역동의 변화에도 용케 살아남은 교회건물, 최근 문화재로 등록되었다든가. 그 유일한 생존자를 낫 놓고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울렁거린다. 5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 곳곳에 담겨진 낭만의 감성들이 가다가닥 건드려져 나왔다.

마가린 한쪽!

선배들이 모두 등지 밖으로 외출나간 주말, 아직 날개짓을 못하여 등지에 남아야 하는 메추리들, 그날의 생도식당은 메추리들의 천국이였다. 그 누구보다도 메추리의 애환(?)을 잘 알고 있는 마음 착한 식당 아주머니가 어머님처럼 챙겨 주신다. 2학년 선배의 배식 눈치 안 봐도 되니 등지 속 메추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아니던가. 따뜻한 보리밥에 마가린 비벼 8인용 밥통을 서너 명이 훌쩍, 부러울 게 없다. 평소 다식은 보리밥에 마가린 으깨어 먹던 맛과는 천지차이다. 지난번 누군가가 “아주머니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딱딱딱한 하얀 쌀밥에 마가린 비벼먹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던지 그날은 마가린도 두세 쪽씩 챙겨주신다. 등지 속 메추리에게 최고의 날
이었다.

김 생도는 밥알을 세나?

나는 유달리 식사 속도가 느려 늘 핀잔을 받았었다. 2학년 때이던가 어느 날 전
생도가 식사가 끝났는데 아직 숟갈을 들고 있는 나를 발견한 최재구 전대장 생도,
“김 생도는 밥알을 세나?” 우렁찬 호령에 식당 내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스팀 아웃

6명씩 생활하는 한 내무반에 라디에이터 두 개가 한겨울을 지켜주었다. 몹시
추웠던 겨울 저녁 점호시간 메추리 제 6내무반, 군기근무 생도가 문 앞에 들어서
자 내무반장의 이상유무 보고 “제 6내무반 이상 유 스팀 아웃” 그 목소리는 어찌나
컸던지 2층의 전 내무반에 웃음을 선사했다. 그날 저녁 우리 내무반은 추위에 덜
덜덜 떨며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망토 주머니의 담배 한 갑

즐거운 주말 외출, 동기생 세 명이 대전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은양
생도의 삼촌이 근무하고 있는 신탄진 담배공장에 들렀었다. VIP 대접을 받으며 연
초 제조과정을 참관한 후 선물 한 세트씩 받아들고 통일호 열차에 올랐다. 며칠 후
어느 날 내무검사, 내 캐비넷 망토 주머니에서 발견된 담배 한 갑, 아뿔싸! 그날 담
배공장에서 새로 출시된 ‘신탄진’이라는 여섯 개비 들이 스포츠 담배를 방문객에
게 기념으로 넣어준 그 담배였다. 다른 생도들은 바로 버렸는데 그 담배갑이 너무
나 예쁘고 신기해서인지 망토 주머니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으니 이를 어찌랴. 지
금도 그 담배갑은 디자인까지 선명하게 기억의 창고에 남아있다.

외출검사

복장 상태, 구두 광택, 두발 상태, 마지 왼쪽 주머니에 비상금 300원, 오른쪽 주
머니에 하얀색 손수건, 두 명의 군기근무 생도가 앞줄부터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도 검사해 온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 오른쪽 주머니에 손수건이 없다.
“김 생도 외출 중지! 군기근무실에 가서 대기해” 잠시 후 군기근무실에 들어온 임

용원 군기근무 생도,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며 “깨끗이 빨아서 돌려줘 알았어? 잘 놀다 와.”

미스16기 선발

입교 후 처음으로 사격훈련이 있던 날, 태어나 처음 해 보는 사격, 호기심 반 긴장감 반으로 사격장으로 향했다. 따스한 봄날 사격장 방호벽 둔덕에 피어있는 보라색 제비꽃이 긴장감을 달래주고 마치 봄 소풍이라도 나온 듯 아늑함을 준다. 1차 사격이 끝나고 휴식시간, 사격지도 생도 장덕수 선배가 전통에 따라 16기 생도 중에서 여자처럼 가장 예쁘고 날씬하게 생긴(?) 미스16기를 선발하겠다. 전원 만장일치로 선발되었다. 그 이후 희수(喜壽)를 넘은 지금까지도 동기생들과 만나면 미스 김으로 불려지곤 한다.

하늘과의 첫 만남 여의도 비행장

폐쇄 직전의 여의도 비행장은 썰렁했다. 난생 처음 와보는 비행장, 곧게 뻗은 활주로가 마치 천상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 같이 아지랑이를 타고 출렁거렸다. 바로 그날 그 구름다리를 건너 여의도 하늘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선배 조종사가 우리를 맞았다. “어이 김 생도, 하늘은 왜 파랗지?”라는 느닷없는 질문에 “질소가 푸른색을 반사...”라고 대답하자 “됐네, 됐어, 하늘은 하늘이니깐 파랗지”, “그 옆 박 생도 비행기는 어떻게 날지?”, “저- 공기가...”, “됐네, 됐어, 하늘이 있으니 날지” 죽 뻗은 활주로같이 논리가 생략된 직선적인 대화, 푸득 푸득 곧 멈출듯 말듯 푸득 거리며 활주로를 굴러가던 프로펠러가 이내 내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올렸다. 붕 뜨는 느낌도 잠시 곧 활주로를 뒤로 밀어내고 한강철교가 다가섰다. 한강 백사장이 저렇게도 넓었든가, 아이들이 날리는 방패연이 손에 잡힐 듯하다.

확 트인 비행장, 하늘과 땅을 하나의 생명체로 이어주는 곧게 뻗은 활주로, 얼떨결에 들여다 본 하늘 언저리, 교내 학과장과는 빛깔도 냄새도 다른 또 하나의 신선한 세계가 내 앞에 다가왔다. ✈



20기의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며



박동형(20기)

2022년은 공사 20기생의 임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동기생들은 1968년 2월 대방동에 소재한 공군사관학교에 125명이 가입교하여 메추리 기본군사훈련부터 생도생활을 시작하였다. 지금도 그해 2월 성무대 연병장에서 매서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받았던 힘든 '가입교 훈련'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이후 4년간의 생도생활 시절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관한 지 50년이나 되어 우리의 마지막 공식행사라고 할 수 있는 임관 50주년 행사를 갖게 된다니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행사를 보다 알차고 보람되게 준비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김성일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선배기수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18기, 19기 선배기수들은 임관 50주년 행사를 치르지 못하였다. 우리도 역시 행사 준비를 위한 대면모임을 가지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통신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동기생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우리는 동기생 홈페이지에 '50주년 행사' 메뉴를 만들어 행사 관련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였고 핸드폰의 카톡이나 메시지 등도 적극 활용하였다.

우리도 선배기수들처럼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공군사관학교에서의 공식 행사, 공사 발전기금 출연, 기념여행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다. 공사에서의 기념행사는 20기만의 기념행사가 아니라 총동창회의 '임관 기념행사'에 포함되어 임관 10, 20, 30, 40주년이 되는 동문들과 함께 임관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임관 50주년이 되는 최고참 기수를 우대하여

행사가 진행된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 행사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 행사가 개최되었지만 2022년에는 5월에서 10월로 연기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11월 5일에야 겨우 개최될 수 있었다.

2022년 11월 5일 드디어 공군사관학교에는 총동창회 임관 기념행사를 위해 약 1,000여 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모였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 성무연병장에는 멋있는 의장대 및 군악대 공연에 이어서 후배 사관생도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연병장에 입장하여 행사가 시작되었다. 선배들의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연병장에 정렬한 후배 생도들은 늠름하고도 믿음직스러웠다. 20기를 대표하여 김성일 회장이 기념사에서 우리 동기생들과 연병장의 사관생도들이 '50년의 세월을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열대에 앉아있던 우리 동기생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우리도 50년 전에는 사관학교에서 '공사십훈'과 '명예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체력단련과 훈련으로 땀을 흘리며 하늘의 용사가 되고자 푸른 꿈을 키웠었다. 생도 4년간의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임관 후 우리는 주어진 조국 수호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었음을 어찌 잊을 수가 있을 것인가. 마침 연병장에 설치된 화면에서는 50여 년 전 우리의 생도시절 생활 모습들을 담은 화면들을 비춰주어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행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 동기생들이 모두 도보로 열병을 한 것이었다. 어느새 70대 노인이 된 우리들이 50년 전의 우리 모습을



2023년 안보학술 세미나를 마치고



조보근(30기)

성무안보연구소는 2021년 7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창립되었다. 연구소는 미래 지향적인 국방정책과 군사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그리고 사회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올해 창립 3년 차를 맞아 초기 기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소 창립 첫 해부터 실시해온 ‘안보학술 세미나’는 올해로 3회째이다. 성무안보연구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아 세미나를 계획하고 시행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여 향후, 동문들이 다음 세미나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쓴다.

2022년 1월부터 공군사관학교 제30기 동기회 운영을 맡은 정경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향후 2년간 동기회를 운영할 방안을 구상하는 일과, 1년 후 총동창회 운영을 담당하는 기수로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연초부터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논의의 장(場)은 월 1회 정도의 대면회의와 2주 1회 정도의 줌(Zoom) 화상회의였으며, 논의를 거듭하면서 7, 8명의 임원들의 의견이 항목별로 가닥이 잡혔다.



따라서 연초에 2년간의 동기회 운영 방안과 적재적소에 역량을 발휘할 책임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총동창회 운영 준비에 초점을 맞춘 가



운데 자연스럽게 내년(2023년) 안보학술 세미나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필자는 연구소장으로서 최근 몇 년간 시행된 항공우주력 및 공군력과 관련된 세미나별 주관부서, 주제, 소주제, 발제자, 토론자 등을 종합한 자료를 정리하여 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학술본부 임원들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2월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채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지상전·소모전 양상으로 5개월째 전개되는 상황에서, 공중우세 확보와 정밀타격을 통한 조기 전쟁 종결로 요약되는 현대전의 전형(典型)으로 여겨지는 걸프전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당시 진행 중이었으며, 또한 어떤 변수로 어떻게 변화될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략적인 방향으로만 설정해두고 전쟁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기로 하였다.

2023년 1월부터 공사 30기가 총동창회 운영을 맡으면서 총동창회 임원진과 연간 행사계획을 확정된 정기이사회 이후, 연구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안보학술 세미나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적으로 세미나 시행 시기를 검토하였는데, 종전에 11월 하순에 시행하였던 것은 2021년 7월에 연구소를 창립한 후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세미나 개최 시기는 11월 하순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올해는 10월 중순에 ADEX 행사가 계획된 점을 고려하여 7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성무안보연구소 안보학술 세미나는 공군사관학교 동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소중한 기금 중에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투여하여 시행하는 행사인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충실한 내용으로 공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본격 준비에 착수하였다.

다음으로 세미나 주제는 지난해에 미리 검토해두었던 「걸프전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제언」으로 선정하였다. 소주제는 두 전쟁을 비교하되, 국가정책·군사전략·지휘체계 분야와 작전수행·무기체계운용·군수지원 분야, 그리고 인재양성 분야로 세분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 3가지 분야에 발제와 토론을 맡을 분과 기조연설과 사회자와 특별 제언을 맡을 전문가는 많을 것으로 보고, 공군을 잘 알고 전문성과 명망이 높은 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논의 결과, 첫 번째 소주제는 「걸프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비교·분석」으로, 부제(副題)를 ‘전쟁양상·국가정책·군사전략·지휘체계 등 중심’으로 설정하고 아산정책연구원 양 옥 박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인 유용원 기자가 맡기로 하였다. 두 번째 소주제는 「미래전 대비 작전 및 무기체계운용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부제를 ‘작전수행·무기체계운용·군수지원 중심’으로 정하고 숙명여대 김광진 교수(공사 37기)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방위사업분야 전문가인 김일동 전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맡기로 하였다. 세 번째 소주제는 「미래전에 대비한 인재 양성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부제를 ‘공사생도 교육·간부 양성 중심’으로 선정하여 국방대 부총장 역임 후 현재 사단법인 국제안보교류협회장인 한용섭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국방연구원 조남훈 박사가 맡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 3가지 소주제 외의 안보 관련 주요 분야에 대한 특별 제언은 사이버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와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한 이양구 대사가 맡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사회는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공군사관후보 70기)이 맡기로 섭외가 완료되었다. 개회식 축사는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대명제 하에 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과 국방위원 안규백 의원께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기조연설은 서울대학교 김태유 교수가 맡기로 하였다. 3월 하순, 모든 순서를 맡을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문가임을 알 수 있었으며, 세미나 날짜로부터 3개월 반 정도 남아 있어 다소 넉넉한 편으로 생각되었다.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비롯하여 사회, 발제, 토론, 특별 제언을 맡을 전문가가 모두 결정된 후, 이 전문가들과 연구소 이사장 및 임원진과 사전 협의를 겸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일정상 모든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발제 내용이 곱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의문 사항이나 연구소와 공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기조연설문, 발제문, 토론문, 특별 제언문 등의 원고 제출 일정을 제시하였다. 일부 전문가는 “여러 세미나에 발제 등으로 참여해보았지만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며, 발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시기가 4월 하순이었으니 세미나까지 2개월 반 정도 남아 있으므로 일정상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연초부터 서둘러 진행한 결과라는 점에서 미리 착안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다음에 노력을 집중한 부분은 세미나 개최 안내 및 초청장 발송과 사전 홍보를 통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 초청장은 공군,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언론계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분야 연구기관, 안보단체 회원, 대학 연구자, 방위사업체, 역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예비역을 대상으로 일반 우편 초청장 또는 전자우편 초청장을 발송하여 참석 희망 시 회신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의 협조로 국방일보 등 다수의 언론 매체에 세미나 개최 안내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다수의 타군 출신 예비역 장교가 참석 신청하기도 하였다.

세미나를 2주 앞둔 상황은 바둑으로 비유하면 ‘초읽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박하였다. 축사, 기조연설문, 발제문 원고 접수 후에 토론문을 요청하고, 특별 제언문, 전문가 경력자료, 토론문 원고 접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미나 자료집 인쇄를 위한 초안 검토를 마치고 출판사에 발간 의뢰하는 일을 숨 가쁘게 진행하였다. 그 다음에는 세미나 참석을 회신한 230여 명의 명찰을 제작하고, 좌석 및 기념 사진 촬영 시 개인 위치 확정, 만찬 소요인원 판단, 안내 계획 등을 준비하였다.

마침내 7월 6일 세미나 당일, 장마 기간 중 조금 덥기는 하였지만 맑은 날씨라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계획된 시간에 맞추어 개최된 세미나는 약 20여 명의 30기 동기들의 헌신적인 지원활동으로 전반적으로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었으며, 개회식에 이어서 전문적인 발제와 진지한 토론, 그리고 특별 제언을 끝으로 세미나를 마치고 이어진 만찬까지 원활하게 마무리 되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는 모든 분께 강구영

동문이 사장으로 재직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협찬한 기념품을 드리게 된 점이 무척 고마웠다. 세미나를 주관한 연구소장의 입장에서 행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며, 평가는 제3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세미나에 참석 하였던 한 예비역 육군 장교가 필자에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 “오늘 성무안보연구소 안보학술 세미나는 강렬한 이미지로 시기와 상황에 시의적절한 의제 선택과 발표와 토론과 특별 제언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며, 매우 유연한 진행이 돋보였다.”라고 호평한 사실을 참고로 소개한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세미나를 계획하고 시행할 동문들이 참고할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세미나 시행 시기를 미리 계획하여 주제/소주제 선정과 발제, 토론 등을 맡을 전문가를 가능하면 조기에 결정하여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의 일정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초청장 우편 발송 또는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관련 부서장 또는 총괄 부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로 참석을 독려하면 참석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셋째, 축사, 기조연설문, 발제문 등의 원고 제출 시기를 세미나 날짜로부터 3주 정도 여유를 두고 설정하여야 토론문을 접수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발간 의뢰하기 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행사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연구소 임원 외에 잔손질이 많이 가는 일을 도와줄 지원 인원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행사 당일에는 다수의 지원 인원이 있어야 등록, 안내 및 행사장 내부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끝으로 제3회 성무안보연구소 안보학술 세미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정경두 이사장을 비롯한 30기 임원진과, 도움을 주신 공군, 국회연락관실, 방위사업청, 공군호텔 관계관, 그리고 세미나에서 순서를 맡아 주신 전문가분들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강구영 대표께 연구소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군사학의 태두, 故 이종학 교수님을 기리며!



김재범(34기)



이종학 교수님!

국가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군사학을 학문의 수준으로 개척하시고, 다수의 군인을 군사학의 길로 이끌어 주시던 풍석(風石) 이종학 교수님의 영전에 이 글을 바칩니다.

2022년 12월 말, 대부분 사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연말을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전역 5년 차인 나 역시도 계룡과 서울을 오가면서 군사학 강의를 통해 후배 양성의 보람 있는 시간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의 다가옴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군사학 연구의 선배이자 영남대학교에 적을 두고 계시면서 경주 인근에서 교수님과 친밀한 내왕을 하시는 노양규 박사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나의 가슴을 쿵하고 짓눌렀다. 존경하는 스승 이종학 교수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슬픈 소식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슬프고, 국가적으로는 큰 별이 떨어지는 안타까움에 정신없이 대전으로 움직였다. 민간 최초로 군사학 학위 과정을 개설한 충남대학교의 배려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상을 치르게 되었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수도 경주를 대한민국 군사학의 성지로 만들고자 뜻을 두신 교수님의 유지(遺志)를 받들고자 경주 수남길 생가에 교수님의 유분(遺粉)을 모시기로 하였다.

충남대학교병원에서는 사흘동안 교수님이 떠나가심을 아쉬워하는 많은 제자와 여러

기관 관계자들의 방문과 연락이 계속되었다. 이런 후학들과 국방안보 관계자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교수님도 편안하게 영면에 들어가셨을 것으로 믿는다.

故 이종학 교수님의 일생은 『나의 학문과 인생』(2009)이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군사학 연구를 하시게 된 동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군사학 연구보다는 영어 등의 일반 과목의 시간이 더 많은 현 군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걱정, 평생 모으신 재산을 군사학 발전을 위해 충남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 기부하신 동기 등 군사학과 관련된 많은 사안을 일일이 기록해 놓으셨다. 또한 군사학을 연구하는 후학들이 가야 할 방향을 담은 『60대 이후의 인생 전략』(2022)을 집필하시기도 하였다. 많은 책 중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 책으로는 『웨드마이어 회고록과 논평』(2014)이다. 교수님께서 책을 편찬하시고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국제정치의 희생물로서 6.25전쟁과 똑같은 상황이 미래 한반도에서 또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울려왔다.

교수님께서서는 평생 46권의 옥저를 집필하시면서 군사학이 가야 할 방향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군사학 박사 200명 양성을 주창하시기도 하였다. 강조하신 말씀 중 군사학 연구와 관련하여 평생의 지식을 담은 교수님의 명언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독립과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비하라.
그리고 국민·국토·주권의 수호도 전쟁의 대비에서 비롯됨을 명심하라!

- 風石 李鍾學 -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군사력 건설과 결정적 시기에 군사력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뒷받침 해주는 이론적 배경이 군사학의 기능이다. 이처럼 중요한 군사학의 태두이신 故 이종학 교수님의 후학들은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던 ‘서라벌군사연구소’를 ‘풍석기념관’으로 만들어 생전에 사용하시던 유품과 저서, 군사자료 등을 전시하고, 매년 군사학 연구모임을 개최하여 군사학 총서 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추도 기간 중 방문해주신 많은 제자 분들과 조의를 표해 주신 공군참모총장님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故 이종학 교수님 49재 추도사를 이 지면을 빌려 올리면서 故 이종학 교수님의 영면을 두 손 모아 빕니다. ✈



故 이종학 교수님 49재 추도사

오늘 우리는 군사학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故 이종학 교수님을 추모하고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별이 되신지도 벌써 49일! 먼저 교수님의 영면을 빌고, 사모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군사학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신 교수님의 그 빛나는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큰 바위는 되지 못할지언정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돌이 되겠다.”는 뜻으로 風石이라는 호를 지으셨다는 교수님은 이제 ‘군사학의 태두’이시자, ‘군사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으며, 제자들에게는 한국 군사학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신 ‘큰 바위 얼굴’로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학문과 인생』을 통해 “나는 아직 현역이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며 단호한 의지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교수님! 작년 『60대 이후의 인생 전략』을 발간하시고, 살아생전 마지막 남은 일은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업적과 친일파 등의 각종 논란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하셨던 교수님께서서는 결국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시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뿌리신 군사학이란 씨앗들은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온 누리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학 박사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군사학은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군사학 연구를 통해 국가의 안보에 기여 하라.’고 하신 교수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수님의 온화한 미소를 볼 수 없는 오늘 이 자리, 저희 제자들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비록 교수님은 떠나셨지만 저희들 가슴 속에는 영원한 별이 되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부디 극락왕생하시어 생전에 꿈꾸셨던 ‘군사학이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홀로 남으신 사모님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승에서의 모든 근심, 걱정 훌훌 털어버리시고 부디 평안히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5일. 故 이종학 교수님 제자 일동

백수무강(百壽無疆)의 꿈



김국창(7기)

“만수무강하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섯 살짜리 꼬마 녀석이 나만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래 너도” 할 수만은 없어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여주며 “참 착하구나”하고 칭찬하면, 녀석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꾸벅 조아린다. 덩달아 내 기분도 즐겁고 상쾌하다.

꼬마는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고 이 녀석의 할아버지는 나보다 서너 살 아래지만 연배(年輩) 노인이 없어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손자에게 9층 할아버지를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친 모양이다.

장수(長壽), 장명(長命) 및 만수(萬壽)는 다 오래 산다는 뜻이지만 실제 우리가 주로 쓰는 인사말의 표현은 ‘만수무강’인 이유는 무엇일까?

‘만수무강(萬壽無疆)’이 ‘아무 탈 없이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란 건 다 알지만 그러나 사실상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오래오래 산다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수무강해야 한다.

인간학을 연구해온 미 코넬대학의 칼 필레머 교수는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 1,000명에게 “당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설문(設問)을 했다.

‘부자가 되지 못한 것, 출세하지 못한 것, 가족을 잘 챙기지 못한 것’ 등의 답을 예상했지만 그가 얻은 답은 ‘너무 근심 걱정만 하며 살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자존심이 강하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걱정과 불안감 속에 매몰되어 행복을 팽개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걱정이나 불안은 스트레스를 촉발해 두통, 발열, 피로, 불면증 및 소화장애 등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병적 요소란다.

또한 일본의 저명한 의사이자 마음의 병 치료사인 '와타나베 준이치'는 그의 저서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진정 행복해지고 싶다면 예민함과 초조함에서 벗어나 '둔감하게 살아 보라'고 권한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어떤 일이든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아량도 이 둔감함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교적 평탄하게 망구(望九)의 인생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지난 1월 말, 추위를 피해 응접실에 들여놓았던 화분을 햇빛이 찾아든 베란다로 옮기다 실수로 넘어지는 변을 당했다. 허리를 다쳐 기절할 정도로 엄청난 통증에 시달리며 응급실로 실려 갔다.

나의 짧지 않은 인생 여정(旅程)에서 처음 저지른 낙상(落傷)사고였지만 노년을 망치기에 충분한 사고였음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절감했다.

치료를 마친 의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꼼짝 말고 침대에 누워지내야 탈골된 척추뼈가 원상 복귀되고 다시 걸을 수 있다"며 신신 당부를 한다.

침대에 누워 1주일쯤 지나니 통증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오고 식사할 때와 화장실 출입할 때마다 심한 고통과 불편이 따른다.

1950년대 중반 메추리 시절 10km 집총 구보의 마지막 1km를 견뎌내던 그 고통과 인내를 회상하며 이를 악물고 통증과 싸우며 악마 같은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 달을 참아 냈다.

두 달째에 접어드니 내 인내력에 한계가 드러나며 소화불량에 두통까지 온다. 드디어 합병증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노인이 낙상하면 재기(再起)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나를 긴장시키며 괴롭힌다.

이 심각한 갈등의 와중에 정신과 의사 '와타나베' 선생의 말이 떠오른다.

'예민하고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걱정과 불만이 많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원인 모를 두통, 몸살, 소화불량,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된다'며 마음을 둔감하게 가져보란다.

‘둔감한 마음이 스트레스로 인한 병은 물론 잡념이나 불면증 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노년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 바로 그거다’라는 생각이 번뜩 내 머리를 스친다.

투병 생활로 심약해진 나에게 걸핏하면 찾아와 머리 속을 점령하는 ‘염려나 잡념’을 지우기 위해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의 간다.

마음먹는 대로 금방 ‘둔감력’이 발휘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 어찌하나? 결국 둔감력을 기르기 위한 ‘마음 훈련’을 해 보기로 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머리와 가슴과 입까지 총동원하여 “둔감하자! 보다 둔감하자!”를 주술처럼 외우며 한 달여에 걸쳐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제법 둔감해진 감이 왔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달! 그동안 훈련한 ‘둔감력에 낙관적 사고’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이제 한 달만 견디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작용하니 침대에 누워있는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 다가오기까지 한다. 3개월간의 병상 생활로 잃은 것이 많지만 얻은 것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위로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득은 고정관념이 깨지고 ‘사고의 틀’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우선 내 사후(死後) 처리(장례, 상속 등)의 간소화 방향을 세우고 잡다한 생각들을 털어내니 머리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이제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매사에 감사하며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갈 준비가 마련된 것 같다.

5월 초,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평소 다니던 앞산까지 오르내리다 보니 힘도 생기고 매사에 자신감이 붙는다.

드디어 지난 6월 5일, 4개월여 만에 처음 지하철을 타고 1시간 10분 만에 동작역에 도착, 20여 분을 걸어서 국립묘지 현충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

동기생들을 만나니 사지에서 생환한 기분이랄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눈물이 날 정도였다.

나이 들수록 소외감이나 고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정적 사고와 둔감력’을 견지해 간다면 만수(萬壽)는 못해도 백수무강(百壽無疆)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낼 생각이다. ➡



나는 왜 칠순을 지난 아내와 2천리 순례길을 걸었나



금기연(21기)

4월과 5월 두 달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이 네 번째로 칠순을 넘긴 아내와는 처음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지난 해 연말 뒤늦게 온 가족이 코로나19를 겪은 뒤 자신이 애쓰다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겪은 코비드의 축복”,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밴드, 23.03.31)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 수녀가 되려고 했습니다. 두 아이를 다 키워내고 일흔이 넘은 지금도 매일 새벽 미사를 다니고, 몇 시간씩 혼자서 기도를 하는 심하다고 할 정도의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 일요일에만 미사에 참석하는 저보다는 아내에게 순례길이 훨씬 더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순례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아내의 권유로 인한 것이었고, 언젠가는 함께 가기로 오래 전 약속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서 회복하면서 서둘러 항공권을 구입하고 준비와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왔고, 히말라야도 세 번 트레킹 했지만(“랑탕 히말라야-천천히 걸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정상”, 사람과 산, 2012. 05, “칼라파타르 빛의 신비를 맞본 역전의 빨간 마후라들”, 월간 산, 2015.03) 저에게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넓은 땅덩어리를 자랑하는 미국인이나 호주인도 인정하고 감탄하는 광활한 대지와 변화무쌍한 경치, 그 안에 전해오는 무궁무진한 이야기, 필요할 때면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는 순례자들, 천년의 문화를 현실에서 체험하게 해주는 현지인들 등등. 그 길에서 순례자들은 서로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난다고 합니다. 덕분에 순례길은 세상의 어떤 길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깊게 다가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사정도 답을 수 있습니다.

799km, 2,000리. 두 발로 걷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걷는 것이 취미이고 오랜 산행과 암벽등반에 익숙한 사람에겐 초짜인 테다 변화에 예민한 여자와 함께 걷는다는 자체가 엄청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참아냈습니다. 다짐도 많이 했습니다.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순례길이 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50여 년이나 저만 보고 살아준 고마움을 행동으로 보답해 주고 싶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그때가 생각난다고 하니 어느 정도 저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니, 이런 곳이 있었네. 왜 지난번에는 몰랐지?” 하며 감탄할 정도로 같은 길을 걸어도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달라지거나 어떤 한 부분이 변화하면 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새로운 풍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접해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피사체도 그 속살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참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어 처음 도착하는 론세스바예스의 대규모 공립 숙소가 수용인원이 넘쳐 체육관에 잠자리를 마련해도 모자라 몇 십 명이 택시로 다음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전에는 별로 보이지 않던 미국, 태국, 중국 등에서 온 순례자도 제법 많이 보였고, 이름을 처음 듣는 나라에서 온 사람도 만났습니다. “어, 부부가 왔네.” 할 정도로 드물게 보이던 부부들도 이번엔 상당히 많았는데, 은퇴한 노부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호수에서 조류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만난 중학교 선배님의 권유로 70여 점의 작품으로 세계적 권위의 미국 사진협회(Photographic Society of America, PSA)에서 인증을 받은 것(PSA #70987708, 2022.11.30.)이 이번 순례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외 없이 출입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숙소에서도 미국사진협회 인증작가임을 밝히면 어디서나 사진촬영을 위해 밤늦게 또는 해뜨기 전 출입이 가능해지기도 했으니깐요.

큰 산을 넘나들던 동기 산행이 나이가 들면서 돌레길이나 역사 기행 위주로 바뀌는 와중에 흔히 하는 말이 “한 방에 흑 갈 수도 있다.”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도 나오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먼저 닥쳐버렸습니다.

40일이 넘은 어느 날,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자꾸 몸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도랑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이상해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뇌졸중의 초기 증상입니다. 이중 어느 하나만 나타나도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야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혼자서 많이 피곤한가 보다 생각해서 가능한 한 많이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제 입이 조금 돌아갔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쉬며 걷기를 조정하여 무사히 2천 리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말은 여전히 조금 어눌하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약간의 피로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귀국해서도 열흘 넘게 먹고 자기만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가 보다 생각해서 충분히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만나고 온 아내가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미니 뇌졸중. 매일 10km 이상을 걷고, 담배는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았으며, 술 또한 막걸리나 와인 한 두 잔이 고작. 게다가 20년 전 직장암 수술 이후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등 저의 생활습관을 이야기하자 담당 전문의도 상위 1%라며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남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자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답을 들려 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70이라는 나이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운 좋게 천우신조로 가볍게 넘어갔지만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른다며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난생 처음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고혈압약은 중단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시속 5~6km로 빠르고 힘찬 걸음걸이가 회복이 되었고 몸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아직 어눌한 말씨와 쉼 목소리로 인해 말하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떨결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조심하며 지내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불구로 90을 사느니 지금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조심하며 지낸다고 못할 일도 없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몇 시간씩 장거리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든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초짜 조종사 시절부터 마주한 비행사고와 장례식 등을 통해 죽는 연습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20년 전 우연히 대장암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재검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암이 확실하다는 의사의 말을 난생 처음 듣는 순간 정말로 세상이 하얘지더군요. 연습을 많이 한 효과가 금방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하였고, 그럼 ‘아내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이어 오빠와 언니가 살아 있고 여유가 많으니 걱정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니 웬지 모르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나고요. 의사가 당장 수술을 해야 한 다기에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에 걸리면 당연히 죽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하지도 않았고, ‘왜 하필 내가 ~~’ 하며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연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 맏이입니다. 당시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암선고를 받던 날에 어



머니는 끝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래서 ‘아들놈은 키워봐야 헛것’이라 하는 모양입니다. 뒤늦게 알아채고 나니 너무 어머니께 죄송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실직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여 어머니랑 단둘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곤 해마다 단둘이서 매년 5월 국내 여기저기를 여행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가셨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는 시간들입니다.

“넌 아니라지만 우리가 볼 땐 지랄이야.” 어느 동기가 아내와 다녀온 순례길 얘기를 듣고 내뱉은 한 마디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좋아서 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겐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보인 모양입니다. 백두대간을 시작으로, 혼자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지역을 다녀온 뒤 여러 동기들을 데리고 두 번 더 에베레스트 지역 등 해발 5천 미터까지 올랐습니다. 순례길도 이미 세 번이나 다녀왔는데 이번엔 칠순을 넘긴 아내와 함께 그 먼 길을 갔다 왔습니다. 전역 후 코칭과 강의로 2막을 열더니, 환갑을 맞아 도전한 암벽등반에 빠져들었고(“나는 왜 환갑을 지나 암벽을 오르나”, 성무 제43호, 2014. 7.) 번역과 글쓰기에 이어 차박으로 전국을 누비고 다닙니다. 삼복더위에도 새 사진을 찍으려고 종일 띄약벌 아래서 버티기를 열흘씩 계속하기도 합니다.

현역 때는 여러 가지 벽을 넘어야 했지만 전역 후는 그런 장애가 없어졌으니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앞으로도 무엇이든 해보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 지랄(^^)을 계속할 겁니다. 누가 뭐래든 금기연은 금기연이고, 그 맛을 잃으면 이미 금기연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

캠핑카로 울릉도에서 한 달 살기



장석원(23기)

드디어 울릉도로 출발

8년 동안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던 세컨하우스를 처분하고 새로운 취미 생활을 위해 캠핑카를 구입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했다. 캠핑카 이름을 “쭈니”라고 정하고 쭈니와 함께 현역 시절에 다녀보지 못한 섬을 위주로 다니려고 마음먹고 이곳저곳을 생각하던 중 공중에서 보기는 했지만 직접 땅을 밟아보지 못한 울릉도와 독도여행을 한 달 정도 다녀오기로 계획을 세워 8월 30일 출발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실망이 크지만 오래전부터 계획해 온 일정이라 포항으로 출발 했다. 집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여 쉬엄쉬엄 갔더니 오후 3시에 도착하였다. 울릉도행 배가 밤늦게 출항을 하므로 포항 시내 인근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비가 많이 내려 계획된 일정을 포기하고 죽도시장 구경으로 대체하였다.

밤 11시 50분에 출항하는 “뉴시다오펠호”를 타기 위해 영일만 항에 도착했으나 차를 배에 선적하기 위해 승선권을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다. 혹시 도착하자마자 물을 채우기 어려울까봐 청수통에 물도 채우고 냉장고에 먹거리도 채웠더니 차의 무게가 무거워 예약했을 때보다 추가요금이 필요하



하선된 쭈니



울릉도 어시장



다며 차량 선적비만 편도 317,000원을 요구한다. 비싸긴 해도 선적비를 지불하고 배로 가니까 차량 하부가 낮아 선적이 어려울 수도 있다니 또다시 난감 했지만, 다행히 선적을 마치고 배에 승선을 하고나니 안심이 된다.

배에서 잠을 설치고 여명이 밝아오는 31일 아침 6시 20분에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울릉도 사동항에 도착해서 하선까지 마치고 나니 진짜 울릉도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쭈니와 울릉도 여행 시작

사동항에 도착하자마자 울릉도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저동에 있는 웰컴 센터로 가는데 도로가 울릉도답게 오르락내리락 구불구불거려 운전이 신경이 쓰인다.

울릉도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구경하기로 하고 거북바위로 갔는데 파도가 너무 심해 해변에 정박을 못하고 첫날 정박지는 구암마을로 변경하여 갔으나 여기서도 비가 내려 우중 캠핑을 할 수 밖에 없다. 울릉도 주민들이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었는데 특히 바닷가에서 캠핑을 할 때는 예고 없이 너울성 파도가 덮치기 때문에 급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가 있어 피신을 고려해 꼭 차를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차를 해야 한단다. 그래서 야간에는 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잠을 잤다.



나에게는 울릉도에서 보는 일몰이 가장 아름다웠다. 더구나 쭈니와 함께 보는 일몰은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다. 본격적인 울릉도 여행을 앞두고 석양과 함께 와인으로 축배를 들면서 앞으로의 여행과 캠핑 일정이 무난하게 마쳐지기를 기원하였다.

처음 정박지로 선택한 구암마을은 샤워장, 화장실이 잘 구비되고 매일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 쾌적하고 캠핑하기에 좋은 장소다. 이틀을 구암마을에서 보내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는데 청수가 필요해 인근 가게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채우고 가라고 하신다. 구암마을로 오는 도중에 비가 와서 들리지 못하고 지나친 남양마을 우산국 박물관에 들리 전시된 유물들을 구경하고 인근 일몰전망대에 올라 동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탁트인다.

여러 사람들이 캠핑하기 좋다고 추천하는 학포 해변으로 무리하게 언덕길을 내려가 니까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캠핑카는 주차할 수 없다고 여기저기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다음 추천지인 태하 2리로 가서 모노레일을 타고 대풍감 전망대에 올라가 대풍감과 주변 경관만 보고 다시 이동해야 했다. 울릉도 일주 도로가 개통되기는 했지만 많은 마을 진입 도로는 경사도가 급하고 도로 폭이 좁아 안전운전이 요구되는데 쭈니는 덩치가 커서 조심해서 모는 수밖에 없다. 언덕을 넘어 현포에 있는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앞에 정박을 하고 주변경관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질 않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로 접근중인데 울릉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울릉도 섬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나는 키가 높아 바람에 취약한 쭈니를 어디로 대피시켜야 할지 막막했다.

3일째 밤을 해양연구기지 앞에서 보내고 초강력 태풍이 몰려 온다는데 현포나 천부로 가서 정박할 장소를 찾아보니 모두가 바닷가라서 갈만한 곳이 없지만 그래도 태풍을 피해 지대가 높은 나리분지로 가기로 정하였다. 태풍의 영향이 미치기 전에 볼거리도 보고 즐길 것은 즐겨야겠다고 마음먹고 천부에 있는 해중전망대, 가수 이장희가 거주 한다는 울릉천국, 예림원, 성불사, 송곳바위 등을 구경하고 천부 바닷가에 정박한 후에 콩치물회랑 통문어 짬뽕 등을 맛나게 먹고 하루 밤을 보냈다.

다음날 경사도가 높은 길을 겨우 올라가 나리분지에 도착하였다. 캠핑하기 좋은 장소에 주차한 뒤 인근 상인들과 안내소 직원들에게 물었더니 바람이 바닷가 보다 더 심하게 불고 중간 도로가 산사태로 붕괴되면 고립될 수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저동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라고 했다. 할 수 없이 경사진 길을 다시 내려왔더니 브레이크에서 타는 뱀새도 나



쭈니 창밖으로 보는 일몰



성당에서 바라본 바다



고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서인지 엔진도 뜨겁다. 그래도 겨우 학교 앞에 도착하니까 교문은 꼭 잠겨 있고 차량 출입금지라고 한다. 정말 난감해서 울릉군청에 전화를 해도 뽀쪽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천부성당 영성센터에 연락을 하니가 빨리 오라고 해서 성당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고 영성센터에서 숙박을 했다. 천부성당 영성센터에서 하루 밤을 보내는 동안 밀린 빨래도 하고 잘 쉬기는 했는데 아직은 태풍전야의 고요함을 보는 듯이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없는데 사람들은 차를 높은 지대로 옮기고 태풍 대비에 분주한 것을 보니 조금은 두려웠다.

태풍이 올 때 울릉도는 상점이며 식당, 관광지 심지어 낙석이 있을까봐 도로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태풍 대비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차를 결박할 수도 없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아웃트리거만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밖은 고요하고 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태풍이 소멸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에서는 바다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10시 30분 정도부터 비람이 몰아치고 나무가 넘어질 듯 두 시간 정도 요란스럽다. 이윽고 오후가 되니까 바람만 조금 있을 뿐 청명한 하늘로 변했다. 태풍 때문에 천부성당에 머물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정보도 얻었는데 하루 밤에 숙박비만 천만 원이 넘는다는 빌라 옆에 쭈니를 세워두고 환상적인 일몰과 같은 전망을 보고 있으니 나도 부자 여행객이 된 느낌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관광지가 운영중지 되어 스케줄이 조금 바뀌었지만 얻는 것도 있으니 인생은 새옹지마 인가 보다.

울릉도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캠핑카는 정박지에 세워두고 버스로 다니면 주차나 운전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편할 것 같아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로 했다. 버스요금은 서울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식재료는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T머니를 사용해서 버릴 수 있다. 울릉도에 온지 10일 만에 성인봉 등산을 했는데 쭈니와 같이 올라올 때 보다 시간은 걸려도 식사하면서 호박 막걸리도 한잔 할 수 있

고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나리분지에서 성인봉 올라가는 길은 원시림이 둘러싸고 있는데, 투막집을 지나고 열심히 계단을 오르다 보면 정상에 다다른다. 나리분지에 갈 때 버스 기사님이 성인봉 표지석까지만 가지 말고 30m만 내려가면 뷰가 좋은 곳이었다는 조언을 하길래 가봤더니 가슴이 뻥 트이는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내려 올 때 바위틈에서 나오는 신령수도 마시고 점심은 나리촌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과 오징어, 파전 그리고 호박막걸리까지 먹었는데 역시 산행 후 먹는 음식은 꿀맛 그 자체였다. 산에서 내려와 내수전 해수욕장에서 샤워를 하고 와달리 휴게소로 이동하여 숙면에 들었다.

추석 연휴가 시작 되자 가족단위 여행객과 패키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죽도 전망지인 휴게소에 관광버스가 줄줄이 들어온다. 캠핑카도 가끔 보이고 차박과 백패킹 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태풍이 지나고 2일 후에 독도에 가기 위해 예약을 했는데, 태풍 영향으로 출항을 못한다고 연락을 받고 다음날로 변경하려 했으나 추석연휴로 오전에는 만석이라 하는 수 없이 오후 3시에 독도에 가는 배를 예약했다. 그런데 파고가 있어서 접안을 못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입도에 성공했다. 독도에 갈 때는 모두가 애국자가 되어 태극기를 흔들며 감격스러워 한다. 독도새우라도 먹을까 했는데 태풍 영향으로 새우가 품절이라 못 먹고 오징어회로 대신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울릉도는 오징어 보기 힘들고 값도 비쌌지만 울릉도하면 오징어라는 생각에 맛있게 먹었다.

섬 일주 유람선을 타기 위해 저동에서 도동으로 왔다. 도동은 지난번에 왔을 때 주차공간이 좁고 경사진 곳이 많아 캠핑카를 돌리기도 힘들어서 버스로 이동했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울릉도와 유람선에서 내려 해안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보는 섬은 또 다른 장관을 연출했다. 추석날이라 걱정을 했는데 대부분 식당이 열려 있어 따개비 밥을 시켰



성인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성인봉 정상



독도 표지석



독도 풍경



더니 사장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맞아 주시면서 추석이라고 특별 반찬도 더 주시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다. 추석날이지만 날씨가 흐려서 등근 보름달을 볼 수 없고 일출명소에서 잤는데도 일출을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바다를 바라보며 밥도 먹고 여유롭게 차도 마실 수 있으니까 캠핑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거북바위



통발에 들어온 문어



천부전망대에서 바라본 해안



너울성 파도

요즘 울릉도에서 성인봉보다 깃대봉이 핫하다고 하는데 성인봉은 한쪽으로 경치만 보이는 반면 깃대봉은 사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리분지 둘레길을 돌아 깃대봉에 갔더니 해무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구경을 잘하고 산을 내려와 석포전망대, 안용복 기념관,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울릉도에 있는 관광지 20곳 가운데 16곳 이상 관람을 하면 선물을 준다는 스탬프 투어를 마치고 관광안내소에 가니까 울릉도 특산물인 오징어, 호박엿, 부지깽이 나물을 선물로 주는데 어차피 돌아볼 곳을 구경하고 선물까지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다.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파도가 심해 지나쳤던 거북바위 옆에서 하루 쉬기로 하고 시간이 있어 낚시를 하는데, 초보자라서 낚싯바늘을 4개나 날려 먹고 포기했지만 아쉬운 마음에 저녁때 통발을 놓았다가 아침에 거두어 보니 문어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성공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뽕보요리를 와인과 함께 먹는 기분은 정말 최고였다.

며칠을 열심히 여행하였다니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 휴식을 취하려고 구암마을에 정박을 했는데 옆에 캠핑을 온 사람들이 낚시로 잡은 생선과 뽕소라를 쥐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맛있게 먹었다. 이곳에서 편히 쉬려고 했는데 또 다른 태풍이 온다니 바닷가에서 피신을 가야 할 텐데 어디가 좋을지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고민 끝에 우산국 박물관 옆으로 피신을 했다. 바람 방향으로 차를 세워두었지만 저녁때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 차가 흔들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차가 앞으로 20cm 정도 밀



독도 새우



새우 요리

려 있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도로가 일부 차단되어 3일간 더 머물고 구암마을로 가니 다시 캠핑카들이 모여 캠핑족들이 각자 잡은 물고기로 회를 떠서 먹기도 하고 노을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울릉도에서 태풍을 두 번이나 만났으나 별 피해 없이 지나가 다행이었다. 울릉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이곳저곳 다녀보니 좋은 곳이 많았지만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은 나리분지의 원시림과 해안 산책로였다. 이 두 곳은 갈 때마다 새로운 감흥을 주는 명소로 울릉도 관광을 계획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그동안 파도가 일고 태풍이 불어서 갈 때마다 독도 새우가 없어서 못 먹었는데 값은 비싸지만 한 번은 먹어 봐야겠기에 주문해서 귀한 새우도 먹어 봤다. 다니면서 울릉도에서 유명한 먹물/호박 아이스크림, 독도 새우빵, 호박엿, 호박제리, 여러 가지 음식 등을 사먹으면서 좋은 곳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

울릉도에서 이곳저곳 돌아보고 여행도 할 만큼 해서 돌아가는 배를 예약하고 나니 가슴 한켠에 약간 아쉬움도 남는다.

울릉도 캠핑을 마치고

한 달 가까운 동안 쭈니와 울릉도 여행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왔다. 누군가는 울릉도가 캠핑의 성지라는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인다. 인심 좋고 공공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온수는 안 나오지만 샤워장도 가끔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물지각한 백패킹, 차박 캠퍼 때문에 일부 지역은 야간에 화장실이 크로스 되고 또 다른 곳은 청소하시는 어른들이 불평을 가끔 하신다. 음식물 찌꺼기를 화장실에 버리거나 쓰레기 분리 없이 안 보이는 장소에 투기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도 한다. 그래도 많은 캠퍼들이 뒷정리하고 떠나는 모습과 친절한 주민들을 보면 아직은 캠핑하기 좋은 곳임은 분명해 보인다. 캠핑하는 동안 불편한 점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푸른 바다를 보고, 다른 캠핑카들과 어울리는 것 또한 큰 즐거움이었다. ➡



히말라야(랑탕코스) 트레킹을 다녀와서



이연수(30기)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공군의 푸른 유니폼과 이별한 지도 벌써 9년차...

올해에는 무언가 삶의 변곡점이 필요하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던 차에 S대 동문회(행정대학원)에서 히말라야 트레킹 계획에 합류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지만 몸담고 있는 회사에 곧장 휴가원을 낸 후 합류하였다.

네팔은 우기에 각종 병해충(특히 거머리) 활동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는 이를 피해 건기의 막바지인 4월 마지막 주를 택했다. 등반용품은 트레킹동안 거의 4계절을 겪게 되므로 외적인 기후조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문용품을 준

비해야 했다. 특히 3천고지군 부터는 기후변화가 심해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꼭 해둬야 한다. 히말라야 트레킹은 목적지까지 가기도 쉽지 않지만, 급변하는 기상 때문에 아름다운 설산 절경을 보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이번에 갔다 온 랑탕(LANTANG : 지명이름)코스는 히말라야 4대 트레킹 코스 중 하나로 네팔 카트만두의 북동쪽으로 중국과 티베트 국경의 경계선에 가까이 있으며, 시샤판마 남벽을 마주하고 있다. 혹시라도 차후에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동문 선·후배님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준비하고 경험한 것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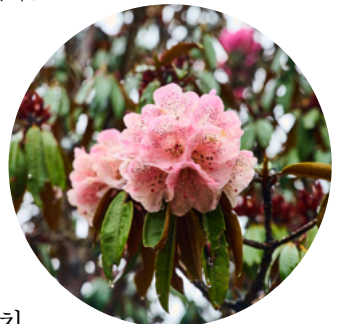
우리가 계획했던 체르코리(4,984m)까지 등정은 전문 산악인의 도움 하에 7박 9일간 초 긴축한 여정(정상적으로는 13일 소요)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약 4개월간 관련 등반용품 확보와 몸만들기(?) 준비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급격한 고도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고산증 극복과 하체근력을 기르기 위한 체력관리가 가장 중요하기에 여기에 집중하였다. 내 생각에는 최소 3개월 정도 미리 기간을 두고 평소와는 다른 꾸준한 걷기운동(발 바닥 앞꿈치 집중사용, 보폭 최소화, 발목/무릎/어깨 관절 균등 사용, 상체 움직임 최소화, 저산소증 해소를 위한 들숨/날숨 호흡법 등등), 그리고 주말산행과 자전거타기를 통해 나름 최상의 수준으로 근력을 길렀던 것 같다. 다행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해서 55층이어서 계단 오르기를 거의 매일 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드디어 2023년 4월 28일 오후에 인천 공항을 출발해 7시간 35분(시차 3시간 15분)을 비행하여 नेपाल의 수도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청정지역일거라는 내 상상과는 정반대로 카트만두 시내에는 차량매연이 내뿜는 뿌연 먼지와, 길거리가 지저분하였다.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채 필요한 일부 장비와 물품을 시내에서 추가 구입한 후 숙소로 돌아와 산행에 꼭 필요한 장비와 방한물품만 재정리하여 짐을 최소화하였다. 이유는 개인별 산행 대형백

(100kg)은 주 운송수단인 노새가 운반해야 하므로 짐은 가능한 한 60kg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되는 짐은 개인별로 본인의 배낭에 넣어서 가야 하기에 현지주민들에게 나누어줄 목적으로 준비한 각종 생필품을 결국에는 분리하여 일부 물품은 호텔에 맡긴 후 잠자리에 들었다.

도착 후 2일차 아침 이른 시간에 JEEP형 개조차량에 탑승하여 약 150km 거리를 무려 8시간동안 달려 트리슬리(540m)와 둔체(1,960m)를 거쳐 트레킹의 출발기점인 고도 1,460m에 위치한 사브루베시(Syabrubesi) 숙소에 도착하였다. 차량 탑승 전에 깎아지른 비포장의 꾸불꾸불한 도로 컨디션에 따라 몸을 맡겨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야 절절히 알게 된 하루였다.

거의 수직 직벽에 가까운 아찔한 주위 환경에 다들 그야말로 오금이 저린 모습이였다. 아무튼 이날의 기분은 현역시절에 산 고지정상에 주로 위치한 미사일포대에 출·퇴근시 타고 다녔던 트럭(일명 뼈럭 : 등판 능력이 뛰어난 4륜구동 차량)을 탔을 때의 쉼없는 느낌 그 자체였다. 이날 또 한가지





알게 된 것은 인도의 갠지스강 상류 발원지가 바로 여기이고 히말라야의 설산에서 녹아 내려온 내천의 물가에서 죽은 사람을 화장하고 그 옆에서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곳은 인생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3일차에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되었고 고산지대 저산소증 적응을 위해 하루에 표고차이 1,500m 이상은 이동이 제한되어 밤부(1,960m)를 거쳐 라마(2,460m)에 도착하였다. 이날까지는 고산병이라는 특이한 느낌은 없었으나 다음날인 4일차에 고라타벨라(3,020m)를 지나면서 두통과 가슴압박(호흡)이 부분적으로 오기 시작했으며 랑탕(3,430m)에 여장을 풀고 하루 적응시간을 갖는 이유를 체감하였다. 이날의 등정은 진짜 청정지역과 신이 내린 태고적 자연신비를 눈과 오감으로 느낀 하루였다. 특히 표고 3,000고지군 대에 군락으로 자생하며 가득 피어있는 네팔의 국화인 칼리구라스 꽃나무와 온 사방에 널부러진 마약의 원재료인

산마가 자생하고 있었다.

트레킹 내내 신체적인 큰 변화는 고도차이에 따른 생체현상(방귀)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달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행로 자체가 노새들의 배설물로 거의 덮혀 있기에 첫날만 피해서 걷다가 다음날부터는 이를 의식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서로 일체가 되게 된다는 점이다. 일행 중 일부 인원은 전형적인 고산증세(얼굴이 퉁퉁붓고, 두통, 메스꺼움)를 보이는 가운데 낙오자없이 문두(3,442m)를 거쳐 최종 숙소인 강진곰파(3,870m)에 도착하여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다. 등정 기간 내내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현지 여건상 숙소(룻지)가 방한이 거의 안 되고, 세수를 포함한 화장실이 추위에 노출되어 기초적인 생체관리를 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팀을 지원하는 30여 명의 현지 스태프(셀파, 포터, 쿠키)들은 과거 우리나라 전문 산악인들이 8천고지군을 등정 시 전담했던 경험 많은 최고의 팀으로 편성되어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을 받은 것 같다.

드디어 이번 등정계획의 하이라이트인 5일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최종 목적지인 체르코 리(4,984m)로 5시경에 15명 전원이 출발하였다. 전날의 폭설로 등산로가 명확히 보이지 않은 상태였으나 경험 많은 셸과의 선두 인솔하에 3개 조로 나누어 등정을 시작하였다. 나는 그레도 선발대 성격의 1조에 편성되어 눈길을 헤쳐서 길을 내는 역할을 맡았다. 마지막 3조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고산증세 치료중인 일행으로 거의 2조와는 정상적인 이격거리를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4,100m 1차 고지군에서 하산할 수밖에 없었다. 2조도 결국은 중간기점에서 중도하산 하였으나 우리 1조는 2조원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빙산과 빙벽을 통과하여 드디어 체르코 리(4,984m) 정상을 밟았다. 우리는 왕복 11km, 약 10~11시간 소요되는 거리를 고소응급용 산소와 마스크에 일부 의존한 채 목표하였던 정상에 도착한 후 저녁 시간대에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다.

변화무쌍한 현지 기상 여건은 쉽게 히말라야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는 폭설이 내린 다음날의 맑은 날씨 덕분에 설원과 빙벽을 함께 본 정말 운 좋은 팀이었던 것 같다. 다음날도 기상 여건이 안 좋아 카트만두로 내려오는 헬기운항이 안되어 일행 중 1개팀은 강진공파에 하루 더 머물러야 했다. 돌아오기 전날 카트만두 호텔에서 1박하면서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고, 적정온도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대로 실감하면서 적어도 앞으로 살면서 나 자신과의 3가지 약속을 다짐(범사에 감사, 한없는 겸손한 마음, 열정적인 삶)하였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았던 랑탕(Langtang) 히말라야의 파노라마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으며, 아울러 기간 내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행복하고 의미 있는 히말라야 트레킹이었다. ➡





교통사고가 준 인생의 교훈



김병오(23기)

그 일 이후부터 내게 트라우마 하나가 생기고 말았다. 오토바이에 대한 공포다. 운전하다 오토바이가 내 차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머리가 주뻗하고 선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나 할까. 오토바이에 대한 공포가 생긴 건 전역한 지 석 달쯤 지난 2005년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그날 교수들과 운동 후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여 주차장에 차를 막 세우고 있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다. 사관학교 동기생이자 고교 친구이기도 한 모교수의 전화였다. 지방에 강연차 왔다가 내가 거주하는 M시의 호텔에 묵고 있단다. 전역 후 안부가 궁금하던 차여서 반가운 마음으로 곧바로 차를 몰아 호텔로 향했다. 내가 고향으로 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친구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초빙교수 제도가 있다는 걸 귀띔해준 덕분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빨리 만나고 싶어 너무 서둘렀던 탓이었을까. 시내 4차선 도로를 무심코 달리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차 앞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반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달리던 속도 때문인지 오른쪽 앞 범퍼에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오토바이는 전방으로 3~4미터 튕겨나가 넘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 오른쪽 바로 앞에 쓰러졌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다.

차를 세워둔 채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를 부축해 길가로 옮겼다. 무릎을 감싸 쥐고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봐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았다. 때마침 현장에서 있던 중년 남자 세 명이 나에게 달려왔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따지듯 말했다.

“이봐요, 아저씨! 횡단보도에서 정지 신호 무시하고 그냥 달리면 어떡해요.

혹시 음주하신 거 아뇨?”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나, 정지신호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신호기가 어디 있나 해서 살펴보았다. 전방 위쪽에 신호기가 있었고 길바닥에는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있질 않은가. 그리고 보니 딴생각을 하다가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다.

일단 친구에게는 가벼운 교통사고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고 전화해서 안심시킨 후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그러는 동안 병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조금 지나자 교통경찰관이 출동했다. 간단한 현장 조사가 끝나자 경찰서로 가서 더 자세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두어 시간 남짓 계속되었다. 잠깐 딴생각하느라 정지신호를 보지 못했노라고 사실대로 말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은 나의 과실로 결론이 났다. 신호위반은 소위 교통사고 특례 10개 항목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런데다 상대방의 부상이 예상보다 심해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다고도 했다.

30년 군 생활 중 거의 20여 년을 일선 부대에서 비행생활을 하면서도 무사고였는데 전역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하늘이 아닌 지상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허탈

감,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게 괴로웠다.

오토바이 운전자 H씨는 초진에서 12주의 진단을 받았으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상이었다.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던 다리 부상은 크지 않았으나 3번 척추를 크게 다쳤다. 3번을 중심으로 2번과 4번을 연결시켜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다. 후유증은 시간이 다소 경과한 후라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알고 보니 H씨 사정도 딱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올해 삼십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딸 하나를 혼자 키우며 피자집 배달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아내와 나는 틈나는 대로 병원을 찾아가 H씨의 상태를 살피고 위로했다.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서로 마음을 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배달해서 번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그의 어머니는 연로한 몸을 이끌고 공공 취로 사업장에 나가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다. 남편이 일찍 돌아





가시자 어린 외아들에 의지하여 재가도 하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왔다는 사실도 알았다.

이번 사고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10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한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 형사 합의를 하게 되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허락해준 합의 기간은 3주였으나 병상에 있는 환자에게 합의해달라는 말이 떨어지질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를 눈치챈 H씨는 먼저 나에게 합의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어왔고 우린 어렵지 않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H씨의 호의에 감동이 밀려왔다. 몇 차례 줄다리기가 있긴 했지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게 되었다. 피해자 측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었지만 우린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윈윈하게 합의에 이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진정서를 여러 장 내주기도 했다.

형사합의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만만찮은 액수의 벌금도 물어야 했고,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은 전과자가 된다는 의

미라고 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입원 치료비를 비롯한 민사 합의가 아직 남아있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각종 비용은 고스란히 다음 보험계약 시 할증될 것이므로 상당한 보험료 부담을 각오해야 할 판이었다. 심적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적 손실도 크게 본 것이다.

전역한 지 3개월, 사회 초년병으로서 사회적응의 첫 관문의 통과이레가 하필이면 교통사고였던 것이다. 그것도 많은 경제적, 정신적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우게 된... 그리고 보니 지금까지 군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생활한 것이 얼마나 많은 보호 아래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세상 물정 모르고 온실 속 화초처럼 살다가 갑자기 찬바람 몰아치는 허허벌판에 내몰린 심정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싼 대가만큼 감사할 일도 많았다. 먼저 피해자 H씨의 상태가 그 정도인 것이 고마운 일이었다. 척추를 다쳤으나 휠체어 타지 않아도 된다니 감사할 일이다.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질 않았으나 머리에 이상이 없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날 속도가 더 빠르거나 돌발상황 처치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더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는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도 받았다. 먼저 이번 일

로 나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내다. 하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병원으로 고통이며 밀반찬을 만들어 나르던 이도 아내다. 혹시라도 남편이 막 시작한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잃지나 않을까 하여 세심한 면까지 신경을 써준 이도 아내다. 부부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해준 아내가 고맙기만 했다. 그리고 담당했던 경찰관도 오랫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다 사회로 갓 나온 전역군인이라는 점으로 인해 조사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피해자 H씨도 고마운 분 중 한 사람이다. 자신이 중상을 입은 피해자였음에도 오히려 가해자인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H씨, 앞으로 서로 도우며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자는 나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해주며 오히려 나를 위로해준 H씨와 그의 노모께도 고맙다. 더불어 검찰지청에 근무하던 초등학교 친구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도와줬다. 또한 때로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경찰서로 병원으로 종횡무진 뒤편치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죽마고우 L군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사고는 주위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원만하게 처리되었다. 처음엔 고립무원의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위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도움과 위로가 없었다면 사회 초년병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자신감을 잃고,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정상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교통사고는 큰 시련인 동시에 슬기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셈이다.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두고두고 되갚으면서 살고 싶다. 사랑을 베풀 때 되돌려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다른 누구 에겐가 베풀어가면서 세상을 살고 싶다. 누군가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곁에서 힘이 되어 준다는 것, 기댈 언덕이 되어 준다는 것이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값진 시간들이었다. ➡



가 있는데, 잘 물들어서 예쁜 단풍이 되기도 하고, 쭈그러져서 가랑잎이 되기도 한다. 봄꽃은 예쁘지만 떨어지면 지저분해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 빗자루로 쓸어버린다. 그러나 잘 물든 단풍은 땅에 떨어져도 주워간다. 때로는 책갈피에 끼서 오래 간직하기도 한다. 그러니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예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잘 늙으면 청년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젖은 낙엽으로 길바닥에 붙으면 빗자루로도 잘 쓸어지지 않는 추한 가랑잎이 된다. 푸르름을 자랑하던 모든 나뭇잎들이 가을이 되면 낙엽으로 떨어지듯, 노인은 아무나 되지만 잘 물들어 봄꽃보다 예쁜 단풍 같은 존경스런 어른이 되는 건 쉽지 않다. 더구나 길바닥에 붙은 젖은 가랑잎처럼 고집 세고, 욕심 많고, 말 많고, 훈계만 하려드는 꼰대 늙은이가 되어선 안 된다.

취향이나 사는 방식이 서로 다른 세대와 아름답게 공존하면서 근사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이 들어 이념적으론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일 지언정 생활은 진보적이어야 한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도 근사하고 멋지게 사는 ‘Active Senior 시대’이기 때문이다.

“젊어서 진보 아니면 가슴이 없는 것

이고, 나이 먹고도 보수가 안 되면 머리가 없는 것”이란 말이 있다. 이 잣대를 들이대면 노년에 진보적으로 사는 건 머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보수화 되는 건 가진게 많은 자들이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체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진보적 노인이 돼야 한다. 진보적 노인의 삶은 그 시대 틀에 박힌 노인에 관한 관념이나 규범에 저항하며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추구하는 진보의 개념은 흔히 이해하는 정치적 ‘이념진보’가 아니라 ‘생활진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옛사람도 있고 미래 사람도 있다. 옛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이다. 과거 만났던 당시에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추억으로 포장된) ‘기억’만 들추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향이 나지 않고 ‘냄새’가 난다. 미래 사람은 끝없는 성장에 성숙을 더하여 완숙한 고수의 경지를 보인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향’이 난다. 그런 사람이 회장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름’을 ‘향’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곧 ‘진보적 노인’인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공이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나의 시각과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늙어도 ‘끝난 사람’이 아니다. 진보적 노인은 소수자이지만 소



수자라고 해서 약자로 찌그러져 있으란 법도 없다.

사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필요로 할 때 활기찬 노년에 활력을 얻는다. 젊은이는 노인이 알려준 지식으로 대우받고 이득을 얻었다며 고마워할 때 보람이 생길 것이다. 그러려면 나이 들어가는 노인이라고 스스로 성장을 멈춰선 안 된다. 축적된 경험에 우리나라는 '지혜'를 언제든지 펴 올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의 '근육'을 끊임없이 단련해야 한다. 그것이 노년의 성장 활동이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로, 노인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로 평가된다고 한다. 어느 순간부터 시니어라면 무대에서 내려와 말을 줄이는 게 미덕인 것처럼 돼버렸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이유로 젊은 세대는 노인에게서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 예전 같은 존경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소외된 일부는 아스팔트나 유튜브 세상에 진출해 울분을 토하고, 이게 또 세대 갈등을 증폭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하지만 이를 치유해야 할 일부 언론이나 불량 정치세력은 되레 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담론들을 쏟아내고 있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었다. 단기간에 반전시키기 어려운 흐름이라면 시니어들의 경제·사회 활동 참

여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는 게 '수축 사회'를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시간만 때우면 돈 몇 푼 쥐여주는 '노인 일자리'를 넘어서 나이든 노년의 삶도 충분히 보람찰 수 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로 손꼽히는 엘레나 루즈벨트(Anna Eleanor Roosevelt)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라고 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Andre Gide, Andre Paul Guillaume Gide)는 "늙기는 쉬워도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라고 하였다. 늙을 수록 수척해지고 나약해진다. 생태적으로 퇴락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주름진 연륜에서 사자후 같은 기품을 뿜어낼 수는 있다. 고목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이다.

키케로(Quintus Tullius Cicero)에 의하면 '분별 있는 젊은 시절을 보낸 이에게는 지혜로운 노년이 오고, 욕망에 사로잡힌 젊음을 보낸 이에게는 흐리멍텅한 노년이 오게 된다'고 했다. 일리 있고 공감이 가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지난 일에 얽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낭패가 없다.

"나는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나는 젊고 싶지 않다. 나는 이미 과거에 젊어봤으니 이제 늙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젊은 청년들 역시 언젠가 늙어가는 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노년으로 나이 들어가는 또래 모든 사람도 인생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의 시기에 있으며, 모든 나이에 그때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배우, 작가이면서 피트니스계 선구자와 사회운동가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회 수상한 제인 폰다(Jane Seymour Fonda)는 “나이가 들어도 삶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찬 왕국”이라 했다. 나이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변하고 달라지는 얼굴이 갖는 아름다움이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는 가질 수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인데도 왜 포기하려 하는가 말이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나는 나로서 그냥 근사하고 멋진 삶의 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니 늙어가는 일에 결코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건 얼마 안 남은 생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수치심을 느끼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지 않는가 말이다.

젊어 보이려면 많은 노력이 든다. 우리는 더 이상 젊어 보이기 위한 연극을 힘들여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려 보이려고 기를 쓸수록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는 법이다. ‘젊어 봤으니 이제 늙고 싶다’는 당당함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다. 노년에는 노년의 울림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 비우고 또 비워내야 한다. 그래야 채울 수 있다. 돈이나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각자에게 맞는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





슬기로운 은퇴 생활



은진기(26기)

“
 괜찮아,
 이만하면 나쁘지 않게 살았잖아,
 이젠 땅을 딛고 살게 되었어.”

나는 16년간 공군에서 전투조종사로 서 조국의 하늘을 수호했고, 27년간 국내 민간항공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해왔다. 43년간 하늘에서의 일을 마치고 2021년 1월 초에 은퇴했다. 일할 때는 막연하게 은퇴 후의 삶을 동경하기도 하고, 은연중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은퇴한 다음 날 아침을 기억한다. 아침에 일어나니 생경하다는 느낌이 든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비행 스케줄은 텅 비어있고, 이젠 어제와는 다른 생활에 접어들었다는 현실감이 느껴진다. 새로운 생활의 패턴을 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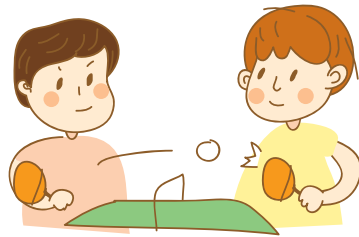
오전 시간에 독서를 하기로 했다. 집 주변에 걸어서 다녀도 될 정도의 가까운 도서관을 발견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규모는 작지만, 모자란 느

낌은 없었다.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회원증을 만들어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훨씬 기억력이 감퇴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독서한 흔적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독서 노트를 준비했다. 독서하면서 등장인물 이름을 적고, 줄거리를 간략하게 기록한다. 좋은 문장도 적는다. 그랬더니 훨씬 기억력이 향상된 듯싶고, 후에 되살리고 싶은 내용은 독서 노트를 이용하여 가능했다. 먼저 소설을 읽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일깨웠다. 그리고 최신 발간된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워낙 많은 분야의 서적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와서 선별하여 읽는 분별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때 읽은 서적이 “넷플릭스”, “테슬라” 등과 같이 트렌드를 이루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 단계로는 고전문학을 읽었다. 예전에 읽었던 고전을 나이가 들어 다시 읽으니 전혀 다른 내용을 보는 듯했고, 감흥도 새로웠다. “죄와 벌”을 비롯하여

“좁은 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전원교향곡”, “그리스인 조르바” 등을 리스트를 작성하여 읽었다. 독서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조금 더 어려운 책을 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간 미뤄 두었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펼쳤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는 책은 생각보다 쉽게 읽혔다. 용기를 내어 지겹기 짝이 없는 괴테의 “파우스트”도 2권을 모두 읽었다. 다소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문호인 괴테가 평생을 들여 집필한 소설을 완독했다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2년간 읽은 서적이 100여 권이다. 간혹 독서 노트를 펼쳐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도 좋은 공부라 된다. 오전에 갖는 3시간 독서는 내게 자신감과 성취욕을 심어 주는 원동력이 된 듯하다.

자신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어떤 면에서 긴장감을 유지한다고 믿는다. 예전에 비행 시에도 영어를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곤 했다. 독서를 하면서도 무언가에 대한 허기가 가시지 않음을 느꼈다. 그나마 조금 있던 영어 회화의 능력이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아쉽기도 했다. 하루 30분간 영어 회화공부를 하기로 했다. 하기 싫은 일은 항상 먼저 해야 한다. 그 후에 마치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선심을 쓰듯 독서를 한다. 요즘은 영어 회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류의 책자를 보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비즈니스 회화책은



세 번을 완독하기도 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영어 공부는 지속할 생각이다.

오후 시간은 운동하기로 했다.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에 고민이 많았다. 테니스와 배드민턴을 생각해 보았지만 예상외로 과격하고 보상이 많은 운동이라 단념하고 탁구를 하기로 했다. 탁구는 장점이 많은 운동이다. 실내 운동이라서 춥고 더운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눈비가 오는 등 기상도 상관없다. 탁구는 유산소 운동으로는 최상이면서 부상의 위험은 적다. 간혹 무릎관절을 위해 보호대를 착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탁구를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클럽을 물색했다.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배우고 지속적인 운동이 되도록,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사설 탁구클럽을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주변의 소개로 탁구클럽을 정하고 등록했다. 일주일에 두 번 탁구 레슨을 받고 보통 때는 회원들과 탁구를 한다. 공을 주고받는 형태의 랠리를 하다가 몸이 풀리면 게임을 한다. 빠르게 오가는 공을 보면서 게임하는 탁구는 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듯싶다. 또한 상대방과 하는 탁구는 경쟁심 덕분에 훨씬 묘미가 있다. 유



산소 운동의 장점 중 하나는 체중 조절이다. 비행하던 시절에 비하여 체중은 5킬로그램 정도 줄었다. 감량되니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편하다.

재미를 느끼고 탁구에 몰두하는데, 샤워하고 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무언가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다. 유산소 운동에 몰두한 결과 근육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나는 근육질 몸매는 원하지 않지만 단단한 몸은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피트니스센터에 등록했다. 유산소 운동인 탁구와 더불어 적절한 근력운동을 병행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결론은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피트니스센터에 다니기로 했다. 예전에 피트니스센터에 다닐 때는 근력운동을 하고 트레드밀에서 뛰었는데, 탁구장에서 충분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관계로 굳이 땀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요즘은 1시간 20분 정도를 근력운동에만 몰두한다. 근력운동을 하는 기구의 중량도 종전의 무게를 회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몸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등산을 한다.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해서 뼈근하지만, 친구들과 땀 흘리는 것이 좋고 뒤편이도 즐겁다. 또한 두 번 정도 사이클링을 한다. 좋은 날씨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속도감을 느끼는 묘미는 색다르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사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가사의 분담을 먼저 거론했다. 일단 매주 한 번 하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내가 하겠다고 했다. 오가다 보면 남성들이 분리수거 하는 광경을 많이 목격한다. 애써 못 본 척했지만, 이제는 나도 무언가 가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추가로 한 일이 실내 청소다. 일요일이 되면 아침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고 진공청소기를 돌린다. 마치 의무사항을 이행하듯이 한다. 그러면 아내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한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도움을 주니 마음이 조금 편하다.

아내는 그간 내가 일한다는 구실로 모든 가사를 혼자서 도맡았다. 이제는 그들을 서서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느낀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서로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내도 본인만이 누리고 싶은 사생활이 있고, 여태까지 가져왔던 아내만의 모임도 있다. 아내가 해왔던 생활을 존중하는 게 부부간 최소한의 배려라 느낀다.

어느 날, 가족에게 내삶의 궤적을 보여주고픈 생각이 들었다. 해서 노트북을 구입하고 예전에 장문을 썼던 순서를 생각하고 큰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초고를 완성하고 보니 가족에게만 보여주기

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경험을 비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면 훨씬 뜻깊다는 생각에 미쳤다. 책을 출간하기로 했다. 일단 초고에서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뺐다. 그러다 보니 초고의 1/3 정도가 줄어들었다. 6개월여에 걸쳐 초고를 만들고 넉 달에 걸쳐 지루한 교정작업을 했다. 톨스토이는 “초고는 쓰레기고, 치열한 교정 후에 작품이 탄생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신봉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작년 말에 자전적 에세이인 “나는 하늘로 출근한다”가 출간되었다.

나는 은퇴 후 루틴을 잡는 데 시행착오를 겪었다. 운동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항상 일정한 패턴의 훈련과 습관을 지킨다고 한다. 그것을 그들은 루틴이라 부른다. 나도 규칙적인 패턴을 정하여 흔들림 없는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슬기로운 루틴을 나름대로 확정했다.

오전 시간은 도서관에서 공부와 독서.

오후 시간은 주 3회 혹은 4회 탁구, 주 2회는 근력운동.

한 달에 2회는 등산. 2회는 사이클링.

인생에 크나큰 행복은 없다는 말이 실

감 나는 때이다. 자그마한 즐거움을 모아 행복을 느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친구들과의 유대관계 유지라고 한다. 심지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지내는 생활이 더 건강하고 장수의 비결이라고 사회학자는 실험 결과로서 얘기한다.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가 쓴 “백 년을 살아보니”란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인생을 요약하면 3부로 나뉜다. 1부는 태어나서 30세까지이다. 그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립하기 위한 기간으로, 공부에 전념할 기간이다. 2부는 30세에서 65세까지로, 본인의 생활과 가족을 봉양하기 위한 기간으로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 시기이다.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모든 것은 일을 겪으면서도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간이다. 3부는 65세 이후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대략 90세까지의 기간이다. 삶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야말로 본인을 위한 기간이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65세부터 80세까지가 인생의 최고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나도 그렇다. 지금 이 기간이 가장 소중한 즐겁다. ➔



군화(軍靴)



이두희(29기)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말랑한 발바닥에 편자를 달아
뚜격 걸음 줄 맞춰 걷는 길

일심동체 길에서 만난 목이 긴 양말
대중소가 헐렁하고 뺏뺏한 신발
스치는 맨살은 까지기 일쑤였다

두 줄 나란히 달리는 귀의 귀
떨어져라 고삐 당겨 조여도
축축한 발과 몸은 덜걱거렸다



까만 시간이 손톱 밑에 굳어질 무렵, 겨우
뒷굽을 바깥쪽부터 깎아 먹은 팔자걸음이
순해졌다

세상 어디엔가 하얀 운동화는 있었을까
맨살 무두질로 앞코 반쯤 들리고 목 늘어진 구두
어느덧 십문칠 ➡

야간 초계 비행



강임구(24기)

어둠의 붉은 무리 밟고 넘는 별 밭에
잔별의 꽃봉오리 유성流星 되어 떨어지면
은익銀翼은 나래를 펴고 하늘 높이 솟는다.

수평선 목로주점 길 밝힌 초롱 등불
선걸음 한 잔 술에 목축이고 돌아서면
별님들 손에 손잡고 강강술래 부른다.

눈 아래 고이 잠든 수정 빛 도시 야경
부릅뜬 매의 눈매 북녘땅 바라보면
달님도 시름에 젖어 동토길 비껴간다.

천지 구분 어려운 구름 속 야간비행
조종복 땀에 절어 소금꽃 피어나도
보라매 하늘 사랑에 하루해가 아쉽다.

한 아름 별꽃 안고 돌아온 보금자리
활주로 넓은 가슴 가볍게 품에 안겨
은익銀翼은 나래를 접고 달빛 속에 잠든다. ✈





빛바랜, 그러나 그리운 유년시절의 추억



이학주(30기)

그랬다. 50여 년이 넘는 빛바랜 기억을 되살리면 말이다. 소도시의 변두리역 광장을 빠져나오면 우측편에 하얀 타일로 지어진 2층 황의원과 부모님께서 신혼 때 세들어 사셨다던 짜전을 끼고 소로길로 반 마장을 더 내려오면 표준전과와 동아전과, 철지난 잡지 등을 파는 헌책방이 나왔다. 이어서 침묵냄새 나는 철로 건널목을 지나면 좌측편에는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마다 들리시곤 하는 막걸리 파는 선술집과 우측편에는 남정네들이 술잎 마른 갈비와 떡갈나무 잔가지 등을 지게에 지고 오거나, 아낙네들은 머리에 이고 와서 파는 나무전이 보였다. 나무전이 있는 철독길 옆 그 고개를 우리는 아리랑고개라고 불렀다.

아리랑고개는 소달구지를 끄는 황소가 콧김을 ‘푸푸’ 내쉬며 오를 때나 힘든 고개이지 늘상 오르는 우리네야 그저 고무신 앞창이 돌부리에 차일 정도의 이름 뿐인 작은 언덕이었다. 야트막한 고개 위에서 왼쪽편으로 골목을 들어서면 우리들 배꼽높이 만큼의 까만 마루청만 반짝반짝 윤이 나는 허름한 떡장사집이 나왔다. 이어서 리어카나 겨우 한 대 들어갈 만한 좁은 골목길이 길게 나 있고, 길 왼편 아래는 돌벼랑을 낮게 쌓았는데 길에서 보면 초가지붕 위가 길 높이랑 같아 밤길이면 지붕인지 길인지 분간이 잘 안되었다. 자칫 초행길인 사람에게는 길 아래로 떨어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워낙 깊이가 낮아서인지 다쳤다는 사람은 별로 본적이 없었다.

그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큰 감나무가 담을 넘어다보는 집을 지나 오른 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이제는 리어카조차도 근근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의 끝집이 나왔다. 그집 대문 밖 왼쪽에는 텃밭이 있어 배추, 무는 물론이고 상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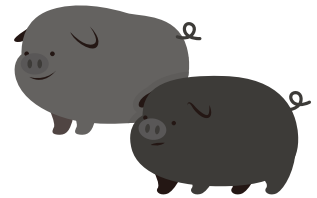
들개도 심고, 어느 해는 고구마와 감자를 심었는데 땅심이 썩 좋지 않다 보니 수확은 늘 실통치 않았다.

전에는 초가삼간 집이었는데 시골의 외할아버지께서 소 판돈으로 지붕만 기와로 올린, 정면에서 보면 대청마루와 방이 두 칸이며 왼쪽에는 나무로 된 정지문이 있어 문을 여닫을 때마다 ‘끼이익’하며 거슬리는 소리가 나곤 했었다.



담장은 그 당시 많은 집들이 그러하듯이 까만 콜타르 칠을 하고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은 송판 을 엮어 세운 나무 울타리였는데 그 시절에는 나무 부식을 막을 재간이 없어 콜타르칠을 했었으리라. 여름이면 뾰족하게 깎은 나무판자 울타리를 타고 나팔꽃이 지천으로 뿔던 나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바로 우리집이었다.

그해 우리는 돼지를 키웠다. 할아버지께서 우리집 터가 세다고 터의 기를 누르려면 동물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하셔서 개, 돼지, 거위, 닭, 오리, 심지어는 잠시 말도 한 마리 키운적이 있었다. 그 전 해까지는 닭을 키웠었는데 산짐승이 내려와 닭장을 거덜내는 바람에 본전도 못 건지고 다시 돼지를 키우기로 어른들이 결정을 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동네 공동우물가 옆에 구정물수거통이 있어, 초등학교를 다니던 형 둘이 학교를 파하고 해거름 때면 우리집 뒤쪽에 있는 동네 우물가 몇군데를 돌아 구정물을 수거해 돼지를 먹여야 했고, 나는 형들을 졸졸 따라다니곤 했었다.



사흘들이 비가오는 칙칙한 장마철이었나 보다. 아침부터 바깥이 소란스러워 잠에서 깨었는데 구정물 냄새 진동하는 돼지 헛간을 가보니 커다랗고 까만 우리집 암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할아버지께서 새끼를 직접 받을 때 형들과 나는 돼지우리 밖에서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룻밤을 자고 나니 어찌된 영문인지 돼지 어미가 제 새끼를 반이나 잡아먹어 버렸고, (그 당시 할머니 말씀으로는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사람이 옆에서 쳐다보면 부정타서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하시긴 했는데...)



다섯 마리만 살아 남았기에 그대로 두면 어미가 새끼를 다 잡아 먹어버릴 것만 같아서 우린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락하에 나머지 새끼들을 우리가 지내는 작은방으로 데려와 그 당시 우리도 먹기 힘든 우유를 사다 먹이며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한 이불속에서 잠도 같이 잤었다.

며칠을 한방에서 같이 지내다보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던 시절이 아니다보니 그 재미란게 어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도 좋은 놀잇감일 수가 없었고, 그 새끼 돼지의 귀여움은 그 당시 우리 또래의 아이들에게서는 감히 느낄 수가 없는 희열같은 것이 있었다. 형제들 네 명이 마루에서 새끼 돼지랑 달리기도 하고, 커다란 이불속에서 새끼 돼지를 한 마리씩 가슴에 품고 있으면 일순간은 잠잠해지나, 새끼 돼지라 해도 얼마나 힘이 좋은지 파다닥거리면서 이불을 박차고 뛰쳐 나오는게 그렇게 장난스럽고 귀여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활기찼던 새끼 돼지들은 이유도 까닭도 없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서서히 죽어만 갔었다.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지만 형들이나 나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다섯 마리 돼지가 모두 다 죽어 집앞 텃밭에 묻어주고 나니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으나, 나도 엄마 없이는 못 살 시절이었으니 어린 생각으로도 새끼들이 어미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싶긴했다. 그 뒤로 형들은 돼지 구정물 걷으러 가는 일도 시들해지고, 형들이 안가니 나도 따라 나설일도 없고, 자기 새끼 잡아먹은 부정탄 돼지라고 해서인지 결국은 돼지 헛간도 허물고 말았다.



세월은 쉽 없이 흘러 초가지붕을 기와로 올려주신 외할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돼지를 키우시던 할아버지도 모두 다 돌아가시고, 그 집마저도 우리가 이사를 나온 후에는 폐가가 되었다가, 그 집터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제 내 나이가 그때의 우리 할아버지 나이가 되었으니 격세지감과 함께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

이오지마섬이 주는 한일관계의 함의(含意)



김학준(34기)

이오지마(유황도)를 아십니까? 이오지마는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1,200km 가량 떨어져, 일본 본토와 괌의 거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 활화산이 존재하는 데다가 섬 곳곳에 가스 분출구가 있어서 섬 전체에 유황 냄새가 만연해서 ‘유황도(硫黃島)’라고 불리는 무인도에 가까운 외딴 섬이었다.

이러한 이오지마가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태평양 전쟁 말엽이었다. 미국이 사이판을 점령하고 중부 태평양에서 미 해군이 진격하자, 이에 일본 해군이 이곳에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면서부터이다. 이오지마는 지리적으로 일본 본토로 향하는 전진기지인 데다, 본토 폭격을 목적으로 인근을 지나가는 미군 B-29 폭격기를 요격하거나 본토에 정보를 해 줄 수도 있었다. 반대로 미군은 일본본토 폭격 때 B-29를 공중엄호하는 F-51 무스탕을 띄울 비행장으로 이오지마를 생각했고, 그와 함께 일본 본토 폭격을 마치고 귀환하는 B-29 폭격기들 중에 문제가 생긴 기체가 착륙할 비상활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섬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전략적으로 보아도 이오지마를 확보하면 오키나와를 점령하는데 중요한 기착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전략적인 위치 때문에 미군은 이오지마를 점령하기로 결정했다.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달 넘게 이오지마에서 미 해병대와 일본군 간



이오지마는 일본본토와 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오지마 정상에 성조기를 게양하는 미 해병대. 미국 각지의 해병대 기념비 모델이 되었다.

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일본은 이오지마를 잃으면 본토상공을 무방비 상태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결국 일본군 2만여 명, 미군 6천 800여 명이 전사하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를 남기고 전투가 종결되었다.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를 그린 영화로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본에서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가 동시 개봉되기도 했다. 이러한 피말리는 혈투끝에 이오지마의 스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게양하는 장면이 미 해병대의 아이콘이 되어서, 미 해병대 전쟁기념관을 비롯한 각지의 해병대 기념비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이오지마와 관련된 또다른 일화는 주일본 무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 초에 발생하였다. 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매주 금요일마다 동경 이치가야에 함께 위치한 방위성과 통막, 각군 막료감부를 방문해서 업무를 협조했었다. 그날도 금요일이라 방위성을 방문해서 3월 하순에 있을 한일군사회의에 관한 업무를 협조 중이었는데, 주일대사관으로부터 급한 일이 발생했으니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광으로 향하던 ○○항공(LCC) 보잉 737항공기의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군용기지인 이오지마에 비상착륙했다는 것이었다. 주일대사관에서는 나에게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일본 영공통과 신청 및 허가 등 항공관련 업무를 공군무관이 담당해 왔고, 이오지마 공항도 군용기지인 만큼 공군무관인 내가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해상자위대 막료감부를 방문하여 승객들이 내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행기 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협조했다. 이제 문제는 승객들에 대한 입국관련 문제였다. 출입국 문제는 외무성, 항공기의 기지 사용문제는 방위성과 통막, 해상막료감부, 민항기관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성에서 관련되어 있었다. 일본 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만 일하고, 원리원칙대로만 해서 융통성 없기로 유명한데, 모두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통에 애를 먹었다.

무엇보다도 숙식이 불가능한 군용기지 이오지마에서 광으로 가던 승객을 빨리 빼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저녁 무렵에 대체 항공기가 도착해서 광으로 향하게 되면서 승객

명단만 제출하는 수준에서 이 문제는 동시에 해결되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다. ○○항공에서는 항공기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지에서 간단한 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항공기 엔진을 교체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체항공기가 올 때 신속 대응 정비팀을 보냈다. 다음날 신속 정비팀이 엔진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현지수리는 불가하고, 새로운 엔진을 신고 와서 교체장착해야 이륙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엔진을 신고 올 화물기를 섭외해야했는데, 우리나라 항공사의 화물기를 대여하면 좋겠지만, ○○항공에서는 비용문제로 자신들이 섭외한 제3국 화물기 IL-76을 제안해 왔다. 평소 업무협조 중이던 국내 메이저 항공사 운항본부에 연락해 봤더니 ○○항공에서는 임차가격만 문의했었고, 실제 화물기 임차 협조는 없었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본 방위성에서는 군사기지의 안보상의 문제로 제3국 화물기 IL-76의 착륙은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다. 이제 다른 화물기를 수배하려면 며칠이 더 걸릴지 몰랐다.

이처럼 새로 임차하는 화물기가 엔진을 신고 이오지마에 올 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다보니, 대체기로 이오지마에 들어온 정비사들의 숙식이 문제가 되었다. 이오지마는 군사시설뿐이라서 이들이 묵을 호텔이나 식당이 없었다. 일측은 “해상자위대는 료칸(여관)이 아닙니다.”라며 난색을 표명하며 텐트와 같은 장비와 식료품을 가지고 오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해 별도로 숙식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운영항공기가 많지 않은 ○○항공은 비상항공기와 대체기 문제로 이미 항공편 스케줄이 무너져서, 추가적인 항공기 투입은 불가하다고 했다. 결국 이들은 해상자위대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위해 나는 방위성과 해상막료감부에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다.

○○항공이 동남아에서 돌아가는 미국 화물기를 저가로 임차하기까지는 1주일이 더 걸렸다. ○○항공이 엔진교체에 필요한 장비를 가능하면 덜 가져오기 위해 이오지마 기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일람을 요구했다. 만약 엔진 기중기를 가져가야 한다면 화물기가 1대 더 필요하게 된다고 했다. 일본 해상막료감부에서는 만약의 경우의 책임문제를 들어서 작업에 해상자위대 장비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지만, 가능한 빨리 비상항공기가 이오지마에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방위성을 설득했다. 결국 ○○항공으로부터 엔진교체에 필요한 장비목록을 받아 일본 측에 제공했고, 해상자위대에서 이오지마에서 사용가능한 장비일람을 알려주는 형태로 협조했다. 해상자위대는 직접 엔진 크레인을 작업하면서 엔진 교체작업 등을 도와주어 엔진을 성공적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1주일 이상을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해상막료



감부와 국토교통성을 왕복하면서 외국 군용기지에 비상착륙한 국내 항공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잘 마무리했다. 해상자위대에서는 ○○항공 신속 정비팀에 1주일 이상 숙식을 제공했고, 화물기로부터의 엔진 하역작업, 엔진 교체작업 시에 엔진 크레인 작업 등을 성심껏 지원해 주었다.

2016년에는 한일 군사관계가 원만한 상태였지만, 2017년부터 제주관함식 해상 자위대기 계양문제, 2018년 화력통제 레이더 조사문제, 2019년 한일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논란 등으로 한일군사협력에 문제가 생기고, 상호신뢰가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졌다. 신뢰가 떨어진 2017년 이후에 민항기가 이오지마에 불시착했다면 아마도 해상자위대로부터 2016년과 같은 따뜻한 협조를 제공받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 측의 비협조로 엔진 크레인을 신고 들어갈 별도의 화물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신속 정비팀의 숙식을 위해 별도의 항공편을 마련하고, 이오지마에 들어가는 화물기 등은 중부공항이나 관서공항에 착륙해서 입국 및 검역 절차를 마치고 심사후에야 이오지마에 입항이 가능했을 것이다.



일본 요코다 기지에 긴급착륙한 후배 조종사들과

이외에도 알래스카 레드 플레그 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던 우리 전투기들이 일본 요코다 기지에 긴급착륙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때도 주일미군과 일본 측의 따뜻한 지원을 받았으며, 상호신뢰가 발휘된 대목이었다. 한때 일본에 대한 정책은 안보와 경제는 긴밀히

협력하되 과거사와 국민감정 문제는 철저히 대응한다는 투트랙이었는데, 사안을 분리한다는 투트랙적 사고는 실제로는 실현가능하지 못한 접근방법이었다. 몇해 동안 일본 방위성에서는 우리 교육기관의 부대방문을 받지 않고 있다. 일본은 군간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군사교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해방이후 한일관계가 정치적으로 굴곡이 있어도 군사협력과 신뢰는 굳건했다. 그런데 양국간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지금은 양국간 신뢰회복을 통한 정상적인 안보협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시기라 생각한다. ✈



임수훈(34기)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한자로는 ‘편안할 안’(安), ‘온전할 전’(全)이다. 편안한 상태가 기본개념이지만, 나는 온전하다는 개념에 더 의미를 두고 싶다. 위험이 없고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편안만을 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거친 세상 밖으로 무모한 도전을 할 필요 없이 그저 온실 안의 안식처에서 편안히 지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받아 소중하게 태어난 인생을 그렇게 시간만 축내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편안함과 더불어 온전하게 안전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각자의 꿈과 목표 달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즉, 안전(安全)이란 위험과 사고 없이 온전하게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며 온몸으로 체득하는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반드시 동반된다. 특히 조종사의 꿈을 품고 지금 여기 처음으로 기본 비행과정에서 있는 Airman들은 항상 위험과 도전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지진이나 화산폭발,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사고와 재난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비단 비행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과 비행을 하면서 safety 보장을 위한 S.A.F.E.T.Y.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1. Save the life :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나의 생명이 소중한듯 타인의 생명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해야 한다. 더불어 군 지휘관이나 항공기 기장은 본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이라도 부하들과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남겠다는 심적 각오를 초기 학생 시절부터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2. Adjust your normal : 평소 '좋은 습관(habits)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조종 습관은 안전한 비행 생활의 초석이다. 한 두 번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람직하지 않은 비행 습관으로도 별일이 없을 때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다.
3. Focus the moment : 비행 모든 단계에서는 그 시기에 맞는 의사결정과 조작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황판단이나 업무량의 분산,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단독비행을 할 경우, 더욱더 엄격하게 자신을 추스르며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4. Exam cases :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한다. 모든 절차와 개념과 원리를 자기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전문 조종사로 거듭날 수 있다. 아울러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인적사고 뿐 아니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까지도 예측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 Training rightly : 훈련은 본인이 습득한 지식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득함으로써 전문지식과 우수한 기량을 겸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배우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미리 연구하고 고민한 것과 직접 마주하며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점차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훌륭한 조종사로 거듭날 수 있다.
6. Yield your vulnerability : 인간이기에 결점과 부족함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나의 '실패와 취약함을 인정'하라. 그 실패를 이후에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안전 요소나 위험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잘못된 문화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붙인 새털 날개로 창공을 날면서 태양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는 아버지의 조언도 잊고 높이 날다가 밀랍이 녹아 날개가 떨어지며 지상으로 추락한다. 우리는 이카루스의 '하늘과 우주로 향한 꿈과 도전'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불안전 요인과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함으로써 진정한 안전생활을 통해 각자가 꿈꾸는 멋진 조종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단지(斷指)의 리더십



박기범(67기)

‘안전(安全)’이란 사전적 의미로 위험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나는 전투조종사로서,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내가 속해있는 조직인 공군,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국가와 국민, 공군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국의 안전을 위해 한 평생을 헌신하였던 100여 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본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굳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

2018년 여름 사관학교 4학년 생도였던 시절, 나는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100년 전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주변에 인적 하나 없는 막막한 허허벌판 대로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비석 하나. 그 비석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김광규의 시 「묘비명」이 떠오른 것은 왜일까. 그리고 사관학교 시절 기본군사훈련을 수료하며 수 없이 외웠던 많은 암기사항 중 유독 다음 구절이 떠오른 건 또 왜일까.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랑스럽게 택한다”.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4년 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뇌해왔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한 버스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흔적과 마주하기 위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은 사관생도들을 싣고 러시아의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얼마나 내달렸을까, 어느 순간 버스



는 멈추어 섰지만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버스에서 내려서야 비로소 우리가 찾던 그곳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허허벌판에서 있는 비석 하나. 비석 상단에는 아로새겨진 넷째 손가락 끝마디가 잘린 손도장. 7월 늦더위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를 만들던 날, 우리나라와 1,000km 떨어진 러시아의 외딴 마을 크라스키노, 그곳에서 나는 도마 안중근(安重根, 1879~1910) 선생의 단지동맹비 앞에 설 수 있었다.

안중근 의사의 흔적을 보기위해 들뜬 감정을 안고 온 내가 그 비석과 마주한 순간, 처음 느꼈던 감정은 그의 업적에 대한 감사함도, 광복한 나라의 후손이 맞이하는 기쁨도 아닌, 한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감정이었다. 100여 년 전, 낯설고 먼 러시아 땅에서 조국의 광복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하여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였을 그들을 떠올리며, 어느새 울컥하며 눈시울은 차오르고 있었다. 그런 나를 위로하는 듯 입을 꼭 다문채로 묵묵

히 서 있는 비석 앞에는 의사(義士)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누가 놓고 갔는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추모의 꽃들이 바람결에 쓸쓸히 흔들리고 있었다.

1909년 2월 7일,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투사 12명은 이곳에 모여 조국 독립을 위하여 목숨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 단지동맹(斷指同盟), 그들은 왼손 약지를 자른 뒤 붉은 선혈로 태극기 위에 '대한독립'이라 쓰고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외쳤다.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의 명성과 존경에 비해,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이곳 러시아의 외딴 마을 주변, 잡초가 무성한 광야 한가운데에 외로이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그러나 비석이 있는 그곳은 너무 초라했다. 복잡한 심경 속에 답사 시간은 끝났고 그곳은 뒤에 흘러가는 공간이 되었다.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지 1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유해가 어디 묻혀있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였다. 서울시 효창공원 '삼의사묘역(三義士墓域)'의 비석 없는 그의 빈 무덤은 오늘도 쓸쓸히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태 유해조차 찾지 못하였고, 이 곳 단지동맹비도 한때 허술한 관리로 비문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있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나는, 한 사람의 후손으로서, 또한 그와 같은 이들이 되찾아준 조국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기리는 꽃 한송이를 바치고 난 뒤, 비석 주위를 잠시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가지고 있던 ‘애국심’이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살아왔던 일생을 미루어 보아 그에게 ‘나라의 안전’이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 친구, 가족, 민족이 인연(因緣)을 맺은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았다.

그의 애국심은 부자관계와 같이 원초적인 가족 간의 사랑에서 시작하여 친척, 고향, 민족,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넓어졌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당시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자유로운 삶’을 선물할 방법은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조국에 대한 소중함은 곧 나라의 안전에 대한 의지로 이어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그의 애국심과 시대정신은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구절에도 잘 나타나있다. 나는 그곳에서 마침내 내가 군복을 입어 오며 생도 시절 4년 간 고뇌해왔던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안중근 의사는 조국을 위해, 대의를 위해서 실제로 마주해본 적이 없는 대상을 과감히 총으로 쏘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보여준 당당한 모습은 진정으로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신념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더불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라는 명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가 남긴 만행의 잔해들은 아직까지도 이 땅에 남아 우리 민족의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우리는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들을 본받아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단지(斷指)의 길을 걸으며 나는 여기에 속해 있음을, 그가 이룩한 좁은 길을 헤쳐나와 지금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있음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의, 우리만의 묘비를 당당히 세울 수 있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100년 전, 낯선 이국땅에서 외롭고 쓸쓸히 조국 광복을 위해 힘써왔던 이름모를 수많은 안중근 의사들을 진심으로 기리는 날이 왔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소개한 김광규 시인의 반어적인 시 글귀가 참이 되는 날을 비로소 우리는 맞이할 것이다.



위의 내용은 필자가 2018년 여름 사관 학교 4학년 시절, '한민족 역사탐방'이라는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탐방하는 경험을 했을 때, 안중근 의사의 비석을 보고 느낀 점을 쓴 일기이다. 나는 100여 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보며, 조직의 안전을 위한 리더십이란 조직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이자,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군인이다. 우리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조직의 안전,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가 조직의 안전을 위한 일원임을 잊고 지낸다. 업무 스트레스, 코로나 시대로 인한 불편함, 경제적 문제 등 살

아가면서 맞이하는 다양한 일들에 치여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 가끔 망각하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우리의 조국의 안전을 위해, 조직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던 100년 전 안중근 의사와 그 동료들이 보여줬던 단지(斷指)의 리더십, 즉 모두가 나서지 않을 때 자신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보상을 바라지 않는, 기꺼이 조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국가의 안전을 위한 리더십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군인으로서 조국의 안전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하고, 국가의 안전이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줄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

뉴노멀 시대, 뉴타입으로 전환하라!



이수훈(44기)

우리가 살고있는 지금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 선조들보다 훨씬 오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소위 VUCA의 시대이다. VUCA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약자로 미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그래서 이러한 뷰카vuca화된 미래를 기존의 노멀(normal)이 아닌 뉴노멀(New normal)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전세계는 급속하게 뉴노멀 시대로 변화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뉴노멀 시대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인류는 지금까지의 삶과 다르게 살아가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는 현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에는 기존의 사고방식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경험’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다. 기존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버티던 사람들의 세상은 가고 새로운 환경에서 유연하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세상이 될 것은 자명하다. 지금까지의 성공신화는 앞으로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다. 즉 과거의 경험이 또 다른 상상력과 지혜를 창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면 된다. 그러나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는 우선 시도부터 하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미세하게 수정을 거듭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최적화의 효용성이 낮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두고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최적화의 방법을 주로 활용해왔다. 물론 최적화는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다만 최적화가 주는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기존의 것을 최적화하는 것보다는 급변하는 환경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유연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미래에 다가올 아니 이미 우리 앞에 와있는 뉴노멀 시대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정답을 찾아내는 모범생보다 창조적인 질문이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는 시대다. 새로운 미래에 걸맞는 새로운 인재, 즉 뉴타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공군인 여러분들에게 아래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연성과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뉴노멀 시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과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거의 인과관계 중심의 고정된 사고방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환경과 요구사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적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대면으로 일하거나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거나, 다양한 분야와 전문가들과 협업하거나,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습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전과 기회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시하고, 기존의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과 혁신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관심분야나 전문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거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보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등의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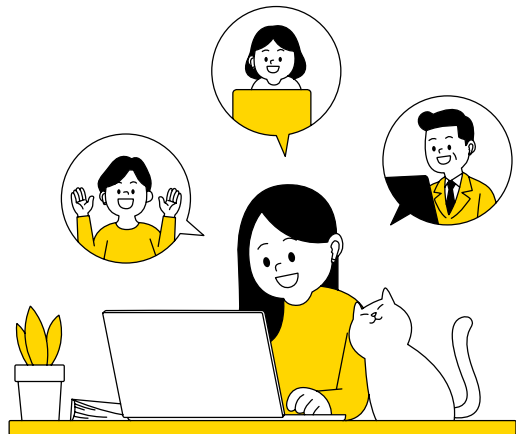
셋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예를 들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토론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다른 문화나 관점

에 대해 배우거나 경험하거나 공감하거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넷째, 자기관리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관리하고 성장해야 하는 시대이다.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젊을 때의 배움만으로 평생을 버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보거나 경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익숙한 일상을 지루해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해왔던 것이 익숙하면서 편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늘 익숙하게 짜여진 루트가 있고, 그 길을 따라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게 본능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창의성, 소통과 협력, 자기관리와 자기개발 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하나만 강조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된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뉴노멀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다. ➡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 주짓수



서동우(48기)

내가 운동을 했다고 할만한 것은 중학교 시절 복싱 3개월과 고등학교 시절 합기도 1년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태권도를 3단까지 취득했고, 졸업 후 힘든 비행훈련을 마치고 전투대대에서 생활하면서부터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다. 구기 종목에는 영관심이 없어서 누구나 즐겨하는 축구도 그다지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테니스와 골프도 필요한 상황일 때만 억지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도 시절 74kg이었던 몸무게는 84kg까지 늘었고 체중이 느니 내가 건강하지 않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40대에 진입할 즈음 공군작전사령부 TCD(Tactical Control Director, 전술조치관)로 근무하면서 6시간 근무에 12시간 휴식이라는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더욱 건강이 나빠졌고 시력도 떨어져 안경을 착용하게 되었다. 평소 살아있는 동안은 아프지 말고 건강

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제대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구기 종목은 여전히 관심이 없었기에 찾아보니 오산기지 정문에 복싱 체육관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 아주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어 복싱을 시작했다. 복싱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무려 5kg이 줄었고 내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TCD 근무를 마치고는 논산에 있는 합동참모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복싱 체육관을 찾아 계룡대까지 30분 거리를 매일 왕복하면서 운동을 계속했다.

이때 내가 다니던 복싱 체육관에는 주짓수도 가르쳤는데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궁금증에 한 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세상에! 복싱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일주일에 반은 복싱을 하고 반은 주짓수를 하게 되었으며, 그다음 해부터는 주짓수만 했다. 그리고 주짓수를 시작하니 체중이 추가로

5kg 더 줄어 생도 시절 몸무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전투조종사로서 비상대기도 많고 여유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틈나는 대로 주짓수를 해왔으며, 지금은 벌써 6년 차에 접어들었다.

내가 왜 주짓수를 좋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몸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주짓수를 처음 시작하면 머리끝부터 발가락까지 모든 근육에 통증을 느낀다. 다른 운동과 달리 집중적으로 쓰거나 쓰지 않는 근육이 없이 고루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력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과 유연성을 기르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둘째, 주먹이나 발로 직접 치고받는 타격이 없고 조르기과 꺾기 위주이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적다. 그러나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주짓수도 무리하게 욕심을 내면 크게 다칠 수 있다. 관절을 꺾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심하면 부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욕심을 내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행복의 탭을 친다면 부상없이 운동이 가능하다.

셋째,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운동이기에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다. 현재 40대 중반인 나도 나보다 주짓수 경력이 짧은 20대 친구들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 여성들도 남성들을 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흔히 골프가 늙어서도 가능한 운동이라 하지만 나는 주짓수 역시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함께 몸을 맞대고 하는 운동이기에 쉽게 사람을 사귀고 친해질 수 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 함께 스파링을 하고 친하게 지내며 이러한 관계에서 소속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대대장으로 근무할 때는 대대원 및 병사들과 주짓수를 했었고, 38전대에서 근무할 때는 미군들과도 주짓수를 했었다. 생도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금도 생도들과 함께 주짓수를 하고 있다. 함께 몸을 맞대고 구르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고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앞으로 더 많은 공군인이 주짓수를 즐기고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





웨이트 트레이닝, 바른 자세로 꾸준히



정승제(58기)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는 공군장교이자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로서 여러분들도 올바른 운동법으로 꾸준히 운동하여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2006년 사관학교를 입학하여 1학년 생활중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공으로 하는 운동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운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용관 밑에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발견하고 목발을 한 상태에서도 상체 운동을 할 수 있다는걸 알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이 쇠를 드는 운동이 뭐가 재미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었지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웨이트 트레이닝 밖에 없어서 일단은 시작하였습니다.

십자인대 재활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3개월 동안만이라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자라는 마인드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다보니 작은 체구였던 저는 조금씩 체형이 변하고 힘도 더 쎄지고 있다는걸 발견하게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의 재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힘든 사관학교 생활 중에서도 공강과 자유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단을 짜기가 너무 어려워 참치캔을 사서 기름을 빼고 물에 씻어 먹는 등 최대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닭가슴살도 간단하게 먹기 쉬운 제품들도 없었고 학교에서 조리 자체가 불가능하고 외부음식을 반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치를 씻어먹는 기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운동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 2009년 미스터 공사 대회에 출전하여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책으로 보고 동기들과 같이 그냥 하다 보니 잔부상도 많았고 관절부위에 소리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비행훈련을 할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비행훈련을 했던 선배님들도 아시다시피 운동을 할 시간도 없었고 비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잦은 야식과 술자리를 했습니다. CRT까지 다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되서 처음에 막내 요기로 지낸 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도대에서 했던 것처럼 꾸준히 모든 걸 알아놓아서 하진 못했습니다. 비행이라는 주업무가 있었고 비행준비와 동기/선배님들과의 시간이 소중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상유지식으로 틈틈이 운동을 하다가 2019년 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육아 문제 등으로 더욱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피트니스 문화가 제가 생도때 운동했던 시절과는 다르게 그 시장이 너무나 커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열정은 있었지만 갓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 지난 후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새벽 시간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2010년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습관이 현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꼭두새벽에 기상해서 준비 후 운동을 하고 7시 정도 집에 들어와서 씻고 애기 어린이집 등원준비를 아내와 같이 하고 출근을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남들은 '뭐가 그리 재밌길래 그렇게까지 하나' 라고 하지만 저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즐거움이자 루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 문득 나도 대회를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래도 내가 좋은 추억을 쌓아보자 라는 마인드였습니다.

미스터 공사 이후로 한번도 사설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2023년 3월에 3대 네츄럴 대회중 하나인 WNGP대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종목은 클래식 피지크라고 예전 80년대 보디빌딩 같은 스타일의 대회입니다. 현재 보디빌딩은 너무 크고 예쁘지 않다라는 여론이 생겨 80년대 몸을 찬양하는 종목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입니다. 다이어트와 유산소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이 실시하였는데 물론 건강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먹는 걸 제한하고 나중엔 수분까지 조절해야 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비기너라고 생전 처음 대회를 출전하는 종목에 출전하였는데 거기서 1등을 하고 기존에 출전했던 사람들과 모든 1등들끼리 다시 모여서 경쟁하는 그랑프리 대회에서도 정말 운이 좋게 1등을 하여 클래식 피지크 그랑프리를 하였습니다. 비기너가 그랑프리를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제가 그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물론 제가 우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제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아내가 큰 도움을 주었고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지속 하면서 느낀건 어렸을때 운동을 시작하면서 바른 자세로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항상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 무식하게 옳지 않은 자세로 운동을 하다보니 관절이 많이 망가졌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은 걸 배우고 체득했기 때문에 바른자세로 최대한 운동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다친 통증들이 가끔 재발하곤 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감히 한마디 말씀 드리자면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지금 하고 있는 초보분들은 YouTube나 책으로 배우지 말고 꼭 능력있

는 트레이너한테 배우길 권합니다. 물론 트레이너들 중에는 간혹 지도자로서 자질이나 인성이 부족한 사람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꼭 엄선해서 능력있는 분에게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 더욱 몸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시대인데 바른자세로 꾸준히 건강을 위해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직 공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내성 뿐만 아니라 일반특기 군인분들도 강인한 체력 건강한 마인드에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운동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이찬희(70기)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저출산과 관련된 어느 강연에서 취업, 부동산, 부채, 육아와 업무의 병행 등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청년들이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고, 시민 인터뷰에서 한 시민은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나는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절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기지도서관으로 달려가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읽었다.

책 제목만 보았을 때는 ‘절망을 계속 하면 병을 얻어 죽게 된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일들로 하루하루를 절망하며 살다가 한 번 크게 아파 위험한 병을 얻을 뻔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저자가 말한 병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신체적인 병으로 인한 육체의 죽음이 아닌, 정신적인 병으로 인한 영혼의 죽음이다. 여기서 정신이란 자기(自己),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관계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계되는 관계를 말한다. 자기는 자신이 정립하거나 타자에 의해 정립되며, 절망하여 자기 자신하기를 욕구하지 않는 제1의 형식과 절망하여 자기 자신하기를 욕구하는 제2의 형식이 있다. 두 개의 형식이 의미하는 바는 뒤에서 절망의 형태와 함께 살펴볼도록 하겠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절망은 근절의 대상이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대단한 장점이라고 말한다. 정신을 갖고있는 인간은 자기이고 정신이므로 절망할 수 있고, 절망이라는 병은 동물보다 뛰어난 인간의 장점이다. 그렇다면 절망은 축복일까? 모순적이게

도 키르케고르는 현실적으로 절망하는 것은 최대의 불행이고 비참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타락이라고 말한다.

절망은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 키르케고르에 의하면 절망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열 자체가 아닌 분열의 가능성이 바로 절망이다. 인간은 자기이고 정신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늘 절망의 가능성에 놓여있고, 이것은 신이 인간을 서로 관계하도록 만든 것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다. 따라서 우리가 절망할 수 있음은 축복이지만, 절망에 빠져 자신과의 관계를 잃는 것은 불행이다. 절망은 절망 안으로 떨어지는 무한한 심연이 있기 때문이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 형태는 유한성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무한성의 절망이다. 인간의 모든 실존(實存)이 무한하려고 하는 모든 순간은 절망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한성과 무한성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유한성은 한정(限定)이고, 무한성은 확대(擴大), 즉 한계가 없는 것이다. 이에 키르케고르는 무한성을 두고 인간의 공상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공상은 감정과 인식, 의지에 관계하고 있으므로 인간은 공상적인 감정과, 인식, 의지를 가지고, 이는 자기 전체를 공상적으로 만들고, 인간을 자기로부터 멀리하고 자기가 희박해지도록 만든다.

절망의 두 번째 형태는 무한성의 결핍으로 인한 유한성의 절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는 유한성과 무한성의 종합이다. 무한성이 없이 유한성만 있다면 이 역시 절망이다. 키르케고르는 이를 두고 “천편일률적인 것 안에서 하나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자기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한성의 결핍은 편협하고 고루한 절망의 상태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의 정도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 절망은 자신이 절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절망으로, 이를 ‘절망적인 무지’라고 한다. 이는 인간이 정신이기를 포기하고 감성적인 것에 머무르려 하는 데서 오는 절망으로, 키르케고르는 심신의 종합인 인간을 가옥의 구조로 표현하여 인간은 지하실에 사는 것을 즐기려고 하며 진리의 빛 속에서 실은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산다고 했다.

두 번째 절망은 절망을 지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기를 욕구하지 않는 절망으로 ‘취약함의 절망’이다. 이는 새로운 자기이려고 소망하는 것으로, 인간은 상의(上衣)를 바꿔 입는 것처럼 쉽게 새로운 자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기는 외면성(外面性)과는 다른 것이므로 키르케고르는 이를 희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농부가 밭에 양말과 구두를 신어 자신의 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부에게



발 위로 지나가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절망은 자기에 대한 인식과 절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 있고, 외부의 타격이 아닌 내부의 반성 자체에 의해 절망이 야기되는 것이므로 절망적인 무지보다 한 걸음 진보한 절망이다.

세 번째 절망은 절망을 지각하면서 자기 자신이기를 욕구하는 절망으로 ‘반항’이다. 이것이 반항인 이유는 본래 무한한 자기의 추상적인 가능성을 욕구하여 자기를 설치한 힘과의 관계와 그 관념으로부터 자기를 떼어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항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며, 자기 내부에 갖고 있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의식과 절망에 대한 인식의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함의 절망보다는 한 걸음 더 진보한 절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토가 없는 국왕이라고 표현하며 인간은 본래 무엇 하나 통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반항은 육체의 가시가 박혀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가시가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려고 욕구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영원한 자기를 욕구하고 만족하며, 지상적이고 현세적인 고난에 대하여 무시하게 되는 절망이다.

기독교인이었던 키르케고르는 절망하고 있는 것의 반대는 신앙(信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절망에 대한 해독제는 믿음이며, 신은 모든 순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믿음으로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이 절망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절망은 실존의 구조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키르케고르는 신의 무한한 가능성 안에 자기의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절망을 견딜 수 있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전히 찾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신앙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개인의 영혼이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 중 하나인 절망의 본질에 대하여 고찰해보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감을 수도 없이 느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모르는 길로 끌려가면서 본인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절망에 대한 근원적인 고찰,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

마음근력 키우기



손민욱(70기)

일반적으로 우리는 푸시업, 스쿼트, 달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몸의 근력을 키웁니다. 또한 직접 몸으로 경험해가며 근력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근력이란 말은 생소하고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생도때부터 정신력(소위 약과 깡)을 키우는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입니다. 인지능력은 논리력, 이해력, 기억력, 지능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인지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성적(학점)이 좋으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믿기에 대학이나 기업에서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이 능력을 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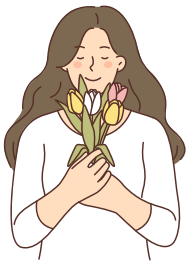
하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높은 성취를 이끌어 내는 사람들은 끈기, 집념, 동기, 열정, 집중력 같은 비인지능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마음근력은 대표적인 비인지 능력입니다. 따라서 강한 마음근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해내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음근력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두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자기조절력), ‘내가 다른사람을(대인관계력), ‘내가 세상을(자기동기력) 더 잘 다루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근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조절력, 자기동기력, 대인관계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꾸준하고 정직하며 집중력과



끈기를 발휘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않고, 감정조절력과 충동조절력 역시 뛰어납니다.

이러한 마음근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팔 근육을 발달시키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팔 부위를 단련하는 동작이나 행위를 체계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꾸준한 마음근력 강화훈련을 하면 내측전전두피질 신경망이 구축되어 특별한 노력이나 애씀없이도 충분히 마음근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근력 훈련은 뇌의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상을 통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한다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종교적 느낌이 들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명상은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피질 신경망 활성화를 위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하나의 훈련입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달리기와 근육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운동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용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야하는게 상식이 된지는 불과 수십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명상을 꾸준히 하여 마음근력을 키우는 것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뇌의 편도체를 명상을 통해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할 것입니다. 편도체는 우리가 안정시켜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노력한다고 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에서 통제되는 시스템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식적인 개입이 가능한 기능이 딱 하나 있는데 이는 호흡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대부분의 종교, 스포츠, 심신 단련에는 호흡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 한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편도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운동도 골프, 달리기, 축구 등 많이 있듯이 명상에도 수많은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명상의 방법만 소개하겠습니다. 명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허리를 곧게 펴고 경추 1번(목통과 두개골이 직접 연결되는 부위, 목 뒤쪽) 위에 머리를 잘 올려놓는 것입니다. 똑바로 앉아서 어깨를 내려뜨리고 머리, 어깨, 목, 얼굴의 긴장을 이완시키면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뇌신경계와 관련된 부위들의 긴장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나아가 부정적 정서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몸의 감각에 집중하여 나의 주의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다양한 명상에 대한 방법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뇌과학적 관점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의 신경망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굳어지거나 하지 않고, 시냅스로 이루어진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은 평생 계속 변화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국어 습득 외에는 얼마든지 새로 배우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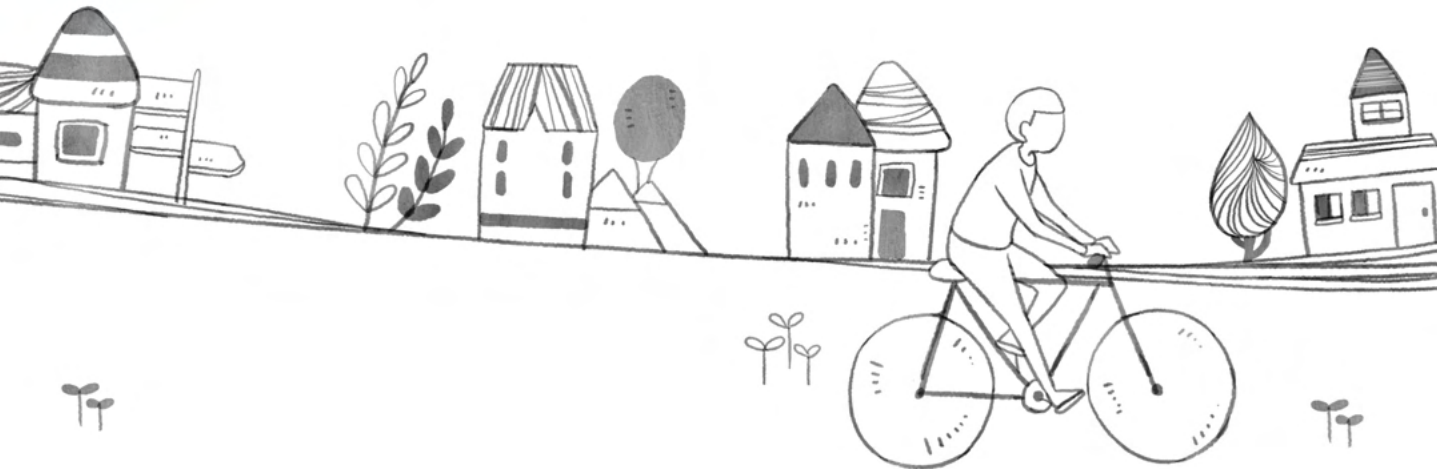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마음근력을 기르는 훈련을 통해 내 자신과의 내면 소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지고 내가 사는 삶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나를 바꿈으로 인해 나의 세상은 내 몸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산되고 나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인간은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만 한 집단은 결국 개인들이 마음을 합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력과 건강한 마음근력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인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우정 기고

236 순간에서 영원으로 / 이범욱

239 남편의 덕 아내의 자격 / 이명자





순간에서 영원으로



이범욱
(공사 발전후원회 명예회장)

과거 청주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했음에도 하잘것 없는 내륙도시였다. 예부터 양반의 도시에 웬 기차가 지나가느냐며 경부선 철도를 조치원으로 돌렸다. 유년시절 한여름에 소나기가 지나가면 무심천 위로 무지개가 펼쳐진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무지개’의 낭만에 젖어 들며, 암수 쌍무지개가 다시 떠오르면 그리운 님의 서정에 잠기곤 했다. 그의 시구詩句 마지막 구절에서 ‘어린아이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칭송하며 생의 갈림길에서 ‘자연의 섭리攝理(natural piety)’로 이어지는 영원회귀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주를 탈출해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며 나는 젊음을 무기로 푸른 목초지를 찾아 옮겨 다니는 ‘노마드nomad(유목민)’처럼 살아갔다. 1968년은 대학도 졸업은 하지만 전쟁 발발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연초부터 무장공비 김신조의 침투에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으로 전쟁 발발 일보 직전까지 갔다. 군에 강제징집되는 것이 두려웠던 시절에 공군 학사장교 57기로 자원하여 정보장교가 되었다. 공군에서는 최전방인 서해 백령도에서 복무를 했고 1971년 실미도 사건을 멀리서 지켜보며 중위로 예편했다. 바로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항공분야와 인연을 맺었고 21년 근속 중 10여 년은 해외의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집시 인생 그대로였다.

40여 년의 격동기를 보내고 돌아온 고향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어 있었다. 도심지를 한가운데로 한쪽은 공군 전투비행단, 다른 한쪽은 공군 사관학교가 들어섰고 인근 지역은 행정복합도시라는 세종특별시가 부상하며

국가적으로 떠들썩했던 시기에 귀향하였던 것. 고향에 돌아와 중부권 일간지인 중부매일의 경영과 충청북도 21세기 위원으로 도정에 참여를 했다. 17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청주공항이 세종시와 중부권의 관문 공항임을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국제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리고 보면 바다가 없는 충북과 청주는 하늘로 우주로 향하는 공군의 항공도시가 된 셈이다.

해외 활동의 경력과 주변의 권유로 국제로타리 회원으로 폭넓은 봉사활동에 짓발도 올렸다. 마침 공군사관학교 캠퍼스가 청주로 이전하면서 ‘발전후원회’가 발족 되었고 차터 멤버 charter member(창립회원)로 공식활동을 개시했다. 같은 학사장교 출신 75기 박종관 사장도 유일무이한 창립회원으로 후원회의 발전을 위해 같이 일하며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학교 발전기금의 전달은 물론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후견인 역할도 해오고 있으며, 지방에 산재해 있는 강릉, 원주, 충주, 청주, 서산, 대구, 사천 등 비행부대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일선 공군 장병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있다.

2019년은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을 하며 독립운동이 확산 된지 100주년에 공군사관학교가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4월 2일 4학년 졸업생도들을 위한 항법훈련차 하와이를 방문했다. 호놀룰루까지는 야간비행으로 기내에서 1955년 제작된 영화 ‘모정(慕情, Love Is A Many-Splendored Thing)’을 보니 옛 기억이 살아났다. 2차대전이 끝나며 종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중국은 국공내전에 휘말리는 시기다. 홍콩을 무대로 한 신문사 특파원 윌리엄 홀든(Mark Elliot 역)과 유라시아 혼혈 미망인 의사 제니퍼 존스(Dr.Han Suyin 역)와의 전쟁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중국인 작가 한수인의 자서전적 실화를 그린 소설로 한국 전쟁이 돌발하며 윌리엄 홀든은 종군기자로 파견되어 사망한다.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져 남과 북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며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실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현지에 도착해 미주리호 선상 한·미 동맹의 밤 행사에서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 찰스 브라운 대장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그는 흑인에 텍사스 공대를 졸업한 학군장교 출신으로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2번이나 근무한 지한파다. 지금은 미미합참의장이 되어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사람(My most unforgettable character I’ve met)’ 중 한 사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며 후원회 활동을 재개했다. 2023년 7월 1일 청주 공군 전투비행단을 방문하며 단장 및 주요참모진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공군의 상징인 영화 ‘빨간 마후라’였다. 1964년 장안의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절찬리에 상영된 영화로 주인공 배우 신영균님은 지금도 노익장에 사회적 봉사과 기여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전설의 실제 주인공 유치곤 장군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6.25전쟁 당시 203회 최다 출격이라는 신화도 그렇고 각본을 쓴 극작가 한운사는 더욱 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륙하면 동북쪽 하늘 아래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청안’이 한운사 선생의 고향으로 그의 기념관이 있다.

빨간 마후라를 두르기 시작하며 원조가 누구냐? 를 놓고 한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 제 11대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김두만 장군이 ‘순직한 김영환 장군’이라며 종지부를 찍어주었다. 그는 100세에 가까워가는 노년에도 봉사의 의인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공군의 역사는 겉으로는 화려한 듯 하지만 내면을 보면, 그 고통과 아픔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파일럿들이 조국의 하늘에서 산화되었던가? 한 가족에 한 핏줄로 부자간인 아버지 박명렬 소령과 아들 박인철 소령의 순직이 더욱 더 안타깝다.

복원된 AI 동영상으로 부인이자 아들의 엄마를 16년만에 만나며 “엄마, 인첵이예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생전의 모습과 말로 아들과 엄마의 동영상이 그대로 나온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에 정작 장본인 이준신씨는 얼마나 슬퍼하며 울었을까? 지나간 시간의 역사다. 이제 우리 공군은 조국의 영공을 지키며 하늘로 우주로 향하고 있지만 ‘Return to Base(기지 무사 귀환)’만은 꼭 지켜야 한다. 전우와 가족들, 그리고 공군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 ▶

남편의 덕, 아내의 자격



이명자
(9기 故 강춘근 동문 부인, 순조희)

2023년 6월 10일, 이 날은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개교 7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규율과 복종, 절도로 상징되는 아름다운 생도들의 요람인 공군사관학교 개교 74주년을 축하하며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아침 8시 30분경 출발하여 기념식 시작 전 가까스로 도착하니 대연병장 관람석에는 이미 많은 관중들로 질서정연하게 축제의 개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대열을 갖춘 사관생도들이 입장하고 행사 식순에 따라 진행된 생도들의 분열식은 장관이었습니다.

생도들의 퍼레이드가 끝나고 퇴장하자 우리 공군의 자랑인 블랙이글스의 공중기동 에어쇼가 진행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멘트가 끝나자 눈감작할 사이에 대형

을 갖춘 8대의 블랙이글스 편대가 창공을 진동하며 보여준 공중 묘기에 마냥 감탄하였습니다.

블랙이글스 편대의 창공을 뒤흔드는 엔진소리는 어느 아름다운 오페라의 음악소리보다 더 황홀했으며, 내 나이 83세인 지금도 전투기의 엔진소리를 너무도 좋아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전투조종사의 아내인가 봅니다.

블랙이글스의 묘기를 보다가 눈에만 담기 아쉬워 핸드폰에 저장하고 싶은 마음에 몇 컷을 찍었는데 손이 떨림의 작품치고는 나름 제법 잘 찍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대형, 다이아몬드 편대 대형 등 카메라에 담았으나 에어쇼 맨 마지막 2대의 블랙이글스가 창공에 대형 태극기를 만드는 그 장면을 놓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당일 기상청 예보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올 것이라고 했으나 행사하기에 매우 쾌청한 날씨였고, 학교 당국이 계획한 모



든 행사가 무리없이 진행되었던 축복된 날이었습니다.

이 날 개교 74주년 기념행사와 겸하여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21기 임관 50주년, 31기 임관 40주년, 41기 임관 30주년이므로 모교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일반행사가 끝나고 생도들의 분열행사 시 마지막 생도들의 뒤를 따라 임관 20주년을 맞이한 51기 졸업생들의 패기 있고 멋진 행진에 수많은 관람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그들의 발걸음에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나도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내가 오늘과 같은 영광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공군사관학교 9기 故 강춘근 대령 바로 '내 남편의 덕'이며 그의 '아내 된 자적'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내로 산지 올해로 56년입니다.

결혼 생활 8년째이던 1975년 6월 12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111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이던 내 남편은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기 위한 야간비행임무로 오후 5~6시경 이륙 중 그토록 사랑하던 애기와 함께 산화하셨습니다.

엔진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그 날이 내 남편의 마지막 임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뜻과 관계없이 8살 아들, 6살과 4살인 딸들 이렇게 세 아이들과 함께 어느 순간 미지의 지구밖으로 떨어져버리는 무섭고도 두려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80 초로의 나이로 내 남편과의 짧지만 아름다웠던 그 옛날을 그리워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라는 교가를 불러봅니다.

오늘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전투조종사와 공군 전 장병에 감사하며,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우리는 지금도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Great Possibility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

누가 지켜갈까?

PONGSAN

우리 육해공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탄약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풍산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관생산시스템을 갖춘 종합탄약 생산기업
풍산이 평화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PONGSA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정로 23 풍산빌딩
TEL : 02)3406-5114 FAX : 02)3406-5400

IC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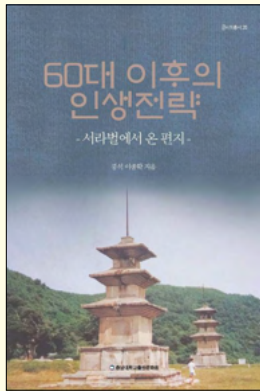
ICEYE는 세계 유일의 고성능 뉴스페이스 레이더영상 (SAR) 위성과 기술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주산업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ICEYE.COM/MISSIONS](https://iceye.com/missions)

성무인의 신간도서



01 『60대 이후의 인생전략』 이종학(3기)

그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책은 저자가 군사학 박사과정의 학생들(대략 50대 전후)에게 군사전략 수립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인생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 이유는 60대 전후하여 퇴직하면 요즘은 100세 시대라 앞으로 40년간의 인생목표를 확고히 정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60대 이후의 인생은 황혼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결실기와 황금기임을 역설하였다. 이 도서의 홍보문구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독립과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비하라”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02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사업사』 이견일(14기)

이 책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정치사업을 그 유래와 함께 시기별로 공산혁명시기, 마오쩌둥 영도시기, 문화대혁명시기, 덩샤오핑 영도시기, 장쩌민·후진타오 영도시기, 시진핑 영도시기에 이르기까지 정치사업의 변천과정과 전망을 기술하였으며, 대륙전략연구소 총서 제 12권호로 등재되어 있다.

〈삼화 SHBOOKS〉





03 『미 공군의 한국전쟁 항공작전』 장호근(17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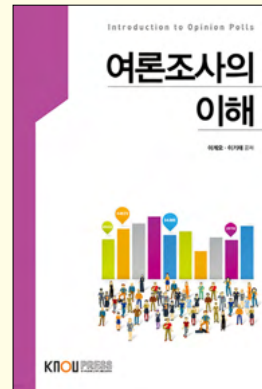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가 한반도에서 발발한 6.25전쟁사를 삼군사관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발간하게 되었으며, 저자가 자신의 전투조종사로서의 경험과 30여 년간 쌓아온 군사전문지식을 토대로 미 공군대학에서 발간한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출판물’ 시리즈에서 미래 공군작전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을 발췌하여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였다. 미래전을 준비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의 필독 도서로 추천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일독을 권하는 책이다.

《도서출판 인쇄의 창》

04 『여론조사의 이해』 이계오(19기)

매일 여러 종류 여론조사결과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다루어질 정도로 여론조사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람들의 호기심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조사결과는 수많은 사회적 의사결정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이 있는 해에는 수십 여종의 여론조사에서 상이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진위여부에 관한 많은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던 여론조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본 교재에서 다루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여론조사의 개념과 역사, 여론조사의 과정, 각 분야의 여론조사 사례 등으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05 『길은 멀어도』 강임구(24기)

영공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와 생각한다. 그렇게 가깝게만 여겨지던 하늘이 이젠 먼 공간으로 자리하고, 떠도는 구름이 고목나무 그림자 같이 보여진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푸르고 푸른 영공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는 더 높은 태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나를 깨워 노래 불러본다. 먼 옛날부터 불러왔던 가락에 신명을 불어 넣어 시절가조를 읊어 본다. 시조집은 내 영혼이 숨쉬는 노래책이고 가사집이다.

《오늘의문학사》

06 『에어버스 320/NEO 안전비행 기법』 송기준(25기)

이 책은 저자가 모든 민간 항공기 비행 운영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비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라는 안전 주안점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다. Airbus를 처음 비행하는 조종사나, 승급을 원하고, 조종사 혹은 기장으로 승급되었지만 Airbus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 지식과 기량, 안전요소에 대하여 요구되는 조종사,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조종사를 위하여 정리한 최초의 종합 안전지침서이다. 한편, 이 책자는 A-320/NEO를 중심으로 한 절차지만 모든 Airbus 계열 항공기에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명시된 절차나, 안전저해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독하고 실제 비행 시 적용한다면, 모든 기종에서 완벽한 안전운항이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



《도서출판 동인》



07 『민간항공조종사 운항입문 지침서』 송기준(25기)

이 책은 민간항공 조종사 운항입문 지침서로서 민항조종사가 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지침과 민항조종사를 위한 비행지식 및 비행테크닉에 대한 지침서이며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조종사가 되는 길, 조종사의 신상과 개인 관리
- (2) 민간 항공기 기본 System
- (3) 민간 항공기 보조 System
- (4) 민간 항공 조종사의 비행 임무 수행
- (5) 항공기 접근 절차
- (6) 민간 항공 분야 사용 주요 운항 용어

〈도서출판 동인〉

08 『나는 하늘로 출근한다』 은진기(26기)

이 책은 저자가 공군 전투조종사 생활 16년과 민간항공사 생활 27년, 총 43년간의 파일럿 생활을 자전적 에세이로 펴냈다.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동기부터 사관생도 시절의 갈등과 보람, 점차 군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전투조종사가 된 후 임무에 대한 몰입과 작전을 성공한 성취욕을 다루었으며, 90년도에는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된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항공사에 입사한 후, 교육과정, 기장 생활을 설명했고, 팀장, 임원, 운항본부장으로 역임하며 겪은 일을 그렸다. 조종사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지침이 되길 희망한다.



〈북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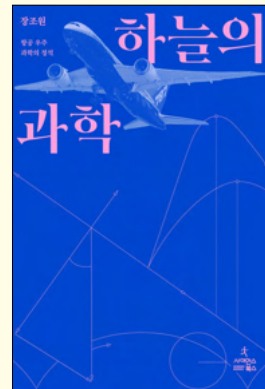
09 『감나무 가지에 걸린 달빛으로 자라기』 이덕대(27기)

이 책은 치열한 경쟁과 피할 수 없는 갈등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고단한 이들에게 전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로서 가난한 강을 어렵게 건너야 했던 보릿고개 세대의 아픔과 서러움을 따뜻하고 담백한 서사로 소환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삶이 필요함을 담았으며, 잊히고 사라져 가는 소시민의 담박(談泊)한 일상들이 아름답게 담겨 있다. ‘소확행’을 추구하는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메시지로서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작가 특유의 감수성과 서정성으로 특별하게 그려낸 책이다.

〈바른북스〉

10 『하늘의 과학소개』 장조원(30기)

이 책은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인 저자가 물리학과 수학이 항공 우주 분야에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다룬 책이다. 인류가 하늘을 날기 위해 고안해낸 모든 비행기나 우주발사체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물리 법칙과 이를 표현한 수학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민항기 조종석에서 바라본 하늘길’, ‘항공기, 이륙에서 착륙까지’, ‘비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과학 원리들’, ‘발전하는 항공기 속 첨단 과학’, ‘항공과학, 하늘을 넘어 우주로’ 총 5부로 구성됐다. 저자는 항공 우주 과학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풀어 쓴 전작 〈하늘에 도전하다〉와 〈비행의 시대〉의 연장 선상에서 수백 톤의 쇳덩이가 하늘에 뜨는 현상을 물리 법칙과 수학으로 명쾌하게 풀어놓았다.



〈사이언스 북스〉



11 『우물로 본 조선역사』 김 훈(34기)

우물로 본 조선역사는 조선의 생각과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술한 역사기행안내서이다. 본 책은 조선의 역사를 신라부터 조선까지 건국우물 설화와 조선의 건국 과정을 담은 건국의 우물, 왕권의 우물, 민생의 우물, 사람의 우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한 국난의 우물, 영·정조시대를 조명하는 변화의 우물, 세도 및 섭정정치의 혼돈의 우물, 근대의 우물, 을사늑약에서 광복에 이르는 부활의 우물이라는 9개의 우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보다 조선인의 시각에서 역사를 접근하기 위해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도교·풍수·무속신앙·천주교와 사상적 상호관계에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일부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설명은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통해 기술되는 다소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바른복스》

12 『무기가 바꾼 세계사-석궁에서 수소폭탄까지』

김승규(39기)

이 책은 버나드 브로디, 폰 브로디의 저서를 번역한 것으로 기원전부터 1970년대의 핵 냉전 시기까지 전쟁에서 무기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사용되었고, 역사의 변화 속에서 과학과 정치, 산업과 함께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원서는 각주가 전혀 없고 서양사와 무기 체계에 정통하지 않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역자는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23개의 주석을 추가했다. 독자들이 전쟁과 무기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역자의 섬세한 열망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군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흥미롭고 유용한 책이라고 평가된다.



《양문출판사》

동문 동정

12기 은성회

기생 컬러(color)가 독특하다. 자유분방하면서도 뭉치는 응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경일에는 반드시 동기 친목회를 한다. 걸을 수 있는 동기생은 다 나온다. 그리고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애국충정을 다짐한다.



지난 3.1절과 8.15 광복절에 서소문로 '고려삼계탕'에 모였으며, 이즈음 대구 동기생들은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지를 다녀 왔다.

이미 팔순을 지났지만 아직도 젊은 날 그 개성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 아스라이 지나간 순수의 생도 4년과 열정의 군 생활 이야기로 웃고 또 웃었다. 우정은 끝없이 넘쳐 흐르는 강물이었다. 이제 모군 공군에 남긴 발자취는 먼 전설이 되었지만 우리 인생의 전성시대로 메아리쳤다. 시에스타(siesta)에서 커피 한잔을 들고 시청앞 행사장으로 향했다.

22기 상매회



이영하 동문이 연합매일과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구회, 뉴스파일 및 교통교육복지연구원이 주관한 2022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문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회원은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도적 정신과 리더십으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한 바를 높이 사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24기 웅배회



김득환 동문이 2월 15일 사단법인 희망의 다리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공군 소장 출신으로 한국 항공대학교 항공 우주정책 연구소장과 초빙교수로 임용된 후 14년간 후학 양성에 힘썼다. 임기는 2025년 11월 5일까지로 김득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초대 이사장인 유재건 이사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캄보디아에 직업학교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28기 애채회

동호회 활동

애채동기회 산하에 등산동호회(회장 이석원), 골프동호회(회장 정형래) 및 자전거 동호회(회장 김명현)를 두고 있다. 각 동호회장은 당연직 동기회 임원이 되며 각 동호회를 이끌고 있다. 등산동호회는 매달 첫 금요일 서울 근교 산이나 둘레길을 걷고 있고, 골프동호회는 월 3회 3팀씩 만나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 자전거동호회는 서울 근교 한강자전거길에서 주말/주중 라이딩을 실시하고 있다.



동호회 활동

- 윤 우 : 항공우주력연구원 원장
- 김형철 : 제12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장 취임(2022년 11월 1일부)
- 김남수 : 제9대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취임(2022년 12월 1일부)



☺☺☺ 30기 창로회

김영산 (사)재난안전드론협회 고문이 3월 29일 국회출입기자클럽과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 주관한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안보부분 'K-드론글로벌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산 고문은 2022년 (사)재난안전드론협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공익 활동사업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아동센터, 신한대학교 등에서 '내 고향 재난안전지키미 드론운용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38회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드론 관련 이론 강의와 체험용 드론 실습, 재난안전드론 촬영 방법 등을 교육하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등의 역할을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되었다.

☺☺☺ 31기 한돌회



이왕근 동문이 12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추계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주 콜롬비아 대사 신임장을 수여받았다.

이 동문은 공군작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및 제3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 33기 비호회



'22.9.30. 60주년 기념 골프대회



'22.12.6. 비호 송년모임

44기 다물회



호국의 달 6월에는 매년 대전 현충원에서 순직 및 동기생 추모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3년에는 6월 1일 실시하였다.

1999년 일명 '맹물 전투기' 사건을 비롯하여 동기생 5명과 ROTC 동기 2명 등 총 7명의 비행사고 순직 동기생, 생도 생활 중 백혈병으로 작고하여

하사로 부사관묘역에 있는 동기생, 근무 중 심장마비로 작고한 동기생 등 총 9명의 동기생들에 대한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50기 다물회

2018년부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2회씩 치러진 '공사 50기 전국 테니스대회'가 올해로 6회째 개최를 하였다.

이번 대회는 모교 공군사관학교 성무대에서 이틀에 걸쳐 성대하게 치러졌다.

첫째날에는 동기생들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대회 대진표 및 파트너 선발 추첨을 하였으며, 둘째날 본경기에는 10개팀 20명이 출전하여 갈고닦은 테니스 실력을 뽐냈으며 그 결과 송형식-강현모 편조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앞으로도 공사 50기는 지속적인 모임과 운동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군 및 사회의 중견 구성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미주 서부지회 소식



공사 총동창회 미주 서부지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공군전우회와 함께 6. 22(목) 중식당 '용궁'에서 한국전쟁 참전 전우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총 27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사 동문은 8명이 참가하였다. 현재 미주 서부지회는 20명의 동문이 거주하고 있으나, 연로하심과 건강상 문제로 10명 정도만 모임이 가능하여 행사는 전우회와 공동 개최하고 있다.

심인태(공사30기) 지회장의 사회와 국민의례, 전우회장의 축사와 공사 총동창회장의 격려사 대독으로 진행 되었으며, 참전 전우(6명 중 4기 온성철 동문 외 4명이 공사 동문) 전원과 공군 전우회 LA지회는 한미동맹강화에 노력한 공로로 미연방하원의원(CA. Young Kim)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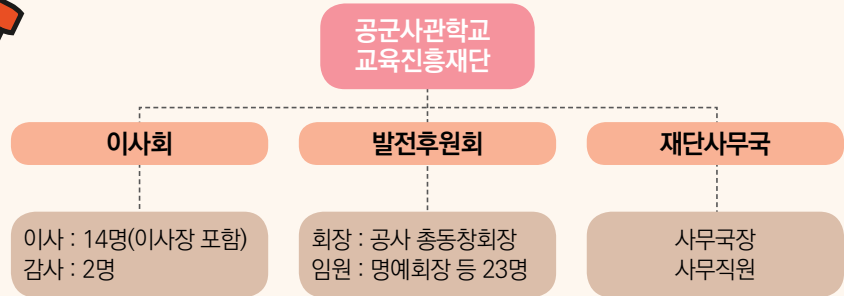
주제발표 시간에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이루어진 근세 한반도의 역사와 공군, 6·25전쟁시 한국공군과 미공군의 활약과 전과를 공군사를 통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공사 총동창회에서 후원금과 공사라고 타올을 지원해주어 참가 전우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였다.





교육진흥재단

- **재단 명칭** : “재단법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1996. 06. 재단설립(충청북도교육청 허가 제12-376)]
- **설립 목적** : 공군사관학교 생도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진흥사업에 기여함
- **조직 편성**



■ 발전기금 기부 및 집행 현황

〈22. 12. 31. 기준〉

발전기금 기부현황 (출연자별)			발전기금 집행현황(누적현황)		
구 분	금액 (억원)	비 고	구 분	세 부 내 용	금액 (억원)
기업 및 단체	51	• (주)삼성테크윈 • 삼양화학공업(주) • 부영(주) 등 95개 단체	생도 국내·외 견문 확대	• 해외항법훈련 • 안보·문화 역사유적지 견학 (한민족 역사탐방) • 외국 사관학교 방문(5 ~ 12개국)	33.8
			생도 학술 문화·체육 활동	• 각종 대회출전(축구, 드론 등) 및 성무제 지원 • 공사를 빛낸 생도 격려 • 교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등 (모의 UN대회 등) • 생도강의 초빙 강사로	
동문	51.1	• 학교동문 1,799여 명 71개 단체 (동기회 등)	지정 기부사업	• 풍서 군사학연구 기금 • 로스트악스 항공학술 기금	4.1
학부모 및 후원자	8.9	• 학부모/후원자 등 459여 명	교수/생도 학술연구 활동	• 교수 국외 학술교류 및 세미나	0.9
			생도대 생활관, 체육시설 등 환경개선	• 생활관 휴게실 리모델링 • 생도대 명예광장 전광판 교체 • 생활관 냉장고, 의류건조기 교체 • 생도대 테니스장 펜스 교체	2.8
합계	111.0	총 2,424여 명 166개 단체	합계	-	49.7

■ 교육진흥재단 안내

- ▶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 <http://kafaf.or.kr>
- ▶ 출연 문의 :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사무국 (전화) 043-290-6120, 6123

회원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 군인공제회 C&C는

- ☑ 국방 MSP 전문기관입니다.
- ☑ 국방 장병 대상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국방 첨단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국방 IT 선도기업**입니다.

▶ 현재 추진 사업은



TEL 02-2139-0513 / FAX 02-2139-0519 / WEB www.mmaacnc.or.kr

▶ 군인공제회 복지플랫폼(HAY-WEL) 혜택

- ☑ **가입대상 : 군인공제회 회원 및 가족**(회원 : 군인,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예비역)

최신휴대폰 할인혜택



나라사랑모바일과 함께
최신휴대폰 할인혜택
(SKT, KT, LGU+)

LG전자 렌탈서비스



오직 회원만 정상이 대비
15%할인혜택
+ 계약기간 내 **무상A/S**

종합 건강검진



현역/예비역/군가족 모두
100만원대 종합검진을
28만원에!

야놀자 혜택



상시 숙박 할인혜택 4%
레저 2% 할인

- ☑ **신청방법 :** ①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www.mmaa.or.kr)
② 복지포털 ▶ 기타복지 접속 ▶ 복지플랫폼

은퇴 후 예비역 회원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쓸쓸하고 확실한 선택은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입니다.

현역 · 예비역 모두 군인공제회 회원가입이 가능 합니다! ('23.11.16일부 금리인상)

* 홈페이지(www.mmaa.or.kr), 모바일앱 로그인후 회원가입가능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 여유자금 관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

■ 가입대상 : 현역 회원, 예비역 회원

■ 가입금액 : 100만원 ~ 10억원
원 단위로 가입

■ 금 리 : **5.20%**
(세전, 확정금리, 2년 만기지급식 기준)

■ 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 선택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시뮬레이션 (2023.11. 16. 만기지급식, 세전 기준)

구분	6개월 (4.35%)	1년 (5.00%)	2년 (5.20%)
1억원	2,175,000원	5,000,000원	10,400,000원
3억원	6,525,000원	15,000,000원	31,200,000원
7억원	15,225,000원	35,000,000원	72,800,000원

※ 금리는 가입 후 만기까지 확정금리이며, 만기 후 재가입 시 공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비교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 포함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 연복리 적금의 새로운 선택

■ 가입대상 : 현역 회원, 예비역 회원

■ 가입금액 : 월 5만원 ~ 1,000만원
1만원 단위로 가입

■ 금 리 : **5.00%**
(세전, 변동금리, 연복리 적용)

■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선택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시뮬레이션 (2023.11. 16. 세전 기준)

구분	3년	5년	7년	10년
30만원	11,654,078원	20,427,006원	30,099,159원	46,497,617원
100만원	38,846,926원	68,090,019원	100,330,530원	154,992,056원
200만원	77,693,851원	136,180,039원	200,661,061원	309,984,112원

※ 만기시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으로 전환 가입신청 가능
※ 가입일, 매월 실제 수납일, 지급기간에 따른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실질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고객센터 1544-9090, 1599-9090 (군) 900-7227

M PLUS 군인공제회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총동창회·연구소 알림

>>총동창회 운영 현황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10,685명
- 현재 인원 : 9,714명
- 예비역 인원 : 5,622명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2022. 12. 31 기준

구분	수입	지출	비고
인수 기금	1,192,434,347		28차년도
29차 증식	회비	50,800,000	
	예금 이자	17,250,487	17,250,487
적립 총액	1,260,484,834	17,250,487	잔액 : 1,243,234,347

성무 장학기금 현황

2022. 12. 31 기준

구분	수입	지출	비고
인수 기금	85,400,838		28차년도
29차 증식	모금	29,124,232	
	예금 이자	18,091,434	
장학금 지급액		17,800,000	총 20명 지급
적립 총액	132,616,504	17,800,000	잔액 : 114,816,504

2022년 주요 추진사업

1. 70기 졸업 축하 및 격려 간담회 : 최용덕상 수여
2. 성무 장학금 전달 ('22.6.)
3. (사)성무안보연구소 홈페이지 개설('22.9.29.), 제2회 안보학술세미나 개최('22.11.17.)



4. 지역사회 불우이웃 돕기 : 청운보육원 영아 돌잔치 후원('22.9.29.)
5. 친목 산행행사('22.10.26.)
6. 성무지(51호) 발간 ('22.10.30.)
7. 졸업 및 임관기념 행사('22.11.26.) : 20, 30, 40, 50, 60기
8. 순조회 초청행사('22.12.7.) : 공군전우회 공동주관 오찬 및 전회원 선물 증정
9. 순직 조종사 추모사업 : 조의금 및 근조화 지원
 - 이장희(40기), 전용안(42기), 심정민(64기), 정종혁(69기), 차재영(69기)

제30차연도 총동창회 운영 임원

- 회장 : 정경두
- 감사 : 이재현, 박성준
- 부회장 : 이용곤(선임), 구 정, 김광희, 김무겸, 김성용, 김성원, 김영산, 김정근, 김종석, 박성희, 박종완, 서교선, 손한섭, 신호재, 심인태, 심재천, 양태현, 우정규, 이권우, 이성남, 이연수, 이종식, 이환영, 장조원, 정명환, 정 수, 정의길, 정태상, 조보근, 조영봉, 조홍대, 채덕상, 최영훈, 최종묵, 황기영
- 사무총장 : 이학주
- 후원 : 공사 30기 사관 일동



>> 평생회비 납부 안내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국민은행 485501-01-34342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평생 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적립기금으로써,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 분담하는 회비이며 1인 당 20만 원입니다.

납입하신 회비는 총동창회 연간 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본 기금의 연간 이자는 성무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여 회원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원금은 은행에 계속 적립하여 향후 총동창회관 등의 건립에 사용할 예정으로 미납 회원들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회비 납부현황

평생회비 완납기수 1~35기, 52기, 57기, 59기, 61기, 63기, 64기, 65기, 66기, 69기, 70기

30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2. 10. 01~'23. 10. 1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 명단
36	253	133	120	강휘태, 곽상기, 김건중, 김병환, 김성수, 김진태, 김해룡, 남상준, 문홍걸, 박상배, 박상준, 박선규, 박영준A, 박준용, 배종우, 손형수, 양택권, 오세철, 이동식, 이병열, 이성원, 이영근, 이재환, 이창준, 장윤섭, 정삼열, 정우석, 정재묵, 정형석, 조인철, 차승천, 최운식
37	255	118	137	권재성, 김광진, 김동하, 김선열, 김연규, 김영역, 김원범, 김윤희, 김정윤, 김준수, 김창배, 김철수, 박 응, 박종출, 박찬선, 박태원, 안제성, 염성진, 오상섭, 이대진, 이영권, 이재권, 임현철, 전상진, 최진욱, 한경건, 한덕완
38	231	100	131	강대근, 강형순, 고영민, 김경서, 김정록, 김종태, 김창호, 김창홍, 김천수, 김철수, 남기진, 문은배, 박상준, 손두천, 안영민, 오인환, 윤상준, 이관태, 이영권, 정영택, 정재준, 최성희, 최승지, 황훈철
39	220	86	134	강대권, 강문성, 강하근, 강한태, 공승배, 곽상훈, 권오석, 김근수, 김근영, 김만진, 김석우, 김성규, 김성보, 김승규, 김영일, 김용일, 김은성, 김재관, 김정중, 김종하, 김주용, 김태영, 김태환, 김택선, 김형수, 김형우, 남완수, 도재준, 문권기, 박상호, 박윤기, 박재일, 박종수, 박해영, 신정석, 심우찬, 오윤균, 윤대석, 윤진호, 이경주,

				이경호, 이광수, 이근석, 이동기, 이동선, 이상규, 이상현, 이석도, 이성수, 이정운, 이창훈, 임병철, 전지훈, 정성수, 정연성, 조영학, 주상희, 진영승, 최세웅, 최용석, 최춘송, 한기홍, 한창욱, 허달행, 홍국환, 홍동진, 황보근
40	241	41	200	권혁선, 김성수, 김영채, 김주현, 김창성, 류연주, 박기현, 박춘식, 방성호, 신정치, 여태익, 오제정, 이성복, 임주용, 임찬혁, 한경환
41	242	57	185	강석구, 강종구, 권남호, 김경태, 김동석, 김용웅, 김장주, 김종수, 김중호, 노채정, 맹헌재, 문도철, 박병규, 박병수, 박성수, 박종규, 박창근, 박필환, 손찬선, 송봉주, 신용규, 양동인, 엄경호, 예성욱, 오홍균, 이광조, 이동훈, 이상수, 이진욱, 이충재, 이형동, 이형현, 임태경, 장 훈, 정두성, 조대현, 조인표, 지금배, 진태범, 차준선, 최연화, 최원규, 홍성철, 황성범 (故 고석철)
42	275	70	205	강민규, 강종훈, 강중희, 권영민, 김견수, 김관호, 김기연, 김원태, 김은희, 김진식, 박근우, 박명환, 박상오, 박종철, 박홍준, 백성욱, 성기문, 송준혁, 안용규, 오병선, 오세종, 윤석보, 이기용, 이성철, 이수원, 이승호, 이양수, 이재근, 이종서, 이태규, 이항기, 장성호, 정찬수, 조현구, 진경언, 최경호, 최병국, 최원석, 한준희, 하여식, 황영식
43	271	38	233	권혁제, 김석중, 문성수, 백세일, 봉동원, 양청일, 윤용복, 이상은, 임명종, 정홍구, 한태연
44	221	66	155	강성원, 강택신, 고대건, 공두완, 권태우, 김근원, 김남규, 김대현, 김성중, 김인철, 김주철, 김주현, 김진욱, 김태호, 김형렬, 남동우, 남제광, 민경원, 박준범, 박중환, 박철희, 서광우, 손태수, 안동욱, 오주훈, 이명주, 이승신, 이재경, 이형만, 임진혁, 전남희, 정민철, 정병호, 정의상, 정호성, 조세영, 천홍윤, 한만준, 한방석, 현상열
45	220	24	196	박주진, 소승호, 최광현
46	227	18	209	김용진, 김원진, 김종대, 박도영, 서영완, 양경철, 이수연, 한동희, 한진수
47	201	65	136	강금석, 강영호, 고재평, 권 윤, 길영선, 김남수, 김성환, 김진욱, 김진화, 김태경, 김판경, 김현식, 남승현, 류시윤, 류현수, 문승준, 박성철, 박재우, 박진구, 서선호, 서중철, 석용호, 송태복, 안용덕, 안정제, 양태영, 염인순, 우종범, 우창호, 이영진, 이영찬, 이재용, 이형재, 이흥균, 인성호, 장병욱, 전용희, 전종훈, 전준언, 정민우, 정인창, 정해욱, 조석호, 조세희, 조오형, 조형진, 주민성, 주민국, 채춘식, 최 진, 최진영, 최환석, 추근수, 한재백, 홍관선, 홍주영, 홍철의 (故 김부찬, 故 안우진)
48	192	122	70	구본근, 김범준, 김종선, 김형수, 백승규, 송용호, 오근교, 오현철, 정성갑, 조남현, 지병규, 진경택, 최경환, 황호성
49	200	65	135	강명호, 고을표, 구동완, 권광수, 권승환, 김영수, 김용신, 김진완, 김치상, 김태욱, 김한봉, 민석환, 박경애, 박상진, 박성주, 박성훈, 박종규, 박지원, 박찬영, 배만수, 변문철, 변수지, 송장석, 심동현, 양동희, 오상석, 오종수, 유광진, 윤건형, 이대진, 이명환, 이성훈, 이승운, 이우중, 이인성, 이정영, 이종석, 이종희, 이주호, 이현석, 이현우 (1중대), 이현철, 임성훈, 임승재, 임재철, 장순기, 장원배, 전경배, 정소윤, 정용선, 정원식, 정인덕, 최명렬, 최민철, 최병주, 최상복, 최정록, 최현규, 편보라, 하승완, 한용태, 홍정진
50	193	43	150	강대훈, 강성공, 강은미, 강정현, 고대산, 고상희, 김기태, 김기훈, 김동현, 김성환, 김현성, 김현욱, 박다현, 박삼규, 박주언, 박주훈, 박준규, 박훈방, 손다해, 송경섭, 송병준, 신승환, 신용주, 오민균, 유형일, 윤영욱, 이병현, 이상일, 이일주, 이찬경, 임종규, 장병규, 정영욱, 정 철, 조은애, 최기환, 최주호, 하정미, 황영민

>> 평생회비 납부 안내

51	203	77	126	강성철, 강일학, 곽정현, 권 율, 길현경, 김경민, 김경희, 김계한, 김대웅, 김대원, 김대현, 김동우, 김두중, 김명일, 김성경, 김성진, 김수민, 김원섭, 김준기, 김준섭, 김준수, 김해영, 김형진, 도정무, 류형준, 박대상, 박성수, 박인식, 박주원, 배국호, 백동희, 서재웅, 서충식, 송선호, 송인성, 송철호, 신우찬, 신제현, 신행종, 심규용, 안영환, 엄창순, 오병훈, 오수백, 윤원상, 이경수, 이국노, 이규원, 이대규, 이성훈, 이성희, 이승재, 이영한, 이인선, 이진건, 이현식, 장동철, 전상욱, 정기윤, 정성훈 (6중대), 정찬화, 주성근, 지수찬, 지한규, 최민우, 최성규, 최영동, 최재영, 최정현, 하유미, 한미연, 한성우, 한태량, 홍승화, 홍찬희		
52	202	202	0	민병철, 박훈제, 오승현, 194명 대납		
53	211	6	205	임성균, 정이준		
54	192	8	184	권기택, 김형태, 송민성, 송정학, 이경주, 정희승, 추연홍, 황하준		
55	186	34	152	김 건, 김덕렬, 김두현, 김민정, 김병조, 김소영, 김승환, 김현식, 김형일, 문준모, 박기남, 박정열, 반대용, 배대열, 송명은, 심범준, 안시현, 양대도, 양성봉, 엄승재, 오홍식, 윤호용, 이명재, 이명진, 이문화, 이창현, 이화섭, 정희상, 최병준, 최원일, 현동환, 황진하		
56	155	61	94	기한별, 김규하, 김상현, 김승범, 박경욱, 박성훈, 박재훈, 박주현, 배성민, 양광돈, 양석환, 양은호, 오현진, 윤유정, 이동인, 이명희, 이민병, 이인석, 장혜영, 전태수, 정성윤, 정승호, 정신기, 정용민, 조계연, 조해광, 좌성호, 진지웅, 최기택, 최현욱		
58	134	8	126	권인혁, 김남석, 김한석, 엄지호, 오혜령, 조용덕(4중대), 최재현, 홍성규		
60	148	24	124	권신혁, 권오규, 김명각, 김지혜, 목종필, 박 빛, 박성우, 박영빈, 양윤영, 오윤석, 유희원, 윤상호, 윤해림, 이상일, 이원화, 이조은, 이화연, 장진호, 전재휘, 정성원, 정연중, 정우철, 주현철		
62	145	1	144	조현웅		
64	160	160	0	110명 대납		
66	136	135	1	이상현 제외 135명 대납		
67	148	2	146	노정훈, 장예훈		
68	158	3	155	김지우, 이경환, 차재원		
69	170	170	0	강민길, 김성후, 문지혁, 박지홍, 서명건, 신인섭, 엄지수, 이승현, 이재현, 주승규, 160명 대납		
70	180	180	0	김상민, 석정민 (위탁생도 2명 추가 납부)		
71	188	101	87	김호정, 100명 대납		
합	현재인원 : 10,073		납부인원 : 6,133		미납인원 : 3,940	

※ 명예졸업 준회원 27기 송중현, 28기 김도태, 김요안, 양영재, 한치덕, 29기 백용호, 35기 김논영 완납

※ 입금명 '공사총동창회비' ('12. 7. 27) 로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기수와 성명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무 장학사업 안내

목적 회원 유자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부모님 추모 및 성무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학업에 전념 지원

대상 공사 총동창회 회원 유자녀 (초, 중, 고, 대학생)
※ 공본 '하늘사랑 장학재단' 수혜자 제외

금액 대학생(200만 원), 고등학생(100만 원), 중학생(70만 원), 초등학생(50만 원)

기금 적립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후원금 (평생회비 기금 이자 및 사업비 잔액)
- 성무지 발간 광고비 중 제비용을 제한 잔액
- 동문 개인 및 기업 등 단체에서 장학기금으로 기탁한 기부금 등

성무 장학금 신청 방법

- 관련 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kafaaa.or.kr) > 성무장학기금
 - 보낼 곳
 - 우편 : 0694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2, 태성관 3층 공사총동창회
 - 이메일 : 04airfa@hanmail.net (추후 관련 서류 원본은 우편 제출)
- ※ 각 기생회장/총무는 해당인원 여부 파악 및 안내 요망

성무 장학기금 기탁 하신 분 (2023. 10. 1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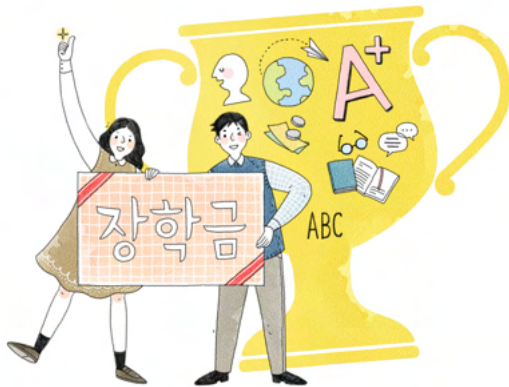
(개인 : 160명, 단체 : 6, 총계 : 10,249만 원)

기수	인원	성명 (금액)
1		
2	1	박재성(100)
3	1	백낙승(100)
4		
5		
6		6기 동기회(200)
7	1	한주석(100)

8		
9		
10	13	이달호(10), 10기 산우회(300) : 강위훈, 권영락, 김완수, 김윤제, 김태석, 김한용, 서진규, 송중호, 이현재, 임승욱, 장풍길, 한정복
11	1	이광학(100)
12	1	박춘택(100)
13		
14	1	이억수(100)
15	2	김덕훈(100), 김주식(10)
16	3	김익래(100), 김회동(20), 임정빈(10)
17	5	강희간(100), 고영섭(30), 김익창(10), 이문호(10), 이한호(100)
18		
19	3	민주동(20), 정성진(20), 정하섭(20)
20	5	김성일(100), 김정기(30), 손준영(30), 이재명(100), 한광성(30)
21	7	김창욱(50), 김태욱B(100), 배민섭(10), 배창식(30), 신문식(30), 유근국(10), 이광영(30)
22	5	김은기(100), 민형기(10), 오원용(20), 이영하(20), 정 양(20)
23	4	23기 동기회(200), 이계훈(50), 유연도(10), 이정욱(20), 장창연(10)
24	6	24기 동기회(1,000), 김득환(50), 이준우(20), 임호순(30), 최재희(30), 최종용(30), 황원동(30)
25	15	김용전(10), 김찬환(30), 김홍진(30), 류홍규(10), 손명환(10), 송명진(20), 윤상주(10), 윤학수(20), 이귀형(10), 이성재(50), 임종호(20), 장희태(20), 최미락(20), 하왕규(10), 이승구(100)
26	6	권영한(60), 박기순(20), 배충영(50), 송길수(10), 오중기(40), 하대용(20)
27	4	김수은(10), 백홍중(50), 이희명(20), 황태익(50)
28	14	강영철(5), 김도호(100), 김주연(30), 김학수(30), 안재모(30), 유길형(36), 윤 우(20), 이상욱(10), 이석원(30), 임종춘(20), 지윤규(10), 최병주(30), 최차규(60), 홍성표(40)
29	16	김철우(30), 김홍온(100), 남승우(30), 박성기(30), 박재복(50), 서부종(30), 안준기(30), 양철환(150), 이경달(40), 조병호(100), 조평현(50), 차종환(60), 최용준(50), 최정근(100), 한봉완(50), 문병규(30)
30	11	강구영(50), 김광희(100), 김성용(9), 이용곤(26), 이학주(55), 정경두(305), 정중규(45), 최영훈(20), 심인태(105), 조보근(60), 조영봉(20)
31	3	고종봉(41), 박양기(100), 이왕근(50)
32	5	남동우(20), 박승룡(10), 원인철(10), 이성형(10), 허창희(40)
33	4	박광필(10), 이병권(10), 정영철(10), 최현국(30)
34		
35		
36	3	남영진(110), 박영준(10), 박문덕(90)

>> 성무 장학사업 안내

37	1	정장용(20)
38	2	김정한(30), 최재혁(30)
39	1	김재권(15)
40	1	오제정(10)
41		
42	2	김태우(19), 백도석(37)
43	1	정재식(10)
44	3	고준기(49), 곽병창(10), 최영호(10)
45	1	이형섭(10)
46	3	고휘석(95), 서정민(10), 한천희(10)
47	1	박형준(2)
52	1	황현모(5)
기업, 단체	6	공군전우회 LA지회(61), 록히드마틴(1,619), 미서부지회(60)
일반	1	이봉근(20)



성무 장학기금 기탁 계좌

국민은행 485501-01-349902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국민은행 485537-01-005489

예금주 : (사) 성무안보연구소

※ (사)성무안보연구소가 2023년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성무안보연구소 계좌로 기탁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물류를 책임지는 가장 신뢰받는 종합물류기업

국내 전지역 물류 Network를 보유
one stop 화물관리 services



- 항공/해상 수출입 화물운송 서비스
Export and import cargo trucking services

- 창고 보관 서비스
Warehouse services

- 수출 포장 서비스
Export packing services

-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Container Loading and Unloading

- 환적화물 서비스
Trans Shipment Services



CEO 한동석

- 공군사관학교 졸업(31기)
- 현 (주)백마종합물류 대표이사




백마종합물류(주)

편집 후기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란 나무는 거센 바람과 거친 날씨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초 성무지 제52호 제작을 명(?)받은 십여 명의 30기 편집위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역 광장 한복판에 내던져진 어리보기 촌담처럼 잠시 허둥거렸으나 이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철 같은 팀워크로 푹푹 뭉쳐 9개월 넘게 취재하고 쓰고 고치고 또 쓰고 고치기를 무수히 반복한 결과 마침내 옥동자 탄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들이 인고의 세월을 거쳐 거목으로 자라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듯이 성무대의 역사와 전통, 생도문화와 교육제도 발전사에 초점을 맞춘 이번 성무지 발간 작업은 만여 명 선후배 성무인들이 74년간 이루어 낸 빛나는 성과와 이야깃거리를 체계적으로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내고자 애썼던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작(孔雀)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 화려한 꼬리깃털을 감추는데 이것을 ‘공작의 금지’라고 부른답니다. 공작 같은 마음(^^)을 가진 성무지 제52호 편집위원들을 일일이 소개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정경두 회장과 파도처럼 밀려오는 일터미 속에서도 곳곳하게 버티며 임무를 완수한 이학주 사무총장, 그리고 여러 번의 수정 편집 작업에도 묵묵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총동창회사무실 설민진 실장에게만은 지면을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사랑만 하기에 짧은 인생입니다. 까르페디엠!(Carpe diem!) 

기고 안내

『성무』지는 연1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수필, 여행기, 체험기, 취미활동 그리고 회원들과 나누거나 전하고 싶은 유익한 내용 등 다양한 글들을 보내주십시오.

제53호 성무지 원고는 2024년 7월 마감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3. 10. 31

발행인 정경두

편집인 김광희, 김성원, 김종석, 박종완, 서교선, 손한섭,
이용곤, 이학주, 정 수, 조보근, 채덕상, 최영훈

발행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 성무안보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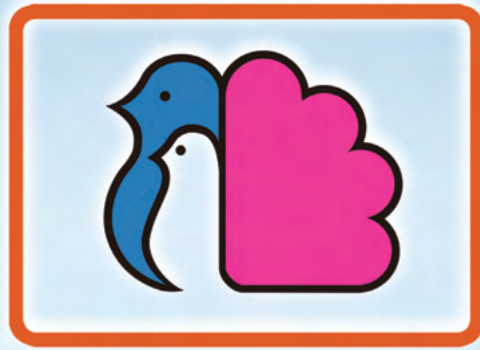
주 소 (우)0694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연락처 02-823-1091

이메일 04airfa@hanmail.net

홈페이지 www.kafaaa.or.kr, www.srins.re.kr

편집·제작 대한기획인쇄 02-754-0765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사랑으로」 부영 -

부영은 더 큰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고교·대학교 교육시설 건립 기증



아·태지역 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기증



The Innovating Pioneer for a Sustainable Tomorrow

We create sustainable technologies to protect
human-beings and our planet.



LIG



The New One LIG Nex1

무인화, 드론, 로봇, 인공지능, 우주에 이르기까지
미래 전장을 압도할 혁신으로 새로움을 선사하다.

차원이 다른 기술, 미래를 이끄는 혁신 with LIG Nex1



THIS IS OUR PLEDGE

완벽한 비행을 약속하다

운항승무원 | 김도훈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삼양화학공업

Since **1972**

대한민국 자주국방과
함께 걸어온 한 길

SAMYANG CHEMICAL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택

C-130J 허큘리스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최첨단 수송기입니다.
입증된 다목적성과, 검증된 작전성능, 글로벌 입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lockheedmartin.com/en-us/products/c-130.

FA-50 유럽 하늘 첫 비행

FA-50이 유럽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을 기념해
GLOBAL KAI가 만든 FA-50GF 2대가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국산항공기 최초로 유럽의
하늘을 비행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폴란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며
영공 수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FA-50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